ISSN 1223-9683

博 物 館 紀 要

24

2009. 12.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목 차

❖ 論　　文

塔婆의 기원과 東方전파 ····· 鄭 永 鎬 ····· 5

三國時代의 塔婆 ····· 張 俊 植 ····· 29

統一新羅時代의 塔婆 ····· 申 龍 澈 ····· 63

韓國 古代의 舍利莊嚴 ····· 申 大 鉉 ····· 99

❖ 彙　　報 ····· 141

塔婆의 기원과 東方전파

鄭 永 鎬*

Ⅰ. 塔婆의 기원
Ⅱ. 初期의 塔婆건립과 樣式
Ⅲ. 塔婆의 東方전파
1. 西域의 塔婆
2. 中國의 塔婆
3. 韓半島의 塔婆
Ⅳ. 結語

Ⅰ. 塔婆의 기원

塔婆는 印度에서 비롯된 건조물로 釋迦牟尼佛의 眞身舍利를 봉안하기 위하여 축조하였다. 이 造形을 스투파(Stŭpa : 率堵婆)라고 하는데 이 말을 意譯하여 方墳 또는 高顯處라고 일컫기도 한다.

率堵婆는 고대 인도어인 梵語(Sanskrit)의 Stŭpa의 소리를 漢文으로 표기한 것이며, 塔婆는 巴梨語(Pali)의 Thupa를 漢文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塔婆의 준말로 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Stŭpa(率堵婆)와 Thupa(塔婆)는 같은 聖寶的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造形으로 釋迦牟尼佛의 身骨을 담고 土石을 쌓아 올린 佛身骨(眞身舍利)을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佛敎의 교주인 釋迦牟尼佛이 인도 Kusinagara의 사라쌍스(沙羅雙樹) 밑에서 열반함에 많은 제자들은 釋迦牟尼佛의 遺體를 당시 사회의 풍속에 따라 茶毘(火葬)하였다. 다비한 자리에는 8말4되에 달하는 사리(舍利)가 출현하여 빛나고 있었다는 내용이 중국의 불전에 전한다.

사리는 釋迦牟尼佛의 遺體에서 출현한 聖寶로 인도말로 Sarira라고 칭하며 靈驗하고 聖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Sarira를 音譯하여 舍利(사리)라고 하며, 佛家에서 다시 없는 尊貴한 예배체로 숭앙하고 있는 것이다. 舍利에 대하여 新譯에서는 設利羅, 室利羅라 하며 身骨, 遺身, 靈骨이라 번역하는데 매우 얻기 어려운 靈聖寶로 제일가는 福田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全身舍利, 碎身舍利, 生身舍利, 法身舍利로 구별하는데, 전신사리는 다보불과 같이 전신이 그대로 사리인 것을 말하며, 쇄신사리는 釋迦牟尼佛의 사리와 같이 몸에서 나온 낱알로 된 것을 말한다. 생신사리는 여래가 滅度한 뒤에 전신사리나 쇄신사리를 남겨두어 사람(人)과 하늘(天)이 공양케 하는 것이며, 법신사리는 대승과 소승의 일체 경전을 말한다. 본래는 이렇듯 신골이나 죽음을 모두 舍利라 하였는데 후세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화장한 뒤에 출현한 작은 구슬모양으로 된 물체만을 舍利라 칭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사리(舍利) 개념은 釋迦牟尼佛 身骨에서 출현한 작은 구슬모양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리는 佛家 제일의 성보이므로 어느 때든 가장 존귀한 예배의 대상이 되었었다.

釋迦牟尼佛 열반 후 사리가 출현하였을 때 당시 인도의 여덟 나라에서는 제각기 부처님의 사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무력적인 쟁탈이 일어나게 되었었다. 이때 여러 불제자 중 한사람인 徒盧那의 의견에 따라 佛陀의 사리를 똑같이 여덟 나라(八大國)에 나누어 주어 각기 塔婆를 세우니 이때에 八大塔이 건립되어 최초의 建塔을 여기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리를 나누어 주어 分舍利 또는 舍利八分이라는 법도와 용어가 이때에 비롯하였다. 그리고 불가에서의 분사리가 이때부터 시작하였고, 舍利信仰도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塔婆의 기원, 塔婆의 건립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편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에서는 탑파를 다가바(Dagaba) 또는 다고바(Dagoba)라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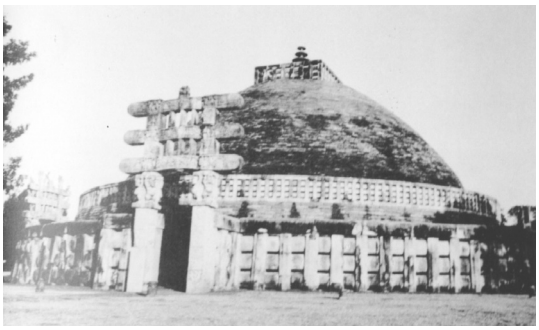
르고 있는데 이것은 다투가르바(Dhatugarba) 곧 「舍利奉藏의 장소」라는 말을 略하여 부른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현재 버마에서는 탑을 파고다(Pagoda)라 부르고 유럽이나 미국인들 역시 파고다라고 부르며 세간에서는 흔히 細長한 고층건물을 탑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타워(Tower) 같은 것이지 스투파는 아니다. 그러므로 寺刹에 건립된 탑은 엄밀히 말하면 「탑파」 또는 「불탑」이라 표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釋迦牟尼佛이 入滅한지 100년이 지나 최초로 大印度帝國을 건설한 Maurya 王朝의 제3대 임금인 Asŏka王(273～232 B.C.)은 佛舍利를 봉안한 八大塔을 해체 발굴하여 다시 8말4되의 불사리를 모시어 전국 8만4천 곳에 分舍利하여 이른바 8만4천塔을 세웠다고 한다. 당시 동쪽으로 벵갈만, 서쪽으로는 아라비아海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한 광대한 大帝國의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서 佛心깊은 大王이 넓은 지역에 일시에 많은 塔婆를 건립하여 불교를 크게 전파시켜 우선 사상적 통일을 기하였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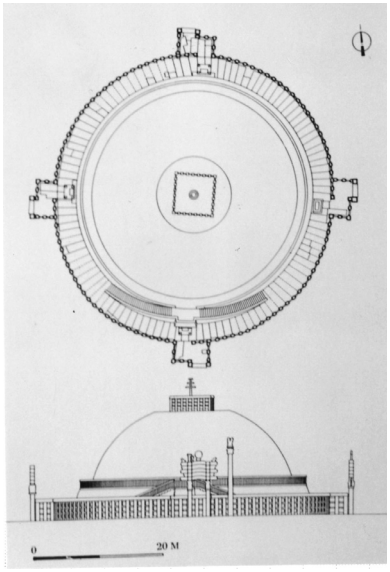
西紀前 3세기 Asŏka王 때의 불교 중심지였던 Sanchi에는 지금도 Sanchi塔이라 하여 거대한 탑이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Sanchi塔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4大 塔門과 주위 난간 조각들이 아름답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塔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세계 제일의 塔婆이다.(사진 1 참조)

이와 같이 塔을 세우는 의식이 인도에서 비롯되어 석가모니 입멸 직후 8기의 탑파를 쌓았고, 이후 100년이 지난 기원전 3세기에는 8만4천탑이 전국에 건립되었는데, 최초의 탑은 半球形을 이루어 마치 墳墓와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탑파는 본래 圓墳形을 이루고 있고 차차 후대에 이르러 그 밑에 높은 기단을 만들어 탑신을 받치고 있으며, 정상부에 相輪 장식이 생기고 그 수효가 늘어나는 한편 주위에 돌난간을 둘러 아름다운 조각물을 새기기도 하였다. 8만4천탑이라고 하는 상상외의 많은 탑 가운데서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탑은 과연 몇 기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방면 학계에서 항상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하나이다. Asŏka王 때에 건립한 原形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탑이 몇 기가 되느냐는 것이다. 원형이라고 칭하는 탑의 대부분은 그 후 여러 차례 보수, 개축 등으로 원형을 잃고 있으나 Sanchi의 탑은 주위에 돌려진 난간에 「Asŏka王 때 건

조한 탑」임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전체 형태에 있어서도 다소의 보수 부분은 있으나 개축하지는 않았으므로 유일한 Asōka王 때 건립된 탑, 세계 最古의 佛塔으로 추앙을 받고 있으며, 불탑의 기원 양식을 여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사진 2 참조)



(사진 1) 印度 Sanchi 大塔(東南측에서)



(사진 2) 印度 Sanchi 大塔의 平·立面圖

인도의 Sanchi 大塔을 보면 탑의 형태가 圓墳인 동시에 밖으로 난간을 돌리고 동·서·남·북에 각 1門씩 4大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정상에는 傘蓋를 장식하였는데 이 부분이 곧 相輪部에 해당한다. 인도에서 비롯된 탑파가 西域을 거쳐 中國에 그 양식이 전파되었을 때 상륜의 장식을 볼 수 있으며, 한국에 수용되어 화려한 상륜부의 형태와 조각들을 보게 된다. 4大門에 있어서 밖으로 난간의 장식을 생략하였을 때 4大門도 따라서 없게 된다. 이러한 생략화의 양식이 곧 탑파 자체에 4門 또는 出入口, 혹은 龕室을 시설하여 諸佛·菩薩像을 봉안하기도 한다. 中國의 神通寺四門塔이나 韓國의 芬皇寺石塔은 四門을 開設한 좋은 例라고 하겠다.

스왓트의 싱게르달 Stŭpa는 초기 탑파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탑에 대해서는 「釋迦牟尼佛 입멸 후 8國에 分舍利한 그 중에 하나가 이곳에 奉埋되어 있다」고 전하는데 그러할 정도로 이 탑의 형태와 양식이 초기적이라는 것이다. 즉 형태가 半球形의 圓墳으로 下部부터 上部에 이르기까지 圓形의 平面을 이루고 있다. 표면을 정연하게 벽돌로 축조하였으며 내부도 벽돌로 쌓았는데 초기이고 벽돌이어서 그러한지 표면에는 조각 등 장식이 일체 없고 소박한 형태이다.(사진 3 참조)



(사진 3) 스왓트의 싱게르달 Stŭ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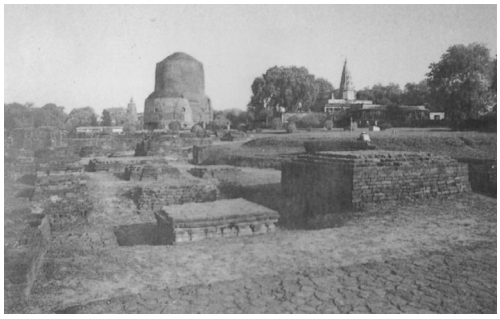
Ⅱ. 初期의 塔婆건립과 樣式

佛敎와 塔婆가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인도이며 최초의 塔이 八大塔이었는데 기원전 3세기 Asŏka王 때 최초의 八大塔은 없어지고 8만4천탑이 건립되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 등 특히 파키스탄의 택실라, 간다라, 스왓트 지역 등 옛 印度大帝國의 故土를 답사하다 보면 그곳의 古塔에 대하여 주민들은 모두 옛날 아쇼카王 때의 「8만4천탑의 하나」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현재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쇼카王 때에 세워진 탑은 Sanchi市 南쪽 동산의 第1塔뿐이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탑의 주위에 돌려져 있는 난간에 「이 탑은 Asŏka王 때에 세운 것이다」라고 옛 梵語로 명문이 새겨져 있으므로 확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八大塔을 헐고 곧이어 전국에 8만4천탑을 세웠다는 바 그렇다면 탑의 형태와 건립 양식 등은 최초의 탑들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견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들 8만4천탑은 Sanchi 大塔의 모양을 따라 圓形 평면에 半球形의 단면이 분묘의 형태였을 것이며, 石材를 塼形으로 치석하여 쌓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塼이라 하여도 模磚石뿐만 아니고 진흙을 빚어 벽돌을 만들어 태양에 말리어 강도가 높은 乾土塼도 많이 사용하였음을 실물에서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釋迦牟尼佛과 관계된 四大聖地 혹은 八大聖地가 있어 이곳들에는 반드시 탑이 건립되어 있다. 四大聖地란 釋迦牟尼佛께서 카비라 성주의 왕자로 태어난 Lumbini (현재 네팔 땅이 되어 있음)를 비롯하여 成道한 Buddhagaya, 初轉法輪地인 Sarnath(鹿野苑이라고도 함), 마지막 열반하신 Kusinagara 등 釋迦牟尼佛과 직접 관련있는 곳을 말한다. 여기에 四聖地를 합하여 八大聖地라 일컫는데 四聖地는 生時와 관계된 4곳, 즉 석가의 수행지인 Rajgir, 석가의 생전에 관계가 깊었던 Vaisali, 석가가 오랫동안 체류하며 전법한 Sravasti, 석가가 33天들을 교설하였다는 Sankasya 등을 말한다. 이곳 성지에는 탑이 축조되어 있는데 아쇼카王의 상징인 獅子石柱가 서있는 곳도 있어 여기의 탑들이 아쇼카王 때에 건립한 탑임을 알게 한다. 예컨대 Sarnath의 다메크 대탑은 벽돌로 쌓아 올린 원통형 불탑으로 아쇼카王 시대에 건조되어 굽타왕조 시대에 증축되었다고 전하는 거대한 塼塔이다.(사진 4 참조) Kusinagara의 안가라 차이티야 대탑도 벽돌로 쌓아 올린 거대한 전탑이다.(사진 5 참조) Vaisali의 Asŏka王 獅子石柱塔 등 전국 각지의 불탑들이 모두 벽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면이 원형이고 외형은 반구형을 보이고 있다.

佛教美術의 寶庫라고 일컫는 파키스탄의 Taxila와 Gandhara 지역에는 많은 불교적인 유적이 산재해 있다. 이 지역은 현재 파키스탄의 이슬람교의 영역이나 옛날에는 인도대제국의 땅이었다. 그러므로 佛教文化가 크게 꽃피웠던 곳이었는데 그 많았던 佛教寺院과 塔婆, 佛・菩薩像들이 이슬람의 침입으로 무참히 파괴되어 그 遺址들만이 옛 모습을 짐작케 할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당국에서 운영・관할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유적지들에는 유적이나 유물들이 보존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산간이나 평지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도굴꾼이나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특히 Stŭpa들이 많은 수난을 당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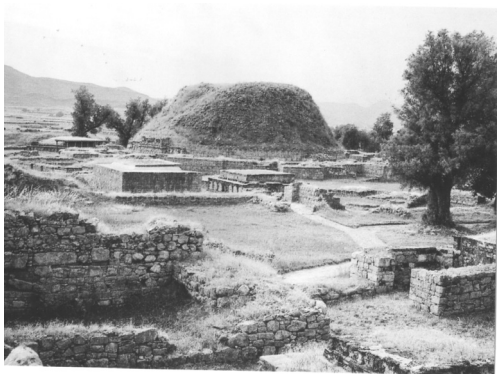


(사진 4) 印度 사르나트의 다메크 大塔



(사진 5) 印度 구시나가르의 안기라차이티아 大塔

Taxila의 달마라지카 主Stŭpa는 圓形基壇의 大型塔을 중심으로 小塔과 僧院들이 둘러 있다.(사진 6 참조) 이와 같이 원형 기단 위에 직접 반구형 탑신을 축조한 印度型은 Gandhara의 만캬라 Stŭpa, Taxila의 몰라모라두 僧院內 Stŭpa, 스왓트의 붓다카라寺院 主Stŭpa, 카불 지역에 이르러 구루다라의 세바키 제1Stŭpa, 구루다라 Stŭpa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루다라의 Stŭpa에서는 주위에 僧房들이 에워싸고 있으며 당국에서 보수의 손길이 있음도 볼 수 있다.(사진 7～11 참조)



〈사진 6〉 택실라의 달마라지카 主Stŭpa



〈사진 7〉 만캬라의 Stŭpa

그런데 Gandhara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印度型을 벗어나 4각형의 기단 위에 圓筒形의 탑신부를 축조하고 정상부에 伏鉢形 相輪을 놓은 형태의 Stŭpa가 건조되고 있는 경

향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스왓트의 Stŭpa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이후 서역에서의 佛塔樣式이 출현하게 되는 源流를 짐작케 한다.

Swat는 Gandhara와 中國의 西域을 연결하는 古代 교통의 요충지였다. 칼라콜롬 하이웨이는 Gandhara와 중국을 연결하는 現今의 통로인데 Swat江 동쪽의 Indus江의 계곡에 뚫려 있다. 이 연도에 길기트와 훈자가 있으며, 길기트江 암벽에 磨崖佛이 자리하고 있는데 중국의 法顯스님이 통행한 옛 길도 이곳에 아슬아슬하게 개통되어 있다. 훈자를 지나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훈제라부 고개를 넘으면 바로 중국 땅을 밟게 된다. 이 길이 바로 비단길(Silk Road)로 이른바 「佛陀의 길」이라 칭하는 西方에서 東方으로 통한 길인 것이다. 「비단길」은 일반적으로 南쪽 海洋으로 통했던 길, 중앙 陸路의 佛陀의 길, 北쪽 草原의 길의 세군데의 通路를 말함인데 佛敎의 전파가 佛陀의 中央陸地行路였으므로 塔婆 전파의 길도 역시 이 路程에서 살피는 작업이 순리일 것이다.



(사진 8) 택실라의 몰라모라두 僧房內 Stŭpa



(사진 9) 스왓트 부다카라 寺院 主Stŭpa



(사진 10) 셰바키의 제1Stŭpa



(사진 11) 구루다라의 Stŭpa

Ⅲ. 塔婆의 東方전파

塔婆는 造形的으로 본다면 최초의 佛教的인 美術이므로 佛教美術研究에 있어서 年代와 造形性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하고도 존귀한 조형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東方으로 전파, 수용한 佛教國에서는 寺院을 창건하고 塔婆를 건조하여 오늘날 그 전통을 보이고 있으며 폐사된 자리에서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印度, 파키스탄 스왓트 지역의 始原的인 塔婆의 형태에서 길기트 훈자지역을 거쳐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훈제라부 고개를 넘어 新疆위글 自治區 일대의 西域으로 오면서 탑파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여기서 중국을 거쳐 韓半島에 이르게 되면 형태는 물론 造成材料가 확연하게 달라져 三國期를 거쳐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면 韓國塔의 典型的인 石塔을 보게 된다.

1. 西域의 塔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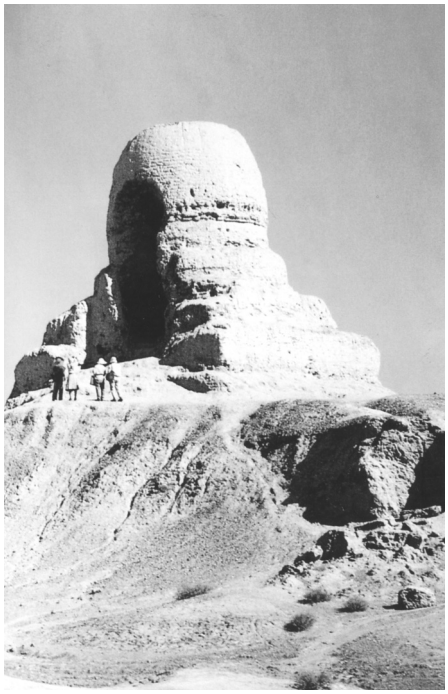
印度 지역을 벗어나 東方으로 향하면 西域이 되는데 여기서 서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파키스탄과 중국의 칼라콜롬 하이웨이의 훈제라부 고개마루에서 국경을 이루고 있는 중국 新疆위글 자치구 일대를 말한다. 파키스탄의 스왓트를 지나 길기트를 거쳐 훈자지역에 들어서면 협곡이 험준하고 평지가 거의 없어 인적이 드물어 古來로 불교사원의 발달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키스탄의 절벽 길들을 따라 훈제라부 고개를 올라서면 新疆지역은 평원지대가 연속되었으며 다슈구루간에 이르면 높직한 구릉에 乾土塼으로 쌓은 石頭城이 축성되어 있어 높직한 성벽들을 볼 수 있다. 큼직한 土塼으로 축성하고 土壁을 쌓았는데 여기서 건축물의 축조법을 짐작할 수도 있게 한다.

이곳으로부터 新疆 위글자치구의 首府인 「카슈갈」까지는 파밀고원의 높은 山峰 사이 길인데 해발 4,000m 내외의 험준한 골짜기에서는 역시 인적이 드물어 토착민의 문화를 찾기가 어려운 곳이다. 唐代에 玄奘法師가 이 길을 걸었고 新羅의 慧超스님이 이 길을 통하여 카슈에 도착 「카슈갈」이라는 地名(도시명)을 지어준 사실은 『카슈갈文物志』에 밝혀져 있어 유명하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보면 「서역」이라 할 때 중국의 중앙부로부터 서쪽 新疆 위글자치구의 서단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 즉 카슈갈을 서단으로 하여 동쪽 지역을 말함인데 동쪽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사이에 두고 남쪽의 西域南路, 북쪽의 西域北路(이곳을 天山南北路로 지칭할 때는 天山南路에 해당함)를 거쳐 甘肅省에 이르는 수천킬로의 광야를 말한다. 이곳은 예부터 大沙漠盆地를 사이에 두고 남쪽의 동서로 통하는 길을 서역의 남로라 하여 이 길목에 야르칸드, 카르가릭, 구마, 화전, 니야, 체르첸, 米蘭, 樓蘭 등 곳곳에 유적이 남아있다. 타클라마칸 대사막 북쪽의 동서로 연하는 길인 西域北路(天山南路) 길목에도 악수, 쿠차, 코를라, 카라샤르, 투르판 등 지역 곳곳에 유적이 있어 서역의 문물들은 역시 이 두 곳의 동서통로에서 찾게 된다. 그러므로 탑파에 있어서도 이 兩 통로 주변에서 발달하였던 불교적인 문화유산 즉 諸寺院과 寺院址에서 찾아야 할 것인바 일찍부터 외세에 밀려 거의 파괴되고 현재는 폐허 속에서 遺址만을 확인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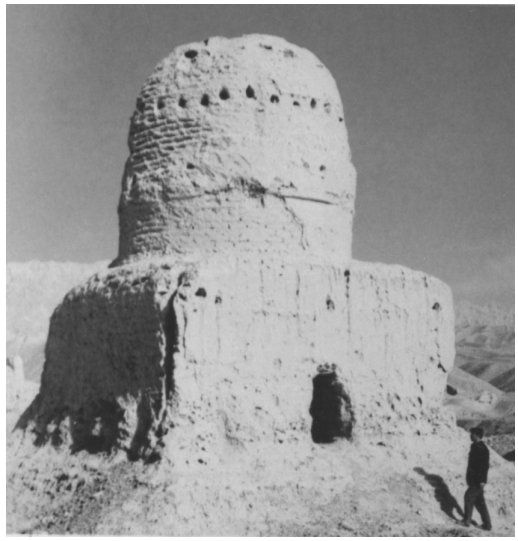
우선 파키스탄으로부터 서역으로 들어와 첫 도시인 카슈갈에 이르면 동쪽 교외로 약

30km되는 벌판 언덕 위에 황폐한 옛 사원지가 있고 이곳 남쪽 편에 약 15m 높이의 모아르(Mol) Stŭpa가 건조되어 있다.(사진 12 참조) 乾土塼으로 축조하였는데 널찍한 4각형의 기단 2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높직한 원형의 괴임단을 구축한 위에 원통형의 탑신을 쌓았다. 현재 탑신부로부터 기단부에 이르기까지 縱으로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도굴범들의 소행이라고 한다. 이 佛塔은 Swat 지방에서의 사각형 기단 위에 圓筒形塔身을 축조한 양식이 전해진 첫 지역의 탑으로서 西域佛塔型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모범형태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카슈갈 교외 모아르불탑의 양식을 잘 본받고 있는 탑이 西域北路上 쿠쟈 스바시 古城의 불탑이다. 즉 쿠쟈河의 양쪽 연안에 광대한 사원 群址가 있는데 『대당서역기』에 <소호리가람(昭怙釐伽藍)>이라 표현되어 있으며, 이곳의 동쪽 연안의 스바시 고성지내 사원터에 불탑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乾土塼으로 축조하였으며 높직한 4각형의 기단 위에 원통형탑신을 형성하였는데, 기단부의 층단 수효와 탑신괴임단이 생략



(사진 12) 카슈갈 郊外의 모아르 Stŭpa



(사진 13) 쿠쟈스바시故城의 佛塔

된 것은 전체적인 건탑 양식이 略化되어 東漸하는 경향의 일면을 보이고 있는 바라 하겠다.(사진 13 참조)

이와 같은 불탑의 형태는 서역남로상의 米蘭 불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탑에서도 乾土塼으로 축조한 높직한 기단과 그 위에 원통형탑신이 형성되어 있다.(사진 14 참조) 서역북로의 종착지점인 투루판에 이르면 중국의 西方을 거쳐 敦煌, 安西, 酒泉, 嘉峪關으로 향하는 길인데 투루판 지역에서는 交河故城, 高昌故城, 아스타나古墳群, 千佛洞 등 많은 불적과 고대의 유적들이 많다. 이 가운데서도 交河故城 중앙부에 위치한 불탑은 기단부와 괴임대가 파손되었으나 그 흔적은 뚜렷하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4각형 평면의 탑신부를 이루고 있으며 각 면에 龕形을 설치하여 불상을 봉안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인도 Sanchi탑에서의 四大門 개설에 그 연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交河故城의 塔林에 있어서 乾土塼으로 건축하되 평면 4각형의 기단부 위에 小塔들을 배치 건립하였는데 모두 평면 4각형의 탑들인 것이다. 서역지역에서의 원통형탑신의 평면이 4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사진 15～17 참조)

이와 같이 西域에서의 佛塔 상황을 살펴보았는바 Swat와 연결되는 카슈갈에서는 印度 후기의 불탑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西域南北路를 통하여 점차 동쪽으로 중국이 가까워지면서 平面圓形의 불탑양식은 平面四角形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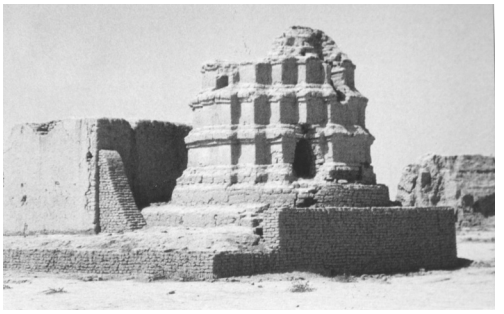
(사진 14) 米蘭의 佛塔



(사진 15) 交河故城 中央部의 佛塔



(사진 16) 交河故城의 塔林



(사진 17) 高昌故城의 佛塔

2. 中國의 塔婆

中國에 佛教가 전래한 때는 西域經略과 깊은 관계가 있는바 세력을 西方으로 향하고 있던 後漢 明帝10年(67 A.D.)의 일이다. 夢感說에 의하면 明帝는 蔡愔을 大月氏國에 파견, 佛法을 구하였는데 大月氏國에서는 가니시카王의 돈독한 佛心으로 北西 인도지역을 속령으로 하여 국세가 떨쳤으며, 佛教弘通의 중심이었다. 이때 大月氏國에서는 불상과 불경을 보내며 2명의 승려를 따르도록 하여 최초로 洛陽에 白馬寺를 창건하였다. 白馬寺란 寺名은 불상과 불경을 白馬에 실어 낙양에 奉送해왔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白馬寺를 창건하고 입구에는 당시의 白馬를 石材로 조성 배치하였었다. 불교적인 文物이 서역으로부터 전래되었는데 西域 南・北路를 통한 문물이나 天山北路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오는 문물들은 일단 敦煌地域에서 모아지고 酒泉과 武威를 거쳐 蘭州로 통하였으며, 西安(長安)으로 들어가 곧 낙양으로 연결되어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 불교가 처음으로 당도하여 창건한 白馬寺에 印度式의 塔이 건립되었다는데 어떠한 형태인지를 알 수 없고, 한편 北魏 때(386～534년) 白馬寺에 塔 1基가 있어 中國木結構樓閣式 平面四角形 建築物이었다고 하나 이 탑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北魏 때 기록인『洛陽伽藍記』에 의하면 洛陽에 永寧寺塔이 北魏 孝明帝 熙平元年(516년)에 세워졌는데 평면 4각의 9층목탑으로 純中國樓閣式塔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木塔도 現存치 않는다. 그리하여 중국에서의 早期塔은 부분적으로 인도의 Stŭpa와 西域諸國式의 영향을 받았으나 뒤에는 木造樓閣式佛塔의 中國型을 건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現存 佛塔으로 가장 오래인 遺構는 河南省 登封縣의 嵩山嵩岳寺塔이다.(사진 18 참조) 北魏 正光 元年(520년)에 건립한 磚塔으로 15층이며 약 40m 높이다. 평면 12角으로 下層에는 四方에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上層으로 올라가면 각 면에 龕室形이 마련되어 있음과 옥개받침들, 모서리 부분에 枓栱의 木造架構 양식의 일면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四門通路와 圓形에 가까운 12角의 多角平面 등이 주의를 끄는데 이러한 양식은 이미 인도의 Stŭpa에서 살펴보았으며, 이후에 건립된 中國佛塔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 山東省 歷城縣의 神通寺四門塔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석재가 큰 편이므로 模磚石塔이라기 보다는 石塔이라 칭하고 있으며, 隋 煬帝7年(611년)에 건립하였음이 분명해졌다.(사진 19 참조) 평면이 4각형으로 단층이어서 單檐亭式石塔이라 일컫는다. 옥개받침도 주목되려니와 상면 낙수면부의 층단이 더욱 주의를 끈다. 4면 통로 중심에는



(사진 18) 嵩山 嵩岳寺塔(磚塔, 520년)



(사진 19) 神通寺 四門塔(石塔, 611년)

정사각형의 塔心柱가 놓여 있는데, 백제의 益山彌勒寺石塔 初層의 四方通路와 중심의 心柱石을 연상케 한다.

陝西省 西安의 慈恩寺大雁塔은 높이 59.9m의 大塔으로 유명하거니와 건립 연대가 唐 永徽3年(652년)으로 여러 가지 오래인 역사를 지니고 있어 더욱 유명해졌다.(사진 20 참조) 평면 사각형의 磚塔인데 樓閣式 전탑으로 알려져 있다. 즉, 磚材이나 木造架構의 건축으로 枓栱과 欄額 塔內空洞結構 등이 모두 목조건물의 각 부분을 보이고 있다. 초층 4면에 門通路가 개설되어 있고 각 층에도 1門씩이 마련되어 있어 古塔임을 알게 한다.

陝西省 西安市 長安縣 興教寺 內의 玄奘墓塔은 佛塔이 아니고 僧侶의 舍利塔으로 곧 浮屠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에는 승려의 부도라 하여 별도의 형식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불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玄奘塔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불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건립연대가 확실하여 여기에 언급하려는 것이다. 이 玄奘塔은 唐 總章2年(669년)에 건립하였고 5층인데 興教寺 중심부에 主塔으로 건조되어 있으며, 그 앞 東쪽에 3층의 圓測塔, 西쪽에 3층의 窺基塔이 배치되어 있다. 圓測스님은 신라의 高僧이고 窺基스님은 唐나라의 高僧으로, 이 2人은 名僧 玄奘法師의 首弟子로서 譯經事業에 크게 공헌한 당시의 이름난 학승이었다. 이 兩塔도 玄奘塔과 함께 그 때의 建塔 상황을 고찰



(사진 20) 慈恩寺 大雁塔(磚塔, 652년)



(사진 21) 興教寺 玄奘墓塔(磚塔, 669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인바 여기에서는 玄奘塔만을 살펴보고자 한다.(사진 21 참조)

玄奘塔은 평면 정사각형으로 樓閣式磚塔이다. 5층의 塔身部를 받는 基壇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초층 탑신의 南面에 龕室이 개설되고 그 안에 玄奘의 塑造坐像을 안치하였다. 2층부터는 각층 각면에 兩隅柱 이외에 撐柱形 2柱씩을 세웠는데, 그 柱頭의 枓栱은 곧 목조가구의 일면을 잘 보이고 있다. 옥개 하면의 받침단과 상면의 층단들이 정연하고 상륜부도 또한 정연하여 중국 건축사상 唐代의 木構樓閣式磚塔의 最早期塔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陝西省 西安城 남문 밖 薦福寺의 小雁塔은 唐 中宗 景龍元年(707년)에 건립하였으며, 같은 西安市의 大雁塔에 비하여 다소 작아서 붙여진 小雁塔 塔名이다. 전체 높이 43m이며 평면 정사각형의 磚塔인데 본래는 15층이었으나 明나라 世宗 嘉靖34年(1555년)에 지진으로 인하여 윗층 2층이 파손되어 현재와 같이 13층이 되었다고 한다.(사진 22 참조)

중국에서 일컫는 密檐式磚構建築으로 높직한 磚構 기단 위에 건립되었다. 각층 면에는 柱頭 등 목조가구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고 옥개의 하면받침과 상면의 층단은 정연하다. 초층의 남・북쪽 면에는 門이 개설되어 있어 각층마다 같은 형태인데, 내부는 樓閣式으로 중앙에 1개의 方室이 있고 상・하가 관통되어 있어서 塔頂까지 直達할 수 있으며 올라가서 조망할 수 있어 주목된다.

山東省 濟南市 歷城縣 白虎山 西麓의 神通寺 祖師墓塔林 남쪽에 龍虎石塔이 건립되어 있다. 탑신부에 龍虎의 조각이 있으므로 塔名을 龍虎石塔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塔身東面에 「開元五年二月所建」이라는 刻字가 있으므로 唐 玄宗5年(717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진 23 참조) 평면 정사각형으로 單層墓塔形 기단 위에 높직한 3층의 괴임단을 마련하고 탑신부를 받고 있다. 탑신의 각 면에 龕室을 개설하여 불상을 봉안하고 입구 주위에 강한 陽刻으로 龍虎・羅漢・力士・伎樂・飛天像 등을 가득히 조각하여 탑신부에 조각 滿相의 예를 보이고 있다. 석탑이라 하여도 大形 石材들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磚으로 결구하여, 특히 옥개받침과 하부의 枓栱에서 木造構造性을 볼 수 있어 磚石混用結構形塔이라 하겠다. 이 석탑의 북쪽에는 墓塔林 즉, 浮屠群이 있어 歷代 住持와 和尙들의 부도를 안치하고 있으니 곧 한국에서의 「부도밭」과 같다.



(사진 22) 薦福寺 小雁塔(磚塔, 707년)



(사진 23) 白虎山 龍虎塔(石塔, 717년)

山東省 歷城縣 靈鷲山 觀音寺에 九頂塔이 건립되어 있다. 평면 8각으로 磚塔 單層인데 정상부에 중심의 一塔 주위에 8基의 小塔들이 둘러 있어 九頂塔이라 하고 寺名도 九塔寺라 칭하고 있다.(사진 24 참조) 자료에 의하여 唐 玄宗 天寶年間(742～755년)에 建塔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높직한 塔身의 상부에는 남면에 龕室을 개설하고 石造의 佛像 1軀와 佛像 2座를 봉안하였다. 옥개의 받침들과 상면 층단은 정연하고 낙수면의 8面 合角머리는 완만한 곡선을 보인다. 塔 정상부의 중앙탑은 3층의 磚塔으로 우뚝하며 그 주위에는 8角의 모서리에 1基씩 小形의 3層磚塔을 배치하여 모두 8基의 小塔이 中心塔을 에워싸고 있다. 이 小塔들에도 初層塔身 1面에는 龕室이 개설되고 옥개의 상・하면 층단 받침들은 모두 정연하게 축조하였다.



(사진 24) 觀音寺(九塔寺)
九頂塔(磚塔, 750년)

3. 韓半島의 塔婆

불교에서 寺院을 건립하는 목적이 塔婆를 건조하고 佛像을 奉安하여 여기에 예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塔婆는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불의 舍利를 봉안하기 위하여 세웠고 佛像은 직접 그를 향하여 예배를 올리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塔과 佛像은 가장 중요한 불교의 聖宝로서 한국고대로부터의 건축과 조각을 대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불교수용의 경로와 연대가 제각기 다르다해도 6세기 이후에는 활발한 불교적인 造形 活動과 弘法이 진행되었음을 여러 기록과 유적・유물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建塔에 있어서도 각국이 특징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록과 유적 등에서 알 수 있게 한다.

고구려에 있어서 현존하는 실물은 없으나 기록과 발굴조사로써 建塔 상황을 알 수 있다. 즉,『三國遺事』에 遼東城育王塔과 평양 城西大宝山下의 高麗靈塔寺의 건탑 전설이 보이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요동성에 탑파가 있었는데, 이 탑이 三重土塔이었던 것을 성왕의 信心 발원으로 7층목탑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高麗 靈塔寺의 전설은 이 사찰의 창건 설화로서 僧 普德이 평양성에 살고 있었는데 山方老僧의 부탁으로 城西 大宝山 岩穴下의 禪寺에 이르니 神人이 와서 이곳에 거주하라 하며 錫杖을 앞에 놓고 그 땅을 가리켜 말하되 이 속에 8面7級의 석탑이 있다하므로 발굴하니 과연 그러하였다는 것이다. 이 두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遼東城育王塔」에서의 <傍有土塔三重 云是佛塔 起木塔七重>이라는 기사와 「高麗靈塔寺」에서의 <此下有八面七級石塔>이라는 기사이다. 이 내용들은 특히 중요하여 고구려 탑파의 관계 기록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起木塔七重>이라 한 것은 7층목탑을 말함이고, <八面七級石塔>이라고 한 것은 8角7層石塔이며 <云是佛塔>은 역시 佛舍利塔으로 탑파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土塔三重>이라고 한 것은 3층 토탑을 말함인데, 당시의 토탑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관련 기록을 보면 <上如覆釜>, 즉 위는 솥을 덮은 것 같다고 하였으니, 곧 覆鉢形을 표현한 것 같은데 토탑이라고 한 것을 보면 土築方壇 위에 복발을 설치하여 마치 인도탑의 연원적인 형식인 土塼築覆盆 형식과도 같은 형태를 취했던 토탑이 아니

었던가 한다. 이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볼 때 고구려의 탑파는 木塔, 石塔, 土塔이 건립되었고 층수에서는 3층과 7층이 있었으며 형태는 8각의 평면을 구성한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헌에는 없으나 고구려의 절터를 발굴 조사하여 고구려 탑파의 존재를 실증한 유례가 있으니 평양시 동쪽의 淸岩里寺址에서 8각전의 8각 기단과 평안남도 大同郡 林原面 上五里 고구려 절터에서 8각당의 기단부가 조사되어 평면 8각의 목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에서는『三國史記』百濟本紀 義慈王 二十一年條에「震天王道 二寺塔」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탑파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탑의 형태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발굴 조사에서의 부여의 군수리 폐사지와 금강사지, 익산의 제석사지 등의 사찰에 탑파가 건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군수리 절터와 금강사지의 발굴 조사에서는 平面 4각형의 목탑 기단부가 확인되었고 제석사지에서도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심초석의 사리공과 평면 4각형의 목탑 기단부를 확인한바 있다.

그런데 백제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익산에 미륵사지가 있고 이곳에 평면 4각형의 목탑지와 거대한 석탑 1基가 남아 있으며 충청남도 부여에는 정림사지 한가운데 5층석탑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백제시대 탑파의 연구에 다시없는 귀중한 유구들이라 하겠다. 이 2基의 석탑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석탑이 발생하기 전에 목탑이 먼저 유행하였으며 석탑은 이후 삼국기말에 이르러 백제에 의하여 비로소 건조되었는데, 그 양식은 곧 당시에 유행하던 목탑을 본 딴 것이었다.

한국의 석탑이 백제에서 시발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백제는 그 당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건축술이 발달해 있었다. 백제가「寺塔甚多」의 나라로서 널리 국외에 알려진 사실이나 신라의 皇龍寺九層木塔을 건립할 때 백제의 阿非知가 초빙되어 巨役을 담당하였다는 사실, 일본 초기 사원의 창립을 위하여 寺工이나 瓦博士 등이 건너간 역사적 사실 등이 백제에서의 寺·塔 건립의 융성과 그로 말미암은 석조미술의 발생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백제에서는 특히 건축술이 발달하였으며 그러한 오랜 전통과 技工의 연마는 마침내 백제 후반인 7세기초엽에 이르러 석재로써 목탑을 모방하여 탑파를

건립한 석탑의 始建을 이룩하게 하였으니 한국 석탑의 연원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익산의 미륵사지석탑과 부여의 정림사지 5층석탑을 주목, 거론하게 되는 것이다.

미륵사지석탑은 한국 最古最大의 塔으로 현재 훼손된 상태일지나 본래는 평면 4각형의 9층탑신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단부는 목탑에서와 같이 낮고도 규모가 작은 편이다. 탑신부에서 초층탑신은 각 면이 3間씩인데 중앙 1間에는 각 면에 출입구가 마련되어 내부로 통하게 하였으며 내부 중앙의 교차되는 중심에는 거대한 4각형 石柱가 있다. 이것이 곧 擦柱인데 이러한 석주가 지탱하고 있는 것도 목탑에서의 형식과 같은 점이다. 각 면에는 엔타시스를 표현한 4각형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 平枋과 昌枋을 가설하였으며, 다시 枓栱양식을 모방한 3단의 받침이 있어 옥개석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목조건물 가구를 본받고 있는 것이다. 2층 이상의 탑신은 초층보다 훨씬 얕아졌으나 각층 높이의 차이는 심하지 않으며 각부의 가구는 약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얕고 넓은데 네 귀퉁이의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이며 2층 이상의 옥개석은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줄어들었을 뿐 두공양식의 3단 옥개받침이나 전각의 반전 등 각부가 초층과 같은 수법을 보이고 있음은 탑신의 경우와 같다. 이 석탑의 건립 연대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 때 보았을 때 武王代(600～641년)로 추정된다. 이 석탑에서 초층탑신 4면에 通門이 있고, 탑신부가 層形인 점은 중국의 석탑들에서 볼 수 있다.



(사진 25) 扶餘 定林寺址 五層石塔

정림사지 5층석탑은(사진 25 참조)

은 여러 개의 장대석으로 지대석이 짜여 지고 그 위에 단층기단이 마련되었는데, 2단의 높직한 괴임대 위에 놓여있다. 면석의 높이는 낮고 각 면에 양쪽 우주가 마련되었으며, 8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진 갑석은 두꺼운데 이러한 기단부의 형식은 곧 목조건물의 기단과 흡사한 점이 있다. 이 석탑은 一見하여 목탑의 구조를 닮고 있음을 곧 알 수 있으니 각층 탑신 우주에 보이는 엔타시스 수법, 얇고 넓은 각층 옥개석의 형태, 옥개석 각 전각에 나타난 반전, 옥개석 하면의 목조건물의 두공을 변형시킨 받침수법, 특히 낙수면 네 귀퉁이의 두둑한 우동마루형 등에서 이런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 석탑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현재 상륜부를 결실한 노반석까지의 석재가 149개인데 이것만으로도 이 석탑이 목조가구의 번안임을 알 수 있다. 이 석탑의 건조 연대는 여러 가지 점을 종합했을 때 미륵사지석탑 다음 시기인 7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 석탑의 세부 수법에서는 목조양식의 모방에서 탈피하여 정돈된 형태에서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의 형태가 장중하고 명쾌하여 격조 높은 기품을 풍기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에서의 석탑 양식과 다른 일면이라 하겠다.

신라시대의 탑은 塼塔의 모방에서 출발하였다고 보겠다. 신라의 가장 오래인 탑은 경주의 芬皇寺石塔이다.(사진 26 참조) 이 탑은 塼塔양식을 모방하였으나 그 재료는 塼이 아니고 石材를 塼形으로 治石한 模磚石이다. 그러므로 이 석탑은 모전석탑이라 하겠는데 건조 연대는 선덕여왕3년(634년)으로 백제의 武王代와 같은 때인 것이다. 분황사석탑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초층 탑신 4면에 龕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나 백제에서 通門이 4면에 개설된 형태로부터 약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분황사석탑과 관련된 탑으로 義城의 塔里5層石塔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전체적으로 보아 石材로 전탑 양식을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넓고 큰 기단 위에 5층의 탑신부를 구성하였는데, 탑신부를 받기 위한 1매의 판석과 옥개의 상·하면 받침이 5단인 점은 분황사석탑과 통하는 점이며, 기단이 광대한 것도 상통하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분황사석탑과 달리 새로운 착상과 옛 수법의 간략화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기단이 정비된 건축기단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탑신에는 각층 측면에 隅柱 이외 撐柱 1柱씩을 각출하고, 사방에 설치하였던 龕室은 1면에만 개설하였다. 그리고 백제의 석탑에서와 같이 기단부의 우주와 탱주, 탑신의 隅柱와 柱身에 엔타시스가 강하게 나타

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석탑이 백제의 미륵사지석탑, 정림사지5층석탑과 같이 양식 발생의 초기 유구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塔里5層石塔은 한국 석탑의 선구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다.(사진 27 참조)



(사진 26) 芬皇寺 模磚石塔



(사진 27) 義城 塔里五層石塔

이와 같은 상황을 요약하면 백제에서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는데 목탑계 양식을 따랐고, 신라에서는 화강암을 혼용하였으나 安山岩을 石材로 삼아서 전탑계 양식을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兩國의 초기 석탑은 그 기본 평면을 정사각형으로 하여 多層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양국이 똑같이 石材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삼국기 후반에 이르러 백제와 신라에 세워진 석탑의 초기 형태와 양식은 서로 달랐지만 얼마 후에 두 나라의 석탑은 같은 형태의 탑으로 합쳐지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 석탑의 전형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신라석탑의 전형이며, 그 계기는 삼국통일이라는 신라의 역사적 위업이라 하겠다.



(사진 28) 日本 法隆寺 五層木塔



(사진 29) 日本 法隆寺 夢殿(八角堂)

Ⅳ. 結　語

이상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한국에서는 삼국기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수입되었는데, 맨 먼저 高句麗에서 수용하였고(372년), 이후 백제와 신라의 순으로 수용되었으며, 6～7세기에 이르러는 造塔 活動이 전개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으로 木塔과 磚塔이 건립되었으나 한국의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石材로서 塔을 건립하게 되어 主流를 이루게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을 石塔의 나라라고 일컫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의 사정은 다르다. 6세기 전반에(538～552년) 불교를 수용하고 이후 7～8세기에 이르러 建塔 活動이 전개되었는데, 木材로서 탑을 건립하는 것이 일본의 사정에 맞는 실정이어서 建塔하였다면 의례히 木材를 사용하였으므로 木塔의 나라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사진 28～29 참조)

이상과 같이 「印度에서 비롯하여 한반도까지 이르게 된 塔婆」를 살펴보았다. 印度에

서 시작한 塔이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건립되었으며, 변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고 그 분포는 어떠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인도 지역을 떠나 佛敎東漸에 따라서 탑파는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스왓트 지역으로부터 西域, 中國, 韓半島의 三國期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고찰해 보았다. 建塔의 연원지에서 탑의 발달과 전파 지역의 변형, 이러한 현상이 서역과 중국, 한반도에 이르면서 어떠하였는가, 삼국기의 상황을 대략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직 자료 정리의 미연한 점이 많아 완성에 가까워지기에는 좀더 깊고도 넓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나 우선 초고로 이 小考를 정리하였다.

三國時代의 塔婆

張 俊 植*

Ⅰ. 서 론
Ⅱ. 木塔의 조영
Ⅲ. 石塔의 발생
Ⅳ. 三國의 石塔
Ⅴ. 결 론

Ⅰ. 서 론

불교의 전파는 불교미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불교의 확산에 힘을 실어주었다. 불교미술은 불교를 보다 풍요하게 만들었으며, 불교의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불교미술은 각 나라나 민족들에게 전파되어 다양하게 발전하였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허물지 않았다. 즉, 불교의 핵심인 사리신앙이나 부처신앙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탑이나 불상을 중심으로 전파되어 각 나라나 민족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탑과 불상들이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인도의 산치탑이나 불상들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구도는 유지되었다. 한편 대승불교의 발전은 불교신앙의 중심을 탑에서 불상으로 변화시키면서 불

* 충청대학 교수 / 박물관장

교의 전파와 불교미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돌로 불교 미술품을 만들어 불도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불교미술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시작되었다. 돌로 만들어진 불상들은 간다라미술을 대표하는 조각상으로 간다라 지역의 많은 불교 사원들이 석조로 된 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특히 간다라 석조미술은 페샤와르 분지와 스와트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같이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중국에도 석굴과 석조상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불상들이 조성되게 된다. 돌은 강하면서도 자연스런 소박한 미를 간직하고 있다. 돌은 자연 속에 있지만 돌을 다듬는 순간 생명력이 느껴진다. 석조미술은 돌을 다듬어 생명을 넣고 혼을 스미게 하여 경건한 예배의 대상이 된 조형물들을 말한다. 그래서 석조미술에는 석탑, 석불, 석조부도, 석비, 석등, 당간지주, 석조 등이 만들어져 경건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예술품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이중에서 석탑은 사찰 가람의 중심에 배치되어 예배와 신앙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Ⅱ. 木塔의 조영

불교는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하던 시기에 전래되었다. 고구려는 372년 전진에서 온 승려 順道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면서 수용되었다. 백제는 이보다 약간 늦은 384년 동진에서 온 摩羅難陀가 불교를 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이미 민간에서는 신앙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가람은 아니지만 수행이나 머물기에 적당한 간단한 형태의 가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예배와 신앙의 공간인 가람이 본격적으로 창건되면서 사찰의 중심에는 목탑이 건립되게 된다. 목탑은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이자 예배의 대상이었다.

삼국시대 사찰 가람에서 중심 공간에 목탑을 조성한 예는 고구려와 신라를 비롯하여

백제 사비시기의 사찰에서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 고구려는 청암리사지, 원오리사지, 정릉사지 등이 팔각형의 평면을 가진 목탑을 건립하여 사찰 가람의 중심공간에 배치하였다. 신라는 황룡사 9층 목탑을 비롯하여 흥륜사지, 천주사지, 영묘사지 등에도 목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변 9개의 나라로부터 신라를 佛法에 의하여 수호한다는 호국사상에 의하여 645년 건립되었다. 이후 여러 번 중수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남아 있었는데 몽고 침입 시에 소실되고 말았다. 백제는 부여의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가탑리사지, 서복사지, 용정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미륵사지, 제석사지 등에서 사찰의 한가운데에 목탑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비시기 백제는 고구려나 신라에 비하여 많은 목탑을 세워 건축 기술의 우수성과 불교의 성행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신라 황룡사 9층목탑은 백제 건축가가 초빙되어 건립함으로써 백제 목탑 기술이 가장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는 사찰 가람에서 목탑이 중심 공간에 배치되어 불교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익산 백제 미륵사지 목탑지



경주 신라 황룡사지 목탑지

특히 백제는 사비시기 도성 안팎에 많은 사찰들이 세워졌다. 기록이나 현재 남아있는 절터만 해도 수십 개 이상이다. 신라 경주에 불교가 불꽃같이 퍼져 '절들이 별처럼 퍼져

있고 탑이 기러기처럼 늘어서 있다.'고 일연이 기록한 것처럼, 중국 역사서에는 사비도성에 '승려와 절과 탑이 매우 많다.'라고 기록되었다.[1] 오늘날 높은 건물위에 올라가 야경을 보면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비시기 백제의 불교는 급속한 발전을 하여 사비도성을 중심으로 도성내외에 많은 수의 사찰들이 창건되어 그야말로 불교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 중심에 목탑이 건립되어 있었다. 백제 사비에는 정림사, 천왕사, 가탑리사지, 군수리사지, 쌍북리사지, 금강사 등 도성 안이 사찰로 가득 찰 만큼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사비시기 백제 목탑의 양상은 오늘날 부여와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있다. 사비시기 건립된 백제 사원들은 전형적인 가람 배치 수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처음에 목탑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 定林寺址가 있다. 정림사는 사비도성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백제 불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정림사지는 백제 사비시기를 대표하는 사찰로 현재 오층석탑을 비롯하여 많은 백제 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된 사찰이기도 하다. 그 중요성으로 이미 일제강점기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80년도의 발굴 조사에 의하면 남북 일직선상에 중문－탑－금당－강당이 배치되어 있고 회랑이 사역을 둘러싸고 있는 백제의 전형적인 1탑식가람으로 확인되었다. 중요 건물로 중문은 정면3칸・측면 1칸의 건물이며, 금당은 정면 5칸・측면 3칸의 건물이며, 강당은 정면 7칸・측면 3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蓮池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조불과 각종 도용 파편이 출토되어 백제 불교문화의 실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정림사는 사비로 천도한 직후 창건되었으며 백제가 멸망하면서 전소되었다가 고려 현종대에 와서 중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2]

부여 능산리의 陵寺는 1993년 발굴시 백제금동대향로가 출토되어 널리 알려진 사지이다. 1995년에는 목탑지 심초석에서 창왕명석조사리감이 출토되어 백제 사비시기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사찰로 확인되었다. 가람은 남북 일직선상에 중문－목탑－금당－강당을 배치한 1탑식으로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능사는 백

1) 『주서』 권49, 이역열전 제41, 백제.
'僧尼寺塔甚多'

2) 윤무병, 『정림사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대학교 박물관, 1981.

제 왕실과 관련된 원찰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발굴 결과 능사는 6세기 중엽경에 창건되어 백제 멸망 때까지 사찰의 기능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학계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3] 그리고 金剛寺址는 부여 은산면 금공리에 있는 사지로 창건 시기는 백제 사비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64년 3월부터 1964년 5월까지 1차 발굴 조사를 하였으며, 1966년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차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지에서 금당지, 탑지, 강당지, 중문지 등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백제의 전형적인 1탑식 가람배치로 확인되었다. 금강사는 백제시대 창건된 후 2차에 걸쳐서 중창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창 시 사찰이름이 금강사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의하면 漆岳寺가 현재의 금강사지와 같은 위치로 기록되어 있는데, 금강사라고 기록된 명문기와는 고려시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5] 그래서 금강사지는 백제시대의 칠악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금강사지에서는 건물의 기단부가 지대석위에 면석을 세우고 갑석을 고루 갖춘 단층기단으로 확인되었다.

軍守里寺址는 부여 군수리에 있는 사지로 일제강점기인 1935년～1936년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이 일대에서 백제시대의 기와와 초석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백제 기단의 특징인 와적기단이 확인되었으며 백제불상이 출토되기도 하여 백제 조각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해주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탑－금당－강당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배치로 확인되었으며, 사지 주변에도 건물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宮南池와 관련된 시설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밀 발굴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西腹寺址는 부여 구아리에 위치한 사지로 1942년 일본인 米田美代治와 藤澤一夫가 발굴 조사하였으나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단지 남북으로 중문지, 탑지, 금당지가 일직선상에 있어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배치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사지에서 백제시대 조성된 풍탁과 불상편, 기와와 치미편 등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김수태, 「백제 위덕왕대 부여 능산리 사원의 창건」, 『백제문화』 2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8.
4) 국립중앙박물관, 『금강사』, 1969.
5)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5, 법왕 2년.
'二年春正月 創王興寺 度僧三十人 大旱 王幸漆岳寺 祈雨'

天王寺址는 2곳인데 한곳은 부여읍 동남리 일대로 1944년 사지의 일부가 조사되었으나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다.[6] 조사 당시 천왕이란 명문기와가 출토되었으며, 사지 일대에서 청동제 소탑과 백제의 연화문와당이 출토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다른 곳은 부여 구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천왕사라는 명문기와와 목탑의 심초석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정확하게 백제 사비시기의 천왕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王興寺址는 부여 규암면 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34년 王興이란 명문기와가 발견되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흥사로 추정되었다.[7] 왕흥사는 무왕이 3년간에 걸쳐 완공한 사찰로 도승 30여인을 머물게 하였으며, 무왕은 배를 타고 백마강을 건너 왕흥사를 자주 들렀다고 한다. 발굴 조사에서 방형 초석 등을 비롯한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어 목탑을 건립한 목적이 왕자의 원혼을 달래고 명복을 빌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다량의 백제 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되었다.[8] 무왕도 왕실에서 원찰격으로 창건한 왕흥사에 자주 들러 나라와 국민들의 안녕을 빌었을 것이다. 虎岩寺址는 부여 규암면 호암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백제시대의 초석과 기와편들이 남아있어 『삼국유사』에 나오는 호암사의 원위치로 비정되고 있다.[9] 또한 『삼국유사』에는 호암사와 政事巖이 같은 지역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호암사지 주변에는 정사암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남아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호암사가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街塔里寺址는 부여 가탑리에 있는 사지로 1938년 일본인 石田과 齋藤에 의하여 사지의 일부가 조사되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소규모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백제의 연화문와당, 벽돌, 치미편 등이 수습되어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外里寺址는 부여 외리에 있는 사지로 1937년 화려한 문양전들이 출토된 곳이다. 발견 당시 유구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백제시대 연화문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람배치는 백제사찰의 특징인 1탑식가람으로 확인되었다.

---

6) 한편 현재 부여지역에서 천왕이란 명문 기와가 2곳에서 출토되어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왕사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렵다.

7)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5, 무왕 25년.
'三十五年春二月 王興寺成 其寺臨水 彩飾壯麗 王每乘丹 入寺行香'

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王興寺 발굴중간보고 Ⅰ』, 2002.

9) 홍사준, 「호암사지와 왕흥사지고」, 『백제연구』 5, 충남대 백제연구소, 1974.

이외에도 부여지역에는 龍井里寺址[10], 臨江寺址[11], 雙北里寺址[12], 石木里寺址[13] 등 많은 백제 사찰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沙宅智積碑도 사비시기 부여지역의 백제 불교 문화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익산지역에는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던 彌勒寺址와 帝釋寺址 등이 남아있으며, 용화산 자락에 師子寺[14]가 있다. 또한 사비시기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부여나 익산 지역으로부터 외곽지역이라 할 수 있는 보령에는 烏合寺址로 추정되는 성주사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修德寺, 甲寺, 新元寺 등이 백제 사비시기와 관련된 사찰들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에서 미륵사는 백제 최대의 사찰로서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과 태평을 염원하는 호국사찰로서 창건되었다. 미륵사는 미륵신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창건되었는데, 창건과 관련된 내용이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를 보면 무왕이 왕비인 선화공주와 함께 사자사라는 절에 가려고 행차했는데, 도중에 용화산 아래에 있는 큰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하였다. 이에 수레를 멈추고 미륵불에 배례하였다. 그리고 왕비가 이곳에 큰 절을 세우기를 원하므로 왕은 허락하였으며, 사자사에 머물고 있는 知命法師에게 연못을 메울 것을 물었더니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15] 미륵사는 백제 무왕대에 왕비의 건의로 창건되었으며, 무왕의 익산경영과 깊은 관련을

---

10) 부여 용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과 1992년도의 조사 결과 금당지와 목탑지가 확인되었다. 백제시대의 연화문수막새가 다수 출토되기도 하였다(부여문화재연구소, 『용정리사지』, 1993).

11) 부여 현북리 금강변의 임강 마을 뒤쪽에 있는 국사봉 자락에 자리 잡은 백제시대 사찰이다. 사지에서는 각종 초석과 기와편들이 출토되었으며, 건물의 유구를 비롯하여 다량의 유물들이 나왔다. 특히 막새기와들은 6세기말 제작된 것으로 임강사의 창건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1964년도에 동국대 박물관에 의해서 발굴 조사되었으며,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탑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12) 부여 백제왕궁지로 추정되는 곳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사지이다. 여러 개의 초석들과 백제시대 기와편이 출토되었을 뿐 유구가 많이 파괴되어 정확한 가람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쌍북리요지와 인접하고 있어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들의 건물에 기와 등을 만들어 공급했던 곳으로도 추정되고 있다(윤무병, 「부여 쌍북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백제연구』 13,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2).

13) 부여 석목리 일대에 남아있는 절터로 백제시대의 기와편과 석조연화대석이 출토되었다. 현재는 민가지역으로 변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14) 사자사는 무왕, 선화공주, 지명법사 등 미륵사의 창건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있는 사찰로 미륵사 창건 연기를 제공하는 사찰이다. 1993년 발굴조사에 의하여 백제시대 사자사임이 밝혀졌다.

15) 『三國遺事』 권2, 기이 2, 무왕.

가지면서 계획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석탑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어쨌든 미륵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창건된 사찰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미륵사는 무왕대(600～641년)에 창건되기 시작하여 수십년에 걸쳐 완공되었으며, 신라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어 도와주기도 했다. 미륵사는 당시 백제 불교 신앙의 주류인 미륵신앙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최고의 토목건축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목탑과 석탑을 세웠다. 발굴 조사 결과 미륵사의 가람은 크게 동원－중원－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영역에 탑과 금당을 세워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3원 3금당 3탑식 배치로 확인되었다.[16] 불경에 나오는 미륵신앙을 가람배치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백제 사람들은 미륵신앙에 의하여 현실 속에서 불국토를 이루고자 하는 미륵하생신앙을 반영하여 미륵사를 창건하였다.[17] 이후 미륵사는 백제가 멸망한 뒤에 일부 훼손되기도 했으나 중건 내지는 중수되면서 통일신라시대까지 명맥을 유지하였고, 고려시대에는 대찰로서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겨우 법등을 잇다가 16～17세기경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 영조 때인 康侯晉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서탑이 훼손되어 7층까지만 남아 있었고 사지는 밭으로 변하여 많은 석재들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농부들이 석탑의 옥개석에 올라가 누워 쉬고 있었다고 한다.[18] 아직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 미륵사지에 남아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의 사찰을 자랑하고 있는 미륵사지는 백제사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사와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처럼 백제의 목탑지는 여러 곳에서 확인 조사되고 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목탑지로는 사천왕사지, 망덕사지, 보문사지, 기림사 등뿐만 아니라 경주에 소재한 다수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 신라의 목탑지는 평면이 사각형이

---

16) 조유전, 「익산 미륵사에 관한 연구」, 『백제논총』 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張慶浩, 『百濟寺刹建築』, 예경산업사, 1991, p.353.

17) 김삼룡, 「백제 미륵신앙의 특성과 그 역사적 위치」, 『한국미륵신앙의 연구』, 동화출판공사, 1983.

18) 康侯晉, 『臥遊錄』, 遊金馬城記.
'彌勒山西麓 有古彌勒寺基 … 田畦中有七層石塔 極其高大 皆用石屛累疊 粧成別以石柱支其四隅 世所謂東方石搭之最者非虛語也 百年前因霹靂毁其一半 而下有石門能通出入遂與三人同入遊琁 緣西壁陟塔上 有數三農人挾田器臥於其上'

며, 심초석을 마련하여 불사리를 안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석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많은 목탑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였던 고려는 개경을 중심한 지역에 수많은 사찰을 창건하였던 것으로 기록상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기록상 송도를 중심한 지역에 건립된 개국사, 중광사, 민천사, 보제사, 연복사, 중흥사, 진관사 등 다수의 사찰에 목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목탑지로는 흥왕사지와 만복사지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목탑을 모방하여 만든 금동탑이나 청동탑이 많이 제작되어 고려시대 건립된 목탑의 모습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목탑은 삼국시대 건립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꾸준하게 건립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대의 목탑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고대 목탑의 외형이나 구조, 양식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 건립되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법주사 捌相殿이 그나마 목탑의 외형과 구조를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목조건축물과 청동다층탑 등이 한국 목탑의 양식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고대 동양 삼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목조건축물과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이 목탑 양식을 추정하는데 좋은 학술적 자



법주사 팔상전



중국 불궁사 목탑

료가 되고 있다.

백제는 우수한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양의 목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까지 백제시대의 목탑 외관이나 구조를 알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은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백제 사비시기의 목탑이 세워졌던 자리가 조사되면서 목탑의 평면, 기단부 수법과 양식, 심초석이나 사리장엄구의 봉안법 등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목탑의 평면은 고구려 목탑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각형을 이루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라를 비롯하여 백제 사비시기 건립된 부소산 서복사지, 군수리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금강사지, 미륵사지 등 조사된 유구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사각형이 건축 구조상 가장 안전하고 건립이 용이하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단부는 평면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엄청난 목탑의 하중을 받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깊이를 파내려가 다지면서 판축을 하였다. 이처럼 기단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시설로 건물의 밑바닥과 주위를 지면보다 높게 만들게 된다. 기단을 높게 마련하는 이유는 목탑을 지면의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격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다. 기단 외곽은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 다듬은 부재들을 연결하여 돌린다. 그리고 기둥이 들어설 자리에는 육중한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치기 위하여 대형 초석이 놓여진다. 초석의 견고성은 목탑의 내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초석들이 놓이는 한 가운데에는 심초석이 놓이고 그 안에 목탑이라는 건축물의 상징성이 함축되어 있는 사리가 봉안된다. 사리가 봉안되어야만 층수가 높은 건물도 진정으로 목탑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탑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목탑의 외관은 선진 문물을 전수 전파하면서 외교 관계를 가졌던 중국이나 일본을 통하여 백제의 목탑을 그나마 추정하고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먼저 중국에서 탑파가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동한과 삼국시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후 남북조시대부터 많은 양의 탑파가 건립되는데, 그 중심은 목탑이었다. 이처럼 중국도 불교 전래 초기에는 나무를 활용한 木塔이 많이 만들어진다. 나무탑은 동한시대에서 남북조시대까지 가람의 중심을 차지하며, 9층・11층・13층 등 고층으로 건립된다. 이후 수・당시대(581～618～907)에 이르러 불교가 융성하면서 많은 塼塔이 세워지게 된다. 벽돌탑은 금나라 시대까

지 불탑의 주류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건립된다. 벽돌탑이 본격적으로 세워지면서 수·당시대 이전에 건립된 나무탑들은 화재로 소실되거나 훼손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오늘날 중국에 남아있는 불탑은 벽돌탑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탑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다.

중국의 탑은 크게 地宮, 塔基, 塔身, 塔刹 등으로 구성된다. 지궁은 중국 불탑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요소로 지하에 설치되는 작은 궁전과 같은 곳이다. 이곳은 사리나 불경 등 진귀한 보물을 봉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탑기는 탑신을 받치는 부분으로 기단부에 해당된다. 당나라 이후에 건립된 불탑은 基臺와 基座로 나누어진다. 기좌는 시대가 흐를수록 높아지고 화려해진다. 탑신은 탑의 주요 부분으로 안이 비어있는 中空式과 차있는 實心式으로 나누어진다. 중공식은 대형탑으로 안쪽에 마련된 계단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 관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탑이고, 실심식은 안이 차있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는 탑이다.

어쨌든 중국의 경우도 고대에 건립된 목탑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고대 목조건축물의 구조나 조영 수법을 알려주는 건축 유구나 유적을 비롯한 간접적인 유물들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중에서 숭악사탑은 현존하는 중국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목탑의 구조나 조영 수법이 번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중국은 남북조와 수대를 거치면서 목탑뿐만 아니라 전탑의 건립이 성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수나라 文帝에 의한 仁壽 年間(601～604년)의 총 3회에 걸친 전국적인 사리탑의 건립은 중국에서 탑파의 건립이 본격화되는 신호탄과 같았다. 이후 당대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각양각색의 탑파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목탑을 비롯한 전탑의 건립이 일반화되면서 西安과 洛陽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탑파가 건립된다. 이러한 탑파들의 형식과 양식이 지역별, 사찰별,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하지만 그것의 시원에는 목탑이 자리하고 있었다.

석탑이나 전탑 등 다양한 탑파의 시원 양식이 목탑이며, 목탑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탑파들이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목탑을 번안한 현존하는 탑파들이 고대의 목탑 양식을 추정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목탑을 번안한 대표적인 탑파로 서안시에 있는 大雁塔과 小雁塔을 비롯하여 華嚴寺址 杜順塔과 興敎寺 玄奘塔 등이 있다. 이 탑들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건립 시기를 알 수 있어 전탑 양식뿐만 아니라 목탑의 원형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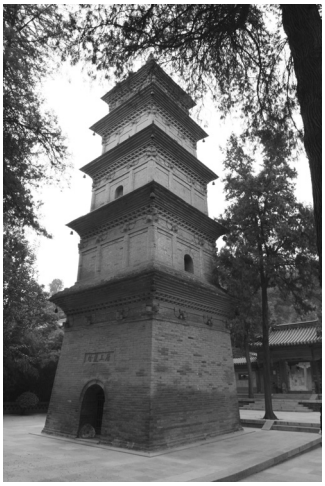
불광사 조사탑



숭악사 13층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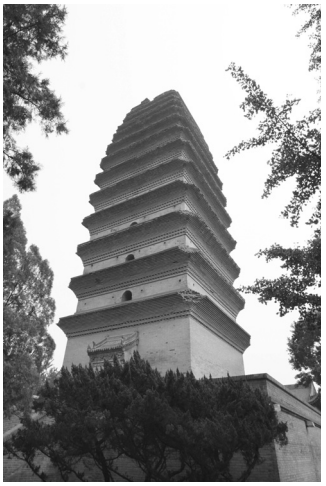
화엄사지 두순탑



흥교사 현장탑



서안 대안탑(652년)



서안 소안탑

이처럼 당나라 초기에 건립된 탑파들은 목탑의 세부 결구 수법을 충실히 번안하였으며, 목탑으로부터 전탑이나 다른 재료의 탑파 양식이 전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당나라 전탑들은 처음에는 화엄사지 두순탑이나 흥교사 현장탑과 같이 목탑을 번안한 탑파들이 조영되었다가 점차 목탑이나 목조건축적 요소가 가미되기는 했지만 생략이나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는 탑파들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중국도 백제와 마찬가지로 목탑이 아닌 다른 재료의 탑파들을 통하여 목탑의 구조나 양식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여러 번의 중창과 중수를 거쳤지만 초창기의 구조와 양식을 전해주고 있는 목탑들이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목탑이 法隆寺 五層木塔이다. 이외에도 飛鳥寺[19]를 비롯하여 많은 목탑 유적들이 남아있어 목탑 기단부의 세부 수법과 양식, 사리장치 등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백제는 일본에 많은 선진문물을 전해주었는데, 그중에 목탑 건립과 관련하여 露盤博士와 瓦博士가 주목된다. 노반박사는 탑을 만드는 전문 기술자로 추정되는데, 탑파의 제일 위에 올리는 상륜부가 가장 높고 화려하여 이를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한 노반을 만들었던 전문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목조건물을 지을 때 기와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와박사가 있었다. 이처럼 탑파를 건립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제의



법륭사 오층목탑



사천왕사 오층목탑



약사사 삼층목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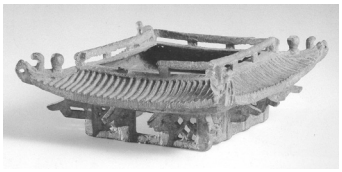
19) 飛鳥寺는 奈良縣 高市郡 明日香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592년 금당과 회랑이 만들어지고, 593년에는 탑을 만들기 시작하여 백제에서 보내준 불사리를 목탑의 심초석 속에 안치하고 596년 낙성하였다고 한다. 백제에서 가져간 사리를 봉안할 때에는 태자와 1백여명의 고관들이 백제인의 옷을 입고 참례하였다고 한다. 이후 609년에는 금당 안에 장육존불상을 완성하여 봉안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폐사가 되어 절터만 남아 있으며, 새롭게 중창된 사찰에 飛鳥寺大佛이 봉안되어 있다.

노반박사와 와박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는 것은 당시 일본 목탑의 건립이 백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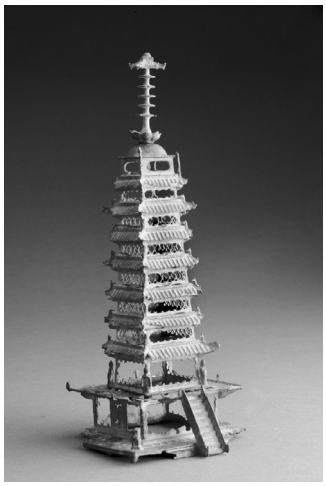
법륭사는 오층목탑 뿐만 아니라 고대의 목조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한국의 고대 목조건축물의 조영 수법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 사찰은 586년 用明王이 중병을 앓게 되어 그의 누이인 推古王과 聖德太子에게 절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낙성하지 못하고 그가 죽게 되자 중단하였다가 명복을 빌기 위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607년 완성한 절로 전해지고 있다. 가람배치는 목탑과 금당이 나란히 놓인 가람으로 중문이 회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강당은 회랑 밖에 건립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서 법륭사 오층목탑은 백제 목탑 양식이 충실하게 반영된 목탑으로 백제 목조건축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기단부는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면석과 갑석을 결구하여 구성하였다. 그런데 하대와 상대 갑석의 하부에 부연이 표현되지 않아 초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주와 탱주를 세웠으며, 괴임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발전된 기법의 기단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단부 수법은 미륵사지 서탑 기단부 조영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탑신부의 옥개부와 난간의 구성 수법, 주두＋첨차＋소로 등으로 간략하게 구성하고 하앙식 구조를 보이고 있는 공포부는 초기적인 조영 수법을 보인다. 처마끝선을 연결한 선도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어 안정되고 유려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는 四天王寺, 藥師寺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찰에 고대의 목탑들이 전해지고 있다.

목탑은 다층으로 구성되며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기단부인 지하부터 초석까지 목조물과 각종 신앙물 등 상부의 육중한 무게를 여유있게 지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설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였다. 또한 지붕에 떨어지는 상당량의 비와 눈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법주사 팔상전과 쌍봉사 대웅전을 제외하고는 목탑 건물부의 구조나 가구 수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의 높이가 기록상 225척으로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무려 80미터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당대 건축기술의 결집체라 할 만큼 고도의 건축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또한 당시의 재정으로 목탑을 건립한다는 것이 엄청난 대역사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목조 건축술로도 다

층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80미터 이상의 건물을 순수하게 목조로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부여 천왕사지 출토
청동제 소탑편



고려시대 청동탑
(상명대 박물관 소장)



청동대탑(삼성미술관 소장,
국보 213호)

이처럼 목탑은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구성되며, 기단부는 석재를 탑신부는 목재를 상륜부는 청동이나 철을 활용하여 건립된다. 일반 사찰 목조건축과 세부 구성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층수가 3층에서 9층까지 높다는 점과 평면을 사각형으로 구성하며 건물 중앙 초석에 사리장치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모심으로서 탑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목탑의 건립 과정은 크게 발원 → 설계도 작성 → 기초다지기 → 기단부 마련하기 → 기둥세우기 → 벽체부와 지붕올리기 → 상륜부 올리기 → 건물 장식하기 → 낙성식 순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목탑은 내부에는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각 층마다 예불 공간이 있었다. 각 층에는 난간이 설치된 외부 공간으로 나와 멀리 전망을 볼 수 있도록 시설되었다. 황룡사 구층목탑의 경우도 기록상 높은 층에 올라 전망을 관망할 수 있는 난간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목탑의 각 층 지붕 상부에는 난간이 있어 내부에서 외부로 나와 전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당시 인공적으로 조영된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건축물이었다. 목탑은 단연 당대의 모든 하이테크 건축 기술이 응집된 구조물이었다.

Ⅲ. 石塔의 발생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목탑을 세워 사리를 봉안하게 된다. 그러나 목탑은 내구성이 약하고 세우기가 어려워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와 형식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돌로 만든 석탑이다. 삼국시대 석탑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이 사리의 봉안처로서 대대적인 유행을 하게 되어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탑파가 석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탑파에 있어서 석탑의 나라라고도 한다. 사찰에서 석탑을 건립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석탑이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징성을 더하기 위하여 사리를 안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석탑을 세워 사찰 공간이 신성한 종교적인 장소이며, 의식이나 법회 시에 예배와 공덕을 하기 위한 신앙적인 측면이다. 즉, 사찰에 서있는 석탑에 사리가 안치되지 않았다면 그 존재 이유나 의의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불교 신앙의 중심체는 바로 사리이기 때문에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물이 사찰 가람의 중심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최초에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은 목탑이었다. 목탑은 사찰에서 중심공간에 배치되어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목탑의 주재료는 나무와 기와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불타 버리거나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또한 창건 시나 중수 시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여,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경비였을 것이다. 또한 신앙의 중심이 사리에서 불상으로 다변화되면서 목탑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 사람들은 목탑을 대신하여 사리를 봉안하고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의 창안물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새로운 조형물은 나무보다 내구성이 오래가고 비용도 적게들며 만들기도 용이한 것을 가장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탑보다 탑파신앙을 누그러뜨리거나 불교신앙의 요체인 사리를 봉안하는데 허술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돈독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안의 출발점이 목탑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부적인 표현기법이나 각부의 결구 기법을 본받아 새로운 재료인 돌을 사용하여 시험적인 시도를 수차례 거듭하였을 것이다. 목탑의 각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을 어떻게 전이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설계도 해보고 직접 돌을 연마하여 형태를 잡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여러번 거듭하면서 설계나 구조상으로 완벽한 건축물에 가까운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조형물로 창안된 것이 석탑이며, 그래서 석탑은 목조건축의 수법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목탑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탑의 경영은 석탑을 발생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불교에서 종교 활동이나 신앙의 중심체는 바로 부처님의 舍利이다. 그래서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물이 사찰 가람의 중심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최초에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은 목탑이었다. 목탑은 사찰에서 중심공간에 배치되어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목탑의 주재료는 나무와 기와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불타 버리거나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처음 만들 때나 이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이 상당하여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경비가 들어갔다. 한편 불교 신앙의 중심 대상이 꼭 사리를 모신 목탑뿐만이 아니라 서서히 불상으로 다양화되면서 가람에서 차지하는 목탑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 사람들은 목탑을 대신하여 사리를 봉안하고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형물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조형물은 나무보다 내구성이 오래가고 비용도 적게 들며 만들기도 용이한 것을 가장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탑보다 불교의 상징성을 누그러뜨리거나 불교신앙의 요체인 사리를 봉안하는데 허술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돈독한 신앙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재료와 형태를 만드는 출발점이 목탑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세부적인 표현기법이나 수많은 부재들을 짜 맞추는 방법을 본받아 새로운 재료인 돌을 사용하여 시험적인 시도를 수차례 거듭하였을 것이다. 목탑의 각부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들을 어떻게 전이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설계도 해보고 직접 돌을 연마하여 형태를 잡아 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듭하면서 설계나 구조상으로 완벽한 건축물에 가까운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조형물로 창안된 것이 석탑이며, 그래서 석탑은 목조건축의 수법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목탑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 飜案이라고 한다.

목탑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 가장 먼저 몰두하여 목탑을 석탑으로 전이시킨 사람들이 바로 백제 사람들이었다. 백제 사람들은 우수한 목탑을 세웠고, 목탑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석탑의 출현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석탑들은 전체적으로 목탑의 가구 수법을 모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탑의 기본적인 구도와 수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적으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목재를 석재로 전환시킨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 장인들은 그만큼 건축 기술이 앞서 있었고, 돌을 다루는 기술이 능숙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미 백제의 불교는 많은 발전을 이룩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찰들이 시가지에 들어서 있었다. 백제 땅에는 절을 짓는 많은 전문 장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백제의 불교가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은 신라의 승려였던 眞慈師라는 스님이 미륵선화를 만나기 위하여 웅진에 있었던 水原寺라는 절을 찾아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웅진의 수원사가 미륵신앙의 중심지로 널리 국경을 넘어 경주에까지 알려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 사상뿐만이 아니라 백제의 사찰 건축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백제의 유명한 건축 장인 아비지는 신라의 초빙을 받고 서라벌에 가서 황룡사 9층 목탑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하여 세워준다. 이것은 백제의 건축술이 신라에 비하여 앞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날 백제 사찰터에 남아있는 건물지의 기단부 규모로 보아 백제지역에도 높은 목탑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원에는 5층, 7층, 9층까지 고층의 목탑들이 서 있었다. 백제 건축 장인들은 시멘트가 아닌 나무를 활용하여 건물의 높이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렸던 것이다. 오늘날 백제 목탑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석탑이다.

석탑의 창안은 불교미술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파격적인 전환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의한 재료의 변환 이상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온 간과할 수 없는 변혁이었다. 이제 사찰의 중심은 나무가 아닌 돌이 차지하게 되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영구히 전해졌다. 그 만큼 사람의 품도 줄어들었고, 처음 만들 때 엄청난 공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 만들어진 탑들은 대부분 석탑으로 건립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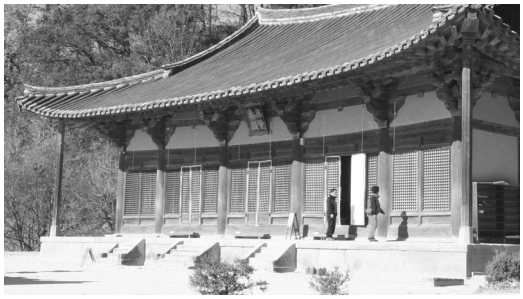
오늘날까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석탑이 바로 미륵사지와 정림사지에 서있다. 미륵사지석탑은 각부 구성수법이 목탑을 모범으로 삼아 석재로 번안한 시원적인 석탑이다. 한국에서 석탑의 발생 시기는 미륵사지석탑을 기준으로 하여 삼국시대 말기인 6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 수용되기 시작한 4세기 후반부터 600년경까지 약 200여년간은 사찰에서 목탑을 건립하여 불교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백제 미륵사지석탑과 같이 목탑의 가구 형식을 모방한 석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질 좋은 화강암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Ⅳ. 三國의 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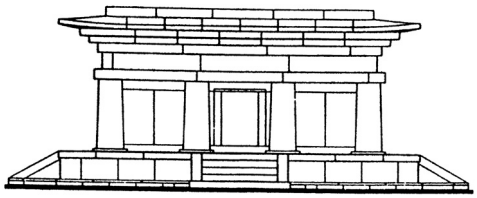
석탑의 창안은 불교미술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제 사찰의 중심은 나무가 아닌 돌이 차지하였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어졌다. 그만큰 사람의 품도 줄어들었고, 처음 만들 때 엄청난 공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 만들어진 탑들은 대부분 석탑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생각에 가장 먼저 몰두하여 목탑을 석탑으로 전이시킨 사람들은 바로 백제

인들이었다. 백제 장인들은 그만큼 건축술이 앞서 있었고, 돌을 다루는 기술이 능숙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석탑이 바로 미륵사지와 정림사지에 서있다. 한국에서 석탑의 발생 시기는 미륵사지석탑을 기준으로 하여 삼국시대 말기인 6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 수용되기 시작한 4세기 후반부터 600년경까지 약 200여년간은 사찰에서 목탑을 건립하여 불교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석탑은 삼국시대 목탑의 가구와 결구 수법을 모방하여 재료를 돌로 전환시켜 만든 조형물이었다. 즉, 목탑의 기본적인 구도와 수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적으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목재를 석재로 전환시키는 창의성을 보인다. 목탑은 크게 기단부－몸체부－공포부－처마부－지붕부－기와부－마루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탑은 이를 모방하여 크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탑신부는 석탑이 목탑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창안되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석탑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가 사각형이라는 점도 석탑이 목탑을 번안하였음을 알려준다. 불교 전래 초기인 삼국시대에는 중국 불탑의 영향을 받아 목탑이 많이 건립되는데, 고구려 목탑은 평면이 팔각형이고, 백제와 신라는 사각형이었다. 팔각형 평면이 통일신라 말기부터 건립되는 석조부도에서 주류를 이루기도 하지만 목탑과 같은 목조건축물은 사각형 평면이 주류를 이룬다. 목탑의 평면이 팔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석탑의 평면이 사각형이라는 것은 목탑의 평면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유래된 측면일 것이다. 미륵사지석탑은 각부 구성수법이 목탑을 모범으로 삼아 석재로 번안한 시원적인 석탑이다. 목조 건축은 크게 기단부－몸체부－공포부－처마부－지붕부－기와부－마루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석탑의 세부 수법이 바로 목조건축의 이러한 결구 수법을 그대로 옮겨 돌로 재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미륵사지석탑과 같이 목탑의 가구 형식을 모방한 석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후로 질 좋은 화강암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기단부와 1층 탑신

석탑의 층수는 목탑과 같이 기단부와 상륜부를 제외한 탑신부의 탑신석과 옥개석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1층이라 한다. 석탑은 대부분 3층 이상의 홀수 층으로 이루어져 5층, 7층, 9층, 11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와 같이 석탑의 층수를 홀수로 한 것은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홀수를 陽數라 하여 신성시하였다고 한다. 홀수인 양수는 하늘 즉, 上의 해를 나타내며 남성을 상징하는 수였다. 반면 짝수인 음수는 땅 즉, 下를 의미하며, 달과 여성을 상징하는 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석탑뿐만 아니라 목탑도 홀수 층으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3은 완성과 안정을 상징하는 수로 가장 신성한 숫자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석탑들이 3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석탑의 외관과 구조상으로도 3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층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대시대부터 짝수보다는 홀수를 신성시하여 일상생활에 많이 응용하였다. 예를 들어 목조건축물의 기둥 사이 칸수도 대부분이 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가운데 칸에 신성성과 권위를 부여하여 중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며, 홀수가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석탑은 3, 5, 7, 9, 11층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수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중요시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각사에는 10층탑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원각사에 10층탑이 건립된 것은 10이 원각이나 화엄사상에서 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을 표현하고 널리 전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탑은 목탑을 번안하여 삼국시대부터 건립되기 시작하는데, 삼국시대는 5층, 9층 등 다층으로 건립된다. 예를 들어 정림사지 5층석탑, 의성 탑리 5층석탑, 미륵사지 9층석탑

등이 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3층, 5층으로 층수가 감소되고, 전형적인 석탑이 출현하면서 층수도 3층으로 정형화된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에는 대부분의 석탑이 사각형의 평면에 2층 기단을 구성하고, 층수는 3층으로 형성된다. 이후 고려시대가 되면 다시 석탑의 규모가 커지면서 층수도 3층을 기본으로 하여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석탑의 평면도 다양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까지 계승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계가 위축되어 석탑이 많이 건립되지 못한다. 조선시대 건립된 석탑들은 규모가 축소되지만 층수는 높게 구성된다.

많은 백제 사찰 중에서 백제시대 사찰의 규모와 면모를 가장 잘 알려주는 곳은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이다. 그리고 이 두 사찰에 석탑에 세워져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이들 두 석탑은 백제 석탑의 시원적인 양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적인 양식이기도 하다. 백제에 의하여 이 두 석탑이 만들어지면서 통일신라시대 이후 목탑은 드물게 세워지고 목탑을 대신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석탑이 건립되는 배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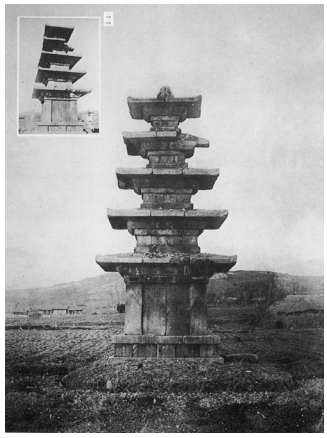
미륵사지는 목탑과 석탑이 같이 서 있었던 것으로 발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래는 동서에 석탑이 서 있고, 가운데에 목탑이 서 있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탑은 언제인가 허물어져 없어졌고, 지금은 새로운 탑이 복원되어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앙상하게 시멘트로 덧칠해진 서탑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미륵사는 『三國遺事』나 『三國史記』를 비롯한 많은 기록들로 보아 무왕 때에 선화공주의 발원으로 창건되었으며, 발굴 조사 결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시켜 주었다. 따라서 석탑도 무왕이 왕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정림사지는 사비시기 도성의 핵심부에 자리 잡았던 사찰로 백제시대에 창건된 것만은 확실하지만 미륵사와는 달리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만들어진 시기나 연혁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절의 이름도 고려시대에 제작된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정림사(定林寺)임이 확인되었다. 정림사지의 한가운데에는 독수리가 비상하는 듯한 아름다운 오층석탑이 우뚝 서있다. 당시 백제의 사비도성에 건립된 다른 사찰들은 중심 공간에 목탑을 세웠는데 예외적으로 목탑이 아닌 석탑이 서있다. 이 석탑은 1층 탑신석 표면에 당나라 소정방이 사비도성을 함락하고 이를 기념하는 장황한 기록이 남아 있어 적어도 사비도성이 함락된 660년 이전에는

세워져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

미륵사지는 백제사 연구와 한국 불교사와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미륵사지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13년 일본 關野貞과 谷井濟一에 의하여 미륵사지석탑과 주변의 석재에 대한 간단한 실측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15년에는 서탑에 대한 응급 보수와 주변 정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서탑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를 발랐다. 1917년에는 野守健과 谷井濟一이 다시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藤島亥治郎은 미륵사지를 品字形 가람이라고 주장하였다.[20] 이후 1966년에는 홍사준 선생에 의하여 강당지 일부와 후대 건물지가 발굴 조사되기도 하였다.

미륵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하여 1974년과 75년에 걸쳐 동탑지 유구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동탑지에도 서탑과 같이 동일한 규모의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많은 석탑 부재들과 風鐸 등이 출토되어 미륵사지 동탑 복원 근거 자료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21]

---

20) 扶餘文化財硏究所,『益山彌勒寺址 東塔址 基壇 및 下部調査報告書』, 1992, p.3

21)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益山彌勒寺址 東塔址 및 西塔調査報告書」,『馬韓・百濟文化』창간호, 1975.

그래서 1979년도에는 6층까지만 남아있는 서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발굴 결과를 토대로 동탑을 복원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중지되기도 하였다.[22]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미륵사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미륵사지 전역이 발굴되면서 동탑지 주변 지하에서 많은 탑재들이 출토되었다. 이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탑의 상륜부에 올려졌던 露盤石과 탑신부의 부재인 옥개석이었다. 또한 동탑지에서 출토된 모든 석탑 부재들을 실측한 결과 석탑의 층수는 9층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도에 미륵사지동탑 복원안이 최종 확정되어 복원되었다.[23] 한편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출토된 유물들을 정리한 후 미륵사지발굴조사단이 해체됨으로써 1980년부터 1997년까지 18년간의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미륵사지 옆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건립하였으며, 현재는 미륵사지 서탑에 대한 해체와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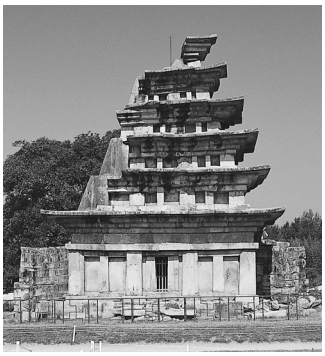
한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실시된 1991년도 동탑지 기단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탑은 현재 남아있는 서탑과 세부 형식과 양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서탑과 동탑이 전체적인 조형은 유사하나 기법과 결구 수법 등 구조적인 면에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양석탑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탑신석의 짜임인데 동서 양탑이 1층에서는 초석과 기둥석, 면석 등이 모두 별석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동탑은 2층이상의 탑신석에서 기둥과 면석을 동일석으로 하여 기둥의 형태를 모각한 형식을 취하지만, 서탑은 현재 남아있는 6층까지 기둥석과 면석을 모두 별석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서탑의 기둥석이 면석으로부터 돌출된 부위가 높다. 이것은 동탑과 서탑이 동일시기에 건립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면석과 기둥석을 한돌로 하여 기둥을 모각하는 수법은 비교적 후대의 수법으로 통일신라 이후의 석탑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었다. 또한 석탑 기단지 외곽의 기단 하부를 시굴한 결과 모래층과 판축 상태로 보아 동탑보다 서탑이 오래된 유구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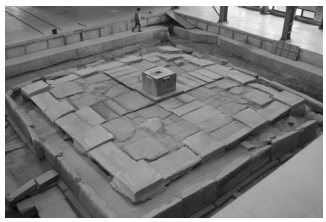
---

22) 文化財管理局,『彌勒寺址東塔 復元設計報告書』, 1990.

23) 張慶浩,『百濟寺刹建築』, 예경산업사, 1991, p.353.

동탑지를 발굴한 결과 초석들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석탑이 사방으로 붕괴되면서 무너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단 하층부에서 백제계 와편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서탑이 세워진 이후에 동탑지 기단부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단은 밝혔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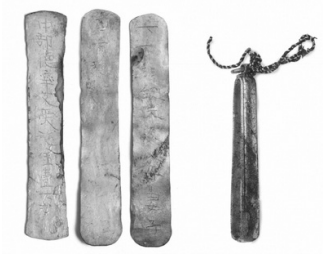
익산 미륵사지 서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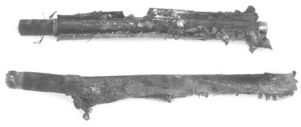
미륵사지 동탑(복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구

24) 부여문화재연구소, 『益山彌勒寺址 東塔址 基壇 및 下部調査報告書』, 1992, pp.59~61.

그리고 정림사지 오층석탑에[25] 대한 최초의 실측 조사는 1920년대 초반 일본인 小川敬吉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이루어진 실측치를 바탕으로 杉山信三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26] 이후 米田美代治가 1943년에 정밀 실측조사를 진행하여 의장 계획과 사용 척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하기도 했다.[27] 당시 米田美代治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에 사용된 척도가 동위척(東魏尺)이며, 각 층에 대한 비례를 비교하여 체감율을 분석하였고, 상륜부의 높이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석탑이 목탑을 모방하여 만든 석탑이며, 일본에 남아있는 법륭사오층목탑이 백제의 목탑 건립 기술에 의하여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1979년부터 1984년도까지 발굴 조사가 실시되면서 정림사지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28] 그러나 사역에 대한 발굴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석탑에 대해서는 원형 파괴와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전면 해체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두 기밖에 남지 않은 백제 석탑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미술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백제 석탑의 형식과 양식을 비롯하여 건립 시기를 놓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백제 석탑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한국 미술사학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고유섭 선생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특히 백제 석탑은 한국 석탑사에서 시원적인 형식과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고유섭 선생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미륵사지 석탑을 백제 석탑의 선행 양식으로 보았다.

고유섭 선생 이래 미륵사지석탑을 선행 양식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백제의 두 석탑중 어느 석탑 양식이 얼마나 목탑의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

25) 葛城末治, 「唐平百濟碑塔」, 『朝鮮金石攷』, 아세아문화사, 1979, p.157.
1917년 봄에 정림사지오층석탑의 동쪽에서 고려시대 제작된 '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勒' 銘 瓦片이 발견되어 고려초기까지 명맥을 유지한 정림사로 비정되고 있다.

26) 杉山信三, 「大唐平百濟塔의 比例에 대하여」, 『考古學』 8권 6호, 1938.

27) 米田美代治 저・신영훈 역, 「扶餘 百濟五層石塔의 意匠計劃」, 『韓國上代建築의 硏究』, 동산문화사, 1976.

28) 윤무병, 『정림사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대 박물관, 1981.

고유섭 선생은 한국 탑파 양식의 기원은 방형 목조 고층 건물에서 유래하였고, 그 양식이 한국 탑파 양식의 기본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의 석탑 양식의 발전 과정도 목탑을 어느 정도 충실히 모방하였는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29] 그리고 석탑의 발전 과정에서 어느 석탑이 더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석탑들과 친연성을 보이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다음으로 1979～1980년 사이에 정림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와 이듬해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림사지오층석탑을 선행양식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출현하였다. 정림사지오층석탑을 선행양식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발굴 결과 밝혀진 석탑 주변의 판축 상태가 초창기의 것이며, 출토되는 유물들이 미륵사지보다 앞선다는 것이다.[30] 또한 정림사지오층석탑이 미륵사지석탑보다 목탑을 더 충실히 모방하였으며, 사비시기 수도에 먼저 석탑이 건립되고 다음으로 지방에 건립되는 것이 순리라는 측면도 근거로 제시되었다.[31]

어쨌든 백제 두 석탑이 사비시기(538. 봄～660.7)에 건립되었다는 것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석탑이 목탑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는 입장에서 두 석탑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나 양식에 주안점을 둔 연구는 미륵사지석탑이 무왕대(600～641) 전반에 건립되었으며, 정림사지오층석탑은 무왕대 후반이나 의자왕대(641～660.7)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발굴 결과와 사비와 익산이라는 지역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치・문화사적인 입장에 주안점을 둔 연구는 정림사지오층석탑이 미륵사지석탑보다 반세기 이상 먼저 건립된 석탑으로 보고 있어 흥미롭다.[32]

현재 남아있는 백제의 석탑으로는 미륵사지석탑과 정림사지오층석탑 뿐이며, 더 이상 석탑이 건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석탑을 세우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멸망하고 말았기 때문에 건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

29) 高裕燮,『高裕燮全集』1 －韓國塔婆의 硏究－, 通文館, 1993, p.51.
30) 문명대,「백제 불탑의 일고찰」,『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태학사, 1984.
31) 홍재선,「백제계 석탑의 연구」,『초우 황수영박사 고희기념 미술사학논총』, 통문관, 1988.
32) 엄기표,「백제 석탑의 선후에 대한 고찰」,『문화사학』16호, 한국문화사학회, 2001.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그런데 백제 불탑의 역사에서 주목되는 하나의 현상은 아직까지 백제가 塼塔을 세웠다는 기록이나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신라의 경우 많은 벽돌탑을 세웠다. 특히 백제가 바다를 통하여 중국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으며, 백제 불교가 중국 남조나 수나라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벽돌탑이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백제 불탑과 관련된 각종 기록, 유적과 유물들을 종합해 볼 때 백제는 목탑과 석탑을 사찰 가람의 중심에 조성하여 신앙과 예배의 중심 대상이 되도록 하였지 벽돌탑은 세우지 않았다. 백제는 이미 웅진시기에 벽돌을 활용하여 무덤을 만들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벽돌 제조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에서 성행한 벽돌탑은 세우지 않았다. 특히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불교가 발달되어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더욱 의문점으로 남는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문화 현상에 대하여 마땅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백제가 일찍이 목조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 목탑을 위주로 가람이 조성되면서 굳이 벽돌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양질의 흙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벽돌탑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벽돌탑을 세워보기 전에 이미 석탑이 일반화되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석탑의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백제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운 곡선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기단부나 탑신석에서는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옥개석은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건립된 석탑들에 비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다. 각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풍토와 민족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발달되었는데, 백제문화는 전반적으로 고구려의 웅장하고 야성적이기 보다는 유려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백제의 문화적 특성과 어울리듯 백제 석탑의 옥개석은 신라 석탑들의 섬세하고 세련된 이미지보다는 경쾌하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점이 돋보인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날개를 부드럽게 펼쳐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바로 옥개석의 경쾌하고 부드러운 치석 수법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당시 문화 선진국이었던 고구려와 백제의 장인들이 통일신라에 편입되면서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는 7세기 이후 불교가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도교가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 불교 미술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제는 멸망 직전까지 불교가 크게 성행하였고, 이에 따른 불교미술의 발전이 삼국 중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따라서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와 민족은 백제였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목탑과 석탑을 비롯한 불교미술은 백제 장인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신라 초기의 불교미술은 당시 가장 선진적이었던 백제 불교미술의 영향이 압도하였을 것이고, 점차 통일신라라는 새로운 왕조에 어울리는 불교미술이 창출되면서 발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황사 석탑

신라의 석탑으로는 분황사 석탑과 곧이어 건립된 의성 탑리 오층석탑이 대표적이다. 먼저 분황사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걸작품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소위 模塼 石塔이다. 원래는 9층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3층만 남아있다. 석탑은 넓직한 1단의 基壇 위에 3층의 塔身을 착실히 쌓아올린 모습이다. 기단은 벽돌이 아닌 자연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모퉁이마다 화강암으로 조각된 사자상이 한 마리씩 앉아있다. 회흑색 안산암을 작게 벽돌모양으로 잘라 쌓아올린 탑신은 거대한 1층 몸돌에 비해 2층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층 몸돌에는 네 면마다 문을 만들고, 그 양쪽에 불교의 법을 수호하는 仁王像을 힘찬 모습으로 조각해 놓았다. 이처럼 1층 탑신은 목탑의 요소라 할 수 있는 문비가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옥개석은 상하 모두 계단 모양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3층 지붕돌만은 윗면이 네 모서리에서 위쪽으로 둥글게 솟은 모양이며, 그 위로 화강암으로 만든 활짝 핀 연꽃장식이 놓여 있다. 이 석탑은 관련 기록으로 보아 634년(선덕여왕 3년) 분황사의 창건과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백제 미륵사지 석탑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부드러우면서도 힘차게 표현된 인왕상 조각은 당시 7세기 신라 조각양식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915년 일본인에 의해 수리된 이후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리 당시 탑 안에서 사리함과 구슬 등의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분황사 석탑은 1915년 일본인에 의해 수리된 것으로 원래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수리 당시 2층과 3층 사이에 들어 있던 舍利函 속에서 각종의 玉類, 가위, 은바늘 등과 함께 崇寧通寶, 常平五銖 등 高麗時代의 中國 鑄貨가 발견됨으로써 창건 당시의 舍利裝置에 추가하여 고려시대에서도 탑을 해체하고 수리하면서 동전을 넣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넓은 方形의 基壇 위에 세워진 1層 塔身의 4면에 花崗岩으로 만든 출입구가 있으며, 양편에는 佛法을 수호하는 金剛力士라고도 하는 仁王像을 배치하였는데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모습은 신라조각의 걸작품에 속한다.

다음으로 의성 탑리 오층석탑은 탑리 마을에 세워져 있는데 낮은 1단의 基壇 위에 5층의 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塼塔 양식과 목조건축의 수법을 잘 보여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단은 여러 개의 돌로 바닥을 깐 뒤, 목조건축을 본떠 가운데기둥과 모서리기둥 모두를 각각 다른 돌로 구성하였다. 탑신

은 1층이 높으며 2층부터는 높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1층 몸돌에는 불상을 모시는 방인 龕室을 설치하였다. 지붕돌은 전탑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밑면뿐만 아니라 윗면까지도 층을 이루고 있는데 윗면이 6단, 아랫면이 5단이다. 지붕돌은 네 귀퉁이가 살짝 들려있어 목조건축의 지붕 끝을 떠올리게 한다. 각 부분에서 목조건축의 양식을 응용하는 한편, 곳곳에서 전탑의 조성 기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분황사석탑(국보 제30호)과 함께 통일신라 전기의 석탑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낮은 1단의 기단위에 올린 탑신부 중에서 1층 탑신은 木造建物의 수법을 따라 배흘림이 있는 네모기둥을 세우고 南面에 龕室을 두었으며 감실 앞쪽으로 신방석이 돌출되도록 했다. 그리고 기둥 위에는 柱頭의 형태를 본떠서 조각하였다. 각층 屋蓋石은 塼塔의 구조를 본떠 아래 윗면을 모두 층급형으로 단을 지어 조성하였으며 맨 윗부분에 장식되었던 相輪部는 露盤만 남아 있다. 장중한 아름다움과 함께 전탑의 양식을 따르면서 일부 목조건물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석탑 양식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의성 탑리 오층석탑

이처럼 삼국시대 석탑은 처음으로 목탑을 번안하여 만들어진 조형물이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석탑은 세부 형식과 양식이 목탑과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삼국시대 석탑으로는 백제의 미륵사지석탑과 정림사지석탑, 신라의 분황사모전석탑과 의성 탑리오층석탑을 들 수 있다. 이들 석탑은 평면이 사각형으로 이후에 건립되는 석탑들에 비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층수가 높으며, 부재수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감은사지 삼층석탑(동탑)



고선사지 삼층석탑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V. 결 론

석탑은 삼국시대 시원하여 통일신라시대 전형양식의 석탑이 완성되어 고려시대까지 꾸준하게 건립되는 조형물로 불교 신앙과 예배의 중심 대상이었다. 처음에는 목탑이 만들어지다가 화재에 대한 취약성과 내구성이 약하여 새로운 재료인 돌을 활용한 석탑이 백제 장인들에 의하여 창출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은 신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삼국시대 석탑들은 그 남아있는 양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석탑사에서 처음으로 건

립되었으며, 이후 건립되는 석탑들의 시원적인 양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건립되는 전국 각지의 많은 석탑들이 삼국시대 석탑으로부터 기원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석탑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만의 전형적인 양식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석탑이 갖는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삼국시대 석탑 수량이 많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삼국시대 석탑은 사찰 가람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세워져 사찰의 상징으로서 예배의 주요 대상으로서 많은 佛徒들에게 신성한 경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석탑에 예불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드나들었을 것이다. 석탑이 서있는 사찰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와 이념을 넘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통일시켜 주는 공동의 장이자 일상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석탑은 일상으로 지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번뇌로 지친 심신을 위로받기도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부처에게 소원을 빌기도 했던 대상이었을 것이다.

統一新羅時代의 塔婆

申 龍 澈*

Ⅰ. 머리말
Ⅱ. 통일신라 탑파의 형식과 특징
1. 통일신라 탑파의 형식
2. 통일신라 석탑의 특징
Ⅲ. 통일신라 불탑과 조탑경
1.『造塔功德經』과 佛塔觀의 변화
2.『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신라불탑
Ⅳ. 맺음말

Ⅰ. 머리말

통일신라의 새로운 문화는 삼국통일 후 20여년간 당나라와 전쟁을 끝낸 68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에 盛唐문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우게 된다. 통일신라의 불탑은 이 같은 문화적 기반아래 679년 건립된 사천왕사 목탑과 682년에 건립된 감은사삼층석탑에서 정형을 이루었다.

통일신라시대의 불탑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탑 건축과 비교되는 점이 있다. 첫 번째 재료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석탑이 주류를 이루지만 목탑과 전탑, 금동탑들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二重基壇에 삼층의 탑신을 갖춘 삼층석탑의 건립

*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과 유행이다. 이 같은 정형양식은 신라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탑의 축소, 세장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 번째『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無垢淨經으로 약칭)이라는 造塔經의 등장과 유행으로 많은 양의 탑이 건립되는 신앙적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8세기까지 경주지역에 머물던 탑 건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글에서는 먼저 통일신라 탑파의 형식과 특징과 불탑 확산에 動因이 되었던 조탑경과 신라탑파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통일신라 탑파의 형식과 특징

1. 통일신라 탑파의 형식

1) 목탑

통일신라시대에는 많은 석탑의 건립으로 인해 목탑의 존재를 잊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통틀어 가장 많은 목탑이 건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경주 四天王寺(679년) 목탑이다.(도 1)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쌍탑가람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후 쌍탑의 건립은 통일신라시대 탑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적 기법이 되었다. 사천



(도 1) 四天王寺址 木塔址, 679년

왕사는 1920년대 일본인에 의해 부분 발굴되어 일부 도면이 남아 있으나 근래 전면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목탑지는 정면, 측면 3×3칸으로 중앙 심초석에는 사리를 모셨던 사각 사리공이 남아 있다. 목탑지에서는 통일초기 장인으로 유명했던 良志가 만든 소조사천왕상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그 봉안위치가 확인되었다. 발굴결과 목탑 기단부는 이중기단으로 4면에 계단지가 있으며 돌을 판석으로 다듬어 면석과 탱주석을 세웠는데, 각면 면석 내부공간에 소조 신장상을 세워 넣었다.[1] 즉 목탑은 기단부에는 석축과 벽돌을 이용하고 그 위에 목조건축을 세운 구조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통일신라시기의 목탑은 사천왕사 이외에 望德寺址(685년), 普門寺址 등은 쌍탑의 목탑터가 남아 있고, 祇林寺, 황룡사 근방의 경주 九皇洞 등지에 목탑터가 있다. 현재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살펴보면, 사천왕사터와 망덕사터의 목탑은 모두 정면, 측면 3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목탑터에 남아 있는 심주를 받치던 心礎石에는 사리를 봉안하였던 사각의 舍利孔이 있다. 그런데 사천왕사터 목탑지는 심초석이 정사각형으로 되어있는 것에 비하여 망덕사지는 심초석 자체를 팔각으로 만들었으며, 구황동 목탑지는 원형에 팔각을 조각한 형태로, 보문사지의 목탑의 심초석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유일하게 자체에 연꽃을 조각한 원형이며 사리공도 원형으로 되어 있어 특이하다.(도 2)



(도 2) 望德寺址 木塔址, 통일신라

1) 『신라호국의 염원－四天王寺』 학술연구 심포지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참조.
이 벽전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임영애, 「四天王寺址 塑造像의 尊名」, 『미술사논단』 27, 한국미술연구소, 2008, pp.7~37.

2) 석탑

① 일반형석탑

통일신라 탑파를 대표하는 것은 석탑이다. 감은사석탑(682년)에서 이중기단에 3층의 탑신으로 구성된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양식이 탄생하게 된다.(도 3) 감은사석탑은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세워지는 모든 삼층석탑의 시원이 되는 중요한 석탑이다. 석탑은 백제에서 시작되었으나 재료가 석재였을 뿐 많은 석재를 결구하는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목조 구조를 단순화시킨 석탑 양식은 통일기 바로 이전에 백제의 기술과 신라의 기술이 접목되어 건립된 의성탑리 오층석탑에서 구현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신라의 결구식 석탑은 감은사에서 시작된 것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시점이라는 점은 백제 유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통일국가로의 강력한 힘과 자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도 3) 感恩寺址 東西 三層石塔, 682년

이후 통일신라석탑의 시대적 변화과정은 감은사삼층석탑에서 석재의 수가 줄어들면서 간략・단순화된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건축적 측면에서 보면 감은사삼층석탑 같은 대형 석탑에서 번잡하고 불필요한 목조 건축적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여 조각적・공예적 요소를 강조한 소형 석탑으로 정착해 갔기 때문이다. 둘째 이 같은 건축외적 요인은 『무구정경』의 유행과 불국토사상의 팽배로 신라국토에 많은 양의 석탑을 건

립해야 했기 때문에 소형 석탑의 건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구방식의 변화이다. 백제의 석탑과 8세기 이전 통일신라 초기석탑은 그 구성에 있어 기둥과 면석, 옥개석이 모두 다른 돌로 조각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8세기 이후의 석탑은 기단 갑석이 하층과 상층 각각 8매, 4매의 돌로 결합되어 있으나 기단면석에서는 기둥과 면석이 한 돌에 함께 조각되어 있다. 9세기에 이르면 탑의 부재는 더욱 간단해져 하층과 상층기단면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각각 1매의 돌로 결구 되었으며, 심지어 탑신과 지붕돌을 같은 돌로 조각하여 쌓은 경우도 있다. 한편 경주 남산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하층기단을 생략한 단층기단 석탑 등도 조성적 측면에서는 이 같이 석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다.[2](도 4)



(도 4) 慶州 孝峴洞 三層石塔, 9세기



(도 5) 佛國寺 釋迦塔, 8세기

2) 통일신라 석탑의 시대구분과 편년에 대하여는 신용철, 「統一新羅 二重基壇石塔의 形式과 編年」, 『東岳美術史學』 9호, 2008.

둘째, 비례의 변화이다. 감은사지삼층석탑이나 고선사지삼층석탑과 같은 초기의 삼층석탑에서 이중기단과 탑신은 시각적으로 탑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낮고 넓다. 그러나 8세기 이후 불국사석가탑을 기점으로 안정감과 상승감이 동시에 추구되었고(도 5) 9세기 이후의 석탑은 안정감보다는 상승감 만을 강조하여 기단과 탑신이 細長形으로 변화해 간다. 또한 단층기단 석탑의 경우에도 자연암반이나 토단위에 건립되는 것도 세장형의 비례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세장형의 탑은 그대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셋째, 8세기 중엽 이후 탑의 공예화, 조각화가 이루어지는데, 조각상이 탑 표면에 나타나는 점이다. 탑에 나타나는 조각상은 통일신라시대의 뛰어난 조각기법이 탑에도 반영된 것으로 불상이나 신장상 등 신앙적, 外護的 성격이라는 종교적 이유가 있다.(도 6) 그러나 이것은 탑=건축이라는 개념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9세기 이후에 이 같은 석탑이 전국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탑을 점차 작게 만들면서 건축적 요소보다는 좀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공예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동시에 조각적이고 공예적인 승탑으로 이어져 9세기 석조미술의 백미를 장식한다.

넷째, 8세기 이후 심오한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독특한 형태의 독창적인 탑들이 만들어 졌다. 佛國寺多寶塔, 華嚴寺四獅子石塔 등은 우리나라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석탑이다. 다보탑은 불교의 경전가운데 『法華經』, 「見寶塔品」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고[3], 탑의 기단 모서리에 4마리의 사자를 넣어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獅子頻迅三昧 속에서 광명을 발하는 불타를 표현한 독특한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화엄사사사자석탑이다.[4](도 7) 따라서 이형석탑은 불교미술의 토대가 되는 경전에 충실하면서 표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창안과 파격을 시도한 독창적인 탑이다.

---

3) 그러나 종전의 『法華經』, 「見寶塔品」에 따른 해석 이외에 최근 불국사 쌍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는데, 東塔(多寶塔)은 華嚴蓮華藏世界의 立面的 構造를 西塔(釋迦塔)은 平面的 構造를 표현했다는 설이 있다(배진달, 「佛國寺 石塔에 구현된 연화장」,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예경, 2007. 4, pp.121~137).

4) 신용철, 「華嚴寺 四獅子石塔의 造營과 象徵」, 『美術史學硏究』 250・251호, 한국미술사학회, 2006.



(도 6) 遠願寺址 三層石塔, 8세기



(도 7) 華嚴寺 四獅子石塔, 9세기

② 모전석탑

2009년 1월 공개된 백제 미륵사 석탑의 탑지에 따르면, 심주에 사리를 봉안한 시점이 639년이다.[5] 미륵사 석탑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완공까지는 사리의 봉안 이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 645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석탑의 시작은 634년 완공된 분황사석탑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백제의 석탑은 재료를 목재처럼 다듬어 결구한 結構式 석탑이고, 신라의 석탑은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쌓아 올린 造積式 석탑이다. 신라는 통일이후 백제의 결구식 기술을 받아드려 석탑문화를 발전시키지만 조적식 석탑 역시 별도의 영역에서 변용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模塼石塔은 '塼塔을 模倣한 石塔'을 지칭한다. 이 석탑은 안산암, 전판암 같은 재질의 돌을 塼形으로 다듬어 전탑과 유사한 색상과 형태의 질감을 갖는다. 따라서 명칭을 그대

5) 미륵사석탑 사리장엄의 발굴에 대한 것은 『彌勒寺址 石塔 舍利莊嚴』,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09. 참조.

로 따르면 전탑에 기원을 두고 그 形을 모방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탑의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스투파는 돌을 다듬어 쌓아 올린 봉분형 탑이고 중국 역시 6세기 이전에는 이 같은 모전석탑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돌을 하나하나 다듬어 쌓아올리는 어려움에서 쉽게 탑을 쌓는 방식으로 전탑이 성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전석탑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전탑에서 파생된 탑파의 부류로 생각하기 쉬우나 전탑의 기원은 모전석탑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라시대에 제작된 모전석탑의 유형을 살펴보면 분황사석탑을 始原形으로 여러부류의 모전석탑들이 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형식의 분류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신라의 모전석탑은 탑 전체를 모전석으로 積層하는 형식과 일반형 석탑처럼 석재를 이용하되 옥개석 상면에 계단식 지붕형을 나타낸 두 가지 형식이 있다.[6] 먼저 명칭의 문제에서 분황사 석탑과 같은 첫 번째 형식의 석탑은 소형 모전석을 이용하여 적층하는 구조이므로 모전석탑의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들여쌓기형으로 나타나는 계단식 지붕을 제외한다면 전탑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형식을 보이기 때문에 모전석탑으로 통칭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7] 따라서 모전석탑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되 그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여 좀더 세부적인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분황사 모전석탑을 시작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英陽 鳳甘 五層模塼石塔,

---

6) 진홍섭 선생은 모전석탑을 第一類와 第二類로 분류하고 세분하여 一類는 분황사석탑을 포함하여 2개형으로, 二類는 의성 탑리 오층석탑을 포함하여 3개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秦弘燮, 「韓國模塼石塔」, 『文化財』 3號, 文化財管理局, 1967). 장충식 선생은 기단, 감실, 우주와 탱주의 유무, 옥개의 형태에서 5가지 형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張忠植, 「新羅模塼石塔考」, 『新羅文化』 1輯, 東國大 新羅文化硏究所, 1984. pp.150~151). 박홍국 선생은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황사 계열의 모전석탑을 5가지 형식으로, 탑리 계열의 석탑을 5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1998. pp.28~31).

7) 이 같은 측면에서 박홍국 선생은 후자의 경우를 塼塔外觀模倣石塔의 의미에서 '전탑형 석탑'이라 명명하고 있다(박홍국, 앞의 책, 1998, pp.27~28). 그러나 이 같은 석탑은 전탑의 모방에 그 원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황사 석탑에 기원을 두고 의성 탑리석탑에서 성립된 倣 模塼石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탑형 석탑'이라는 명칭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경식 선생은 이에 대해 '석탑계모전석탑'이라고 명명하고 있다(朴慶植, 「新羅 始原期 石塔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19호, 2003. p.92의 註49. 참조).

英陽 縣一洞 五層模塼石塔, 英陽 三池洞 模塼石塔, 軍威 三尊石佛 앞 模塼石塔, 尙州 石心灰皮塔 등 주로 경북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초기 平面積이 큰 분황사 석탑 4면에 門扉가 나타난 것에 비해 봉감 오층모전석탑이나 현일동 오층모전석탑은 平面積이 축소되면서 南面에만 문비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석탑은 모두 塼形의 소형 석재를 이용하여 積層한 탑으로 분황사 석탑에서 시작된 순수모전석탑의 계보를 잇고 있다.(도 8)

후자의 경우 3가지 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결구기단식 모전석탑으로 단층 혹은 이중기단을 가지고 있으며 기단방식은 일반형 신라석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결구방식을 따르고 있다. 옥개석은 여러개의 돌로 조합되어 있으며 초층탑신에는 남측에 감실을 개설하고 있다. 塔里 五層石塔, 永山寺址 五層石塔, 洛山洞 三層石塔, 竹杖寺 五層石塔[8]이 이에 속한다.(도 9)



(도 8) 英陽 鳳甘 五層模塼石塔



(도 9) 善山 竹杖洞 五層模塼石塔

8) 竹杖洞 石塔의 形式과 復元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張忠植,「善山 竹杖寺 模塼石塔의 復元 問題」,『동악미술사학』3호, 東岳美術史學會, 2002.

두 번째가 괴체기단식 모전석탑으로 기단부는 8개의 장방형 괴석으로 되어 있고 반드시 별석의 초층탑신 받침을 갖는다. 탑신과 옥개는 각각 한돌로 처리되었으며[9] 탑신의 우주는 완전히 생략되었다. 慶州 南山洞 東三層石塔, 慶州 西岳洞 三層石塔, 慶州 茸長谷 三層石塔 등 경주에서만 소수로 제작되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탑을 찾아 볼 수 없다.(도 10) 이처럼 기단부를 장방형 괴체석으로만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남산동 동삼층석탑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남산동 동삼층석탑은 일반형 이중기단 석탑과 쌍탑으로 존재하고 있어 불국사의 쌍탑과 함께 유일하게 동서에 서로 다른 석탑이 조영된 사례이다. 우선 남산동 서삼층석탑의 상층기단부와 동삼층석탑의 기단부는 같은 높이에서 설정된 점이 주목되는데, 결국 8개의 괴체석을 2단으로 축조하여 기단의 높이를 높인 것은 서탑의 높이에 맞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10) 慶州 南山洞 東三層石塔

세 번째가 자연기단식 모전석탑으로 자연암반 혹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기단으로 이용하며 탑신부는 괴체기단식 석탑과 같은 형식을 보인다. 자연 암반을 기단 지대석으로 이용하는 석탑형식은 9세기말 단층기단 석탑의 유행과 동시에 경주 남산 등지에서 크게 유행한 형식이다. 경주 吾也里 三層石塔과 安東 下里洞 三層石塔이 이 같은 조형을 보이고 있다.<표 1>

9) 경주 남산 용장곡 사지 괴체기단식 모전석탑은 2층 옥개 상면과 3층 옥개 하면에 공간을 두어 별도의 3층 탑신을 생략하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 模塼石塔의 유형과 特徵

형식		특 징	조탑예	지역분포
전탑계 모전석탑		· 小石材를 이용하여 造積 · 주로 초층탑신에 감실 개설	분황사석탑, 영양봉감석탑, 영양현일동석탑,영양삼지동석탑 군위석탑, 정암사수마노탑, 제천 장락리석탑, 제천 교리석탑, 영양 안동 대사동석탑, 안동 석탑리 방단형적석탑 등	경주, 경북북부, 충북제천
석탑계 모전석탑	결구식	· 단층, 이중의 결구식 기단 · 초층탑신 남면에 감실 개설 · 옥개, 탑신이 여러개의 돌로 구성	탑리석탑, 빙산사지석탑, 낙산동 석탑, 죽장사 석탑	경북 북부
	괴체식	· 기단부를 8개의 괴체석으로 구성 · 탑신, 옥개가 각각 한돌로 구성	남산동 동석탑, 서악동 석탑, 남산 용장곡 석탑	경주
	자연식	· 자연암반을 이용 · 탑신, 옥개가 각각 한돌	오야리석탑, 하리동 석탑	경주, 안동

분황사 석탑에 기원을 두고 발전한 통일신라시대 4가지 형식의 모전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 분포이다. 이들 석탑들이 분포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경주를 중심으로 주로 경북 북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모전석탑은 고려시대에도 계속 제작되고 있는데, 순수 모전석탑은 提川 長樂洞五層石塔, 太白 淨岩寺 水瑪瑙塔 등에서 조탑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결구기단식 모전석탑은 강진 月南寺址 石塔으로 자연기단식 석탑은 화순 雲住寺 模塼石塔으로 이어져 점차 전국적인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전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탑은 신라 선덕여왕대(632～646)에 양지스님이 벽돌을 구워 만든 경주 錫杖寺址 전탑이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탑에 3천불을 봉안했다고 한다. 실재로 석장사지 발굴결과 측면에 앉아 있는 작은 불상과 탑들이 새겨져 있는 많은 양의 전돌이 발견되었다. 지붕이나 탑신의 모서리에 쓰였던 전돌에는 2측면에 불상과 탑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어떠한 것은 한 면에 4구의 불상과 탑이 번갈아 가며 새겨져

있었다.

현재 발굴이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통일신라 전탑은 경주지역과 안동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경주지역은 경주 석장사지, 인왕동 양지마을 절터, 암곡동 절터, 울산 농소면 중산리절터, 청도 운문사와 불영사 등의 6곳에 달한다. 그러나 청도 불영사를 제외하면 자취를 찾을 수 없다. 반면 대구와 안동지역에는 안동 신세동 칠층전탑이나 동부동 오층전탑, 조탑동 오층전탑,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등이 남아 있는데, 이들 전탑들은 조선시대까지 중수를 거듭하여 현재 남아 있다.(도 11, 12)



(도 11) 安東 新世洞 七層塼塔



(도 12) 安東 造塔洞 五層塼塔

2. 통일신라 석탑의 특징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석탑은 목탑에 기본을 둔 백제석탑과의 연관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많은 석재를 결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목탑양식에서 벗어나 석탑양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결구법이 나타난다. 그러나 곧 석재의 사용과 결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690년경을 전후하여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데, 많은 석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간략화하는가 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결구법들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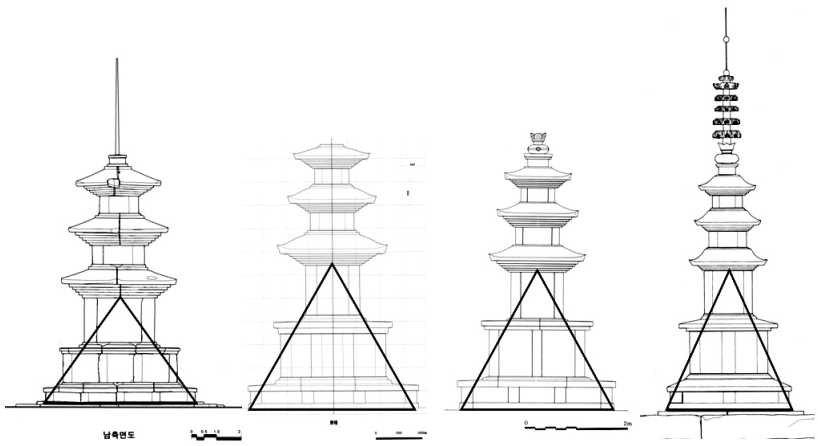
먼저 7세기의 석탑을 살펴보면, 감은사와 고선사탑은 백제에서 성립된 舊樣式을 토대로 신라석탑 가운데 가장 많은 석재로 이루어진 탑이다. 그러나 백제석탑과는 달리 신라석탑의 양식적 특징은 표면구조에 있어 간결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백제에서 신라석탑으로 변모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석탑이기 때문에 신라석탑 가운데 단연 크기가 크고 지면의 점유면적 또한 크다. 따라서 둔중한 비례감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례적 측면에서 옥개석이 81°의 체감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탑신부의 경우 옥개받침을 제외한 1층 옥개의 높이는 2층 탑신의 높이와 동일하고 역시 옥개받침을 제외한 2층 옥개석의 높이는 3층 탑신의 높이와 동일하다. 이는 8세기 석탑에서도 적용되는 비례감각이다. 따라서 7세기 석탑은 신라식 二重基壇과 동일 비례감각을 지닌 삼층의 塔身이라는 신라석탑의 定型을 이룬 점은 양식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8세기 석탑은 기존 석탑의 결구법에서 발전하여 신라석탑의 정착을 이룬시기이며 동시에 전성기이도 하다. 특히 상하층기단에 2 : 2의 탱주를 표현하면서 기단과 탑신과의 안정감과 상승감의 완벽한 비례를 이루게 되었다. 즉 하층기단 하부의 면석을 한 변으로 초층탑신 상면 중앙부까지 연결할 경우 정삼각형이 형성된다. 이 같은 비례감각은 기단부의 안정성과 탑신의 상승감이 조화를 이룬 신라석탑만의 비례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신라석탑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8세기 석탑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9세기 초반의 석탑은 부재를 최소화시켜 점유 면석을 적게하고 상승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같은 측면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그 양식적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중기단 석탑에서 정착된 상하층 판석식 결구와 단층기단 석탑의 성립

이 그것이다.

9세기 후반에 이르러 조탑술의 퇴조로 형식화가 심화되고 하층기단을 한 변으로 초층탑신 상면까지의 비례는 상승감만을 강조하는 세장형의 조형감각을 보이고 있다.(도 13) 이 같은 세장형 비례감각은 기존 탑에서 나타난 옥개석의 체감율에서 벗어나 85°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다. 또한 탑신의 체감비도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기존석탑에 나타난 옥개와 탑신이 갖는 체감비에서 벗어나 초층탑신에서 3층 탑신까지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부조상이 등장하여 조각적 측면을 강조하는 석탑이 많이 건립된다.



(도 13) 統一新羅 石塔 基壇部와 初層塔身의 比例
(왼쪽부터 감은사탑, 경주 남산남리탑, 단속사탑, 실상사탑)

9세기 신라석탑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탑의 확산은 신라석탑의 전국적 확대라는 점과 아울러 각 지방의 토착민을 자극하여 지방양식의 석탑을 탄생시켰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영동 영국사 석탑, 해남 대흥사 석탑,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탑, 홍천 물걸리 석탑, 영양 현일동 석탑 등은 이미 성립된 석탑을 모델로 지방 장인에 의해 제작된 탑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조탑술의 확산과 전래는 고려 개국이래 각 지방에서 활발하게 제작된 독특한 고려석탑의 건립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Ⅲ. 통일신라 불탑과 조탑경

불탑의 건립목적은 부처의 사리를 영구히 모시기 위한 무덤이며 동시에 부처의 업적을 기리고 찬탄하는 공간이었다. 신라의 불탑은 이 같은 불탑의 기본적 기능을 토대로 성립과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삼국기에는 불사리의 신통력으로 주변국가를 조복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적 개념이 강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탑을 통해 공덕을 쌓는다는 '作功德'의 확립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경전적 배경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신라사회에 조탑경의 전래와 유포는 불탑관의 변화를 가져왔고, 탑의 건립 혹은 중수를 통해 무한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불탑 건립을 주도하였다.

조탑경이란 탑을 건립하거나 중수하는데 필요한 소의경전으로 통일신라초기 당나라를 통해 유입된 『造塔功德經』과 『無垢淨經』이 있다. 특히 무구정경은 신라가 멸망 할 때까지 통일신라불탑의 건립과 중수의 근본 경전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없이 통일신라 불탑을 알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造塔功德經』과 佛塔觀의 변화

『조탑공덕경』은 680년 인도의 승 地婆訶羅와 신라의 승려 圓測 등 5인이 長安의 西明寺에서 11월 15일에서 12월 8일까지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번역된 경전이다. 특히 원측은 이 경전의 서문까지 쓰기도 했다.[10] 이 경이 언제 신라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당시의 활발했던 당과의 교류를 감안할 때 곧바로 신라에 유포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11]

---

10) 金相鉉, 「新羅의 建塔과 『造塔功德經』」, 『蕉雨 黃壽永博士 八旬頌祝祈念論叢』, 韓國文化史學會, 1997. 에서는 『조탑공덕경』의 신라 유포와 그 의미를 고찰하면서 『無垢淨經』의 도입 이전에 건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였다.

11) 김상현, 앞의 논문, pp.248~249.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도리천 白玉座에 계시는 부처님께 조탑과 그 공덕에 대하여 질문하자 여래가 그 내용을 설법해 주는 내용이다. 이 경에서는 탑을 세우는 방법, 또 그 탑 안에 여래의 사리를 넣거나 또는 여래의 法藏인 十二部經을 두되 최하로 하나의 四句揭를 넣으면 死後에 무량한 공덕을 받는다고 설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이 설법하신 四句揭는 여래의 法身이라 하면서 이 인연의 뜻을 깨달으면 곧 부처를 보는 것(成佛)이라고 설하고 있다.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나는 것이며	諸法因緣生
내가 이를 말해서 인연을 설한다	我說是因緣
인연이 다한 고로 없어지나니	因緣盡故滅
나는 이와 같이 설하노라	我作如是說[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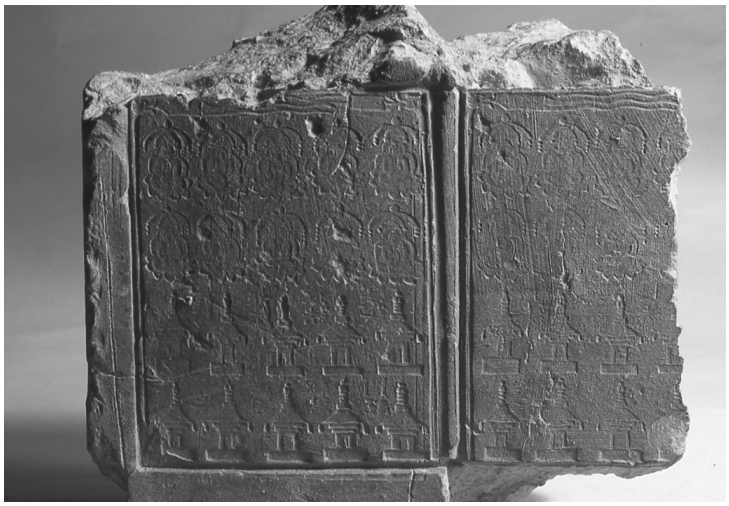
불사리와 함께 법사리로서 緣起法頌을 넣으면 무량 공덕을 받는다는 내용은 종전에 볼 수 없던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사리의 봉안방식은 인도에서 비롯되었다.[13] 즉 玄奘이 인도 마가다국에서 향목의 분말을 이겨서 5～6寸가량의 소탑을 만들고 그 안에 경문을 써서 안치하는데 이를 법사리라하며 그 수가 차츰 불어나면 大塔을 세우고 그 안에 모아 공양한다는 것이다.[14] 또한 의정의 『南海寄歸內法傳』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15]

이 같은 법사리는 실제로 간다라지역을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緣起法頌의 사구게로 알려져 있다.[16] 그런데 이 같은 연기법송의 四句揭를 法舍利라고 언급한 것은 710년 義淨에 의해 번역된 『浴佛功德經』에 나타나고 있다.[17] 따라서

12) 地婆訶羅 譯, 『佛說造塔功德經』(『大正藏』 16, p.801b).
13) 張忠植, 『新羅石塔硏究』, 一志社, 1987, pp.25~27.
14) 玄奘, 『大唐西域記』(『大正藏』 51, p.920a).
15) 義淨, 『南海寄歸內法傳』 4卷 (『大正藏』 54, p.226c).
16) 周炅美, 「韓國 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 『불교미술사학』 2집, 2004, pp.187~188.
17) 義淨 譯, 『浴佛功德經』(『大藏經』 16, p. 800a).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세존님께서 모두 세 가지 몸이 있으시니, 法身과 受用身, 化身이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이러한 三身에 공양코자 하는 이는 마땅히 사리에 공양할지니라. 그러나 두

불탑에 身舍利와 法舍利로서 연기법송의 봉안 전통은 인도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玄奘과 義淨 등 求法僧에 의해 중국에 소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기법송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예는『造塔功德經』에 의한 법사리 봉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 錫杖寺址에서 발굴된 緣起法頌銘 塔像文塼이 주목된다.[18](도 14)



(도 14) 緣起法頌銘 塔像文塼, 경주 석장사지출토, 경주동국대캠퍼스박물관 소장

이 전돌은 장방형의 구획 내부에 음각으로 위부분에 2줄로 상하 각각 5구 불상과 아랫부분에 상하 각각 5기의 불탑을 새겨 넣었는데, 탑 사이에 4줄로 "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의 연기법송이 左書陰刻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다량의 塔像文塼과 神將像片들이 발견되어『삼국유사』에 언급된 良志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양지는 錫杖寺에 주석하면서 다양한 사찰의 불사들을 주도하였다. 특히 그의 祖上이나 고향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점[19]과 현재까지 나타난 조형품의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身骨舍利요, 둘째는 法頌舍利니라. 이를 게송으로 말하면, 모든 법이 인연에서 일어나니(諸法從緣起) 여래는 이를 인이라 말하노라(如來說是因) 그 법이 인연으로 다하나니(彼法因緣盡) 이것은 큰 사문의 말이니라 (是大沙門說)'

18)『錫杖寺址』, 동국대경주캠퍼스 박물관, 1994.

성격으로 보아 국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20] 그의 활동시기에 관하여는 『삼국유사』에 주로 선덕여왕대 기록이 있지만, 사천왕사의 불사에도 관여한 점을 상기할 때 68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활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신라사회에 功德槪念으로서의 불탑의 건립에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군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양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三國遺事』에는 良志가 靈廟寺 塑造丈六像을 만들 때 성안에 사람들이 다투어 진흙을 날라주면서 불렀던 風謠가 소개되어 주목된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인생은 서러워라. 서러워라 우리들은 **功德** 닦으로 오네.[21]

풍요는 물론 불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신라사회에 불사를 공덕과 연관시키는 최초의 대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양지의 불사에는 공덕을 쌓는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양지가 흙을 다루는데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목탑이나 석탑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탑재로서 전을 이용한 것은 탑을 쌓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功德積聚의 개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조사나 연구결과 『조탑공덕경』이 신라사회에 유포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탑과 관련된 사리장엄구가 도난, 분실된 상황에서 그 확산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가늠해보기는 쉽지 않지만 8세기 이후 신라탑의 조탑경으로 자리잡는 『無垢淨經』에 비교한다면 그다지 성행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22]

---

19) 『三國史記』, 卷第4, 義解4, 良志使錫條.
'釋良志 未詳祖考鄕邑 唯現迹於善德王'

20)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스승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국내 승이었을 가능성(文明大, 「良志와 그의 作品論」, 『佛教美術』 1, 동국대박물관, 1973) 국내승이지만 서역을 여행하고 불교미술을 수련한 인물일 가능성(張忠植, 「錫杖寺址 出土遺物과 釋良志의 彫刻 遺風」, 『新羅文化』 3·4합집, 新羅文化硏究所, 1987) 서역인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신라로 귀화했을 가능성(姜友邦, 「新良志論」, 『美術資料』 47호, 국립중앙박물관, 1991) 등이 있다.

21) 『三國遺事』 卷第4, 義解4, 良志使錫條.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良來如'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舍利로서 연기법송의 봉안은 불탑을 공덕개념으로 이해하는 신라불탑관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704년 중국에서 번역된『無垢淨經』이 신라사회에 빠른 속도로 자리잡게 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신라불탑

1)『무구정경』의 내용과 작법

무구정경은 80卷本『華嚴經』을 한역한 于闐國인 實叉難陀에 의해『離垢淨光陀羅尼經』이라는 經題로 한역되었다.[23] 그리고 이후 서역 覩貨邏國人(Tukhāra) 彌陀(陁)山과 法藏에 의해 704년 共譯되었다.『貞元新定釋教目錄』에는 '離'자와 '無'가 다르지만 이는 彌陀山 譯本과 同本임을 밝히고 있다.[24]

무구정경의 정확한 전래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기 외함의 명문에 의하면, 706년(聖德王5)에는 무구정경의 법식에 따라 탑이 수리되었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이 봉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25] 따라서 무구정경이 중국에서 번역된 704年에서 이것이 황복사지 삼층석탑에 봉안된 706년 5월 30일 이전에 전래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구정경은 704년에서 706년 사이에 중국을 방문한 사람, 즉 遣唐使를 통해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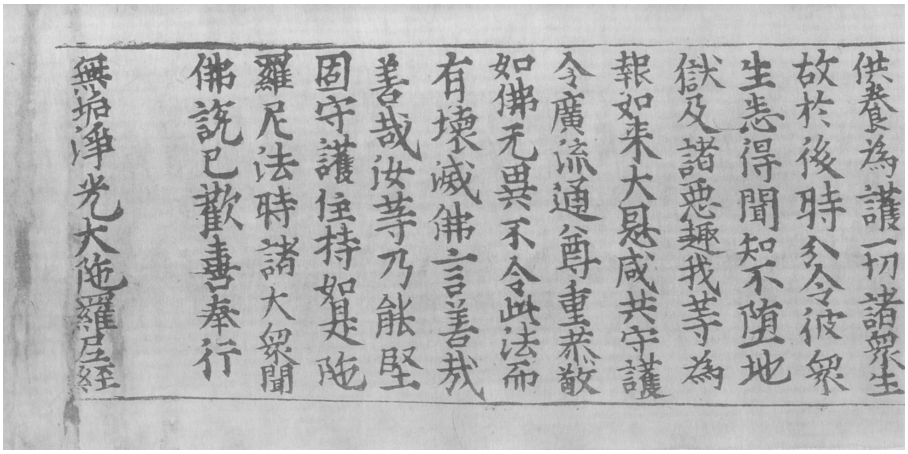
22) 현재까지 발견된 緣起法頌은 錫杖寺址 출토품 이외에 慶州 皇龍寺址 出土品과 忠南 普願寺址 出土品이 있다. 慶州 皇龍寺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연기법송은 '諸法因緣生'으로 시작하는『造塔功德經』의 연기법송이다. 반면 普願寺址 五層石塔에서 발견된 연기법송은 '諸法從緣起'으로 시작하는 錫杖寺址 緣起法頌과 같은 것으로 2종이 있다.

23)『續古今譯經圖紀』(『大正藏』55, 367b～c).
'沙門實叉難陀 唐云學喜 于闐國人…又至久視元年庚子 於三陽宮內 譯大乘入楞伽經一部七卷…離垢淨光陀羅尼經一卷'

24)『貞元新定釋教目錄』卷13(『大正藏』55, 869a).
'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 第二出與實叉難陀 離無垢淨光陀羅尼同本'

25) 황복사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과 봉납『無垢淨經』에 대하여는 韓政鎬,「慶州 九皇洞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美術史論壇』22호, 한국미술연구소, 2006. 참조.

무구정경은 부처님이 迦毘羅城에 계실 때 불교를 믿지 않는 劫比羅戰茶 바라문이 1주일 후면 죽을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찾아오자, 석가는 이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갈 것이며 그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바라문이 지성으로 참회하고 귀의하오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석가는 "낡은 탑을 수리하고 따로 작은 탑을 만들어 그 안에 다라니를 써넣고 성대한 공양을 베풀고 법에 의지하여 일곱 번 다라니를 외우면 생명이 연장되고 죽어서 극락왕생하여 백천겁 복락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음 세상에는 모든 죄업이 소멸되어 지옥의 고통이 없이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때 除盖障菩薩이 다른 중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덕을 달라고 요청함으로서 석가모니가 이 경을 정식으로 설법하게 되었다.[27](도 15)


供養為護一切諸衆生
故於後時令彼衆
生悉得聞知不墮地
獄及諸惡趣我等為
報如来大慈咸共守護
令廣流通尊重恭敬
如佛无異不令此法滅
有壞滅佛言善哉
善哉汝等乃能堅
固守護住持賀是陁
羅尼法時諸大衆聞
佛說已歡喜奉行
無垢淨光大陁羅尼經

(도 15) 無垢淨光大陀羅尼經, 8세기중엽,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이어 부처님이 劫比羅戰多 바라문에게 '最勝無垢淸淨光大壇場法'의 다라니를 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根本陁羅尼, 相輪樘陁羅尼, 修造佛塔陁羅尼이다. 또 除盖障菩薩이 설하는 自心印陁羅尼가 있는데 이것이 『無垢淨經』에서 중심이 되는 4종 다라니가 된다. 여

26) 실제로 성덕왕 3년 3월에 遣唐使로 갔던 金思讓에 의해 당시 최신 譯本인 『金光明最勝王經』이 들어왔다.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3年條.

27) 『無垢淨光大陀羅尼經』(『大正藏』 19, 717c～718a).

기에 執金剛大夜叉主와의 대화에서 다시 大功德聚陁羅尼와 六波羅蜜陁羅尼가 설해진다.

무구정경은 법사리로서 다라니의 念誦, 書寫, 奉安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작법을 살펴보면, 수조불탑다라니를 제외하면 근본다라니에는 77벌, 상륜당다라니와 자심인다라니는 99벌씩 다라니를 써서 탑내, 혹은 상륜에 봉안하도록 하였으며 근본다라니는 77벌 쓴 다라니를 77개의 토탑을 만들어 넣고 77회 탑돌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공덕취다라니와 육바라밀다라니는 4종 다라니를 99벌씩 쓰고 육바라밀다라니의 경우 99개의 소탑을 만들어 그 속에 한벌씩의 다라니를 넣어 상륜당에 봉안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표 2〉 무구정경의 陁羅尼作法

다라니법	내용	소탑	다라니봉안장소	탑돌이	봉안의미
根本陁羅尼	중수	77기	소탑내 77벌의 다라니 탑내 봉안 혹은 77번 쓴 다라니를 탑내 봉안	77회 오른쪽으로 돌면서 77회 염송	7십7억 여래에게 선근을 심는것
相輪樘陁羅尼			99회 쓴 다라니를 상륜당	오른쪽으로 돔	9만9천곳에 상륜당을 세움 9만9천곳에 사리봉안 9만9천곳에 사리탑을 조성 9만9천곳에 보리도량탑 조성
修造佛塔陁羅尼	건탑 중수		탑속, 중수한탑의 상륜당		
自心印陁羅尼	중수		99번 쓴 다라니를 탑속, 탑 네귀	오른쪽으로 돌면서 다라니 108회 염송	9십9억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大功德聚陁羅尼			99번 쓴 다라니를 상륜당 가운데, 탑의 네귀		9십9억 보배탑을 조성
六波羅蜜陁羅尼		99기	99번 쓴 다라니를 탑에 넣어 상륜당 속		9십9억칠보탑을 조성, 9십9억여래에게 공양하는 것

근본다라니, 상륜당다라니, 수조불탑다라니, 자심인다라니 등 4종 다라니의 작법은 구체적으로 불탑에 봉안되는 법사리로서의 다라니이고 대공덕취다라니와 육바라밀다라니

는 作壇法으로 단을 만들고 공양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공덕취다라니나 육바라밀다라니법에 따라 다라니를 봉안할 때는 앞선 4종다라니를 99벌 書寫하고 상륜이나 탑 속에 넣는 것이다.

2) 『무구정경』의 공덕 및 무구정탑의 건립

무구정경의 다라니법에서는 根本陁羅尼, 自心印陁羅尼에서 古塔重修를 강조하고 있으며 修造佛塔陁羅尼에는 새로운 탑과 고탑중수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무구정경에서는 기본적으로 古塔重修의 결과로서 그 공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구정경에 따른 탑 수리는 皇福寺 石塔, 皇龍寺九層塔, 仲和3年銘 舍利器 봉납 석탑 등에서 살펴볼 수 있고 禪房寺 塔誌, 仁陽寺碑[28], 永泰2년명 蠟石製 탑지 등에서 불탑수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불탑수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하대에는 무구정경에 따른 고탑 수리뿐 아니라 새로운 탑의 건립에 보다 많은 사례들을 나타나고 있다.[29]

이러한 불탑 건립이나 重修에 따른 공덕은 기본적으로 다른 대승경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공덕의 내용은 주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무구정경에서 언급된 수명연장, 죄업소멸과 같은 현실적인 공덕은 현생에서 그 공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건탑을 통해 공덕이 쌓이는 기존의 개념에서 공덕을 쌓기 위하여 건탑을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불탑관의 정립으로 이어진다.

---

28) 이 비석은 한 면에 僧像이 조각되어 있고 나머지 3면은 모두 仁陽寺와 관련된 불사의 내용을 적고 있다. 즉 혜공왕7년(771)부터 헌덕왕2년(810)에 이르는 약 40여년간 仁陽寺의 塔과 金堂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802년 仁陽寺탑의 노반을 수리하였고('同年 塔盧半治') 이듬해인 803년 인양사 탑의 4층이 무너져 수리하였음을('仁陽寺塔弔四層治同年')알 수 있다. 「仁陽寺碑」,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앞의 책, p.236. 이와 관련한 최근 연구로는 박홍국, 「昌寧 仁陽寺碑文의 塔 關聯記事에 대한 검토」, 『新羅文化』 32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8.; 주경미, 「창령 술정리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고찰」, 『美術資料』 77호, 국립중앙박물관, 2008 참조.

29) 그러나 신라시대에 건립된 불탑에 비해 발견된 사리장엄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탑 수리의 사례는 더 많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구정경에 의한 건탑으로 얻게 되는 공덕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국가가 받는 공덕으로 재해・재변소멸, 원적격퇴, 신장이 국가를 수호, 백성이 정법을 갖춤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개인적 공덕이다. 여기에는 살아서의 공덕과 죽은 후의 공덕이 있는데, 먼저 살아있을 때의 공덕내용을 보면 선근과 복덕을 성취, 수명연장, 업장소멸, 죄・질병・번뇌소멸, 보리성취, 전생죄업소멸 등이 있다. 다음으로 죽어서의 공덕으로는 주로 극락왕생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공덕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공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구정경에 있어서 불탑의 건립과 공덕의 주체는 국가에 한정된 것에서 점차 벗어나 개인 추복적 불탑관의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탑지나 사리장엄구 관련 유물을 통해볼 때 약 14기 정도의 무구정탑의 조탑사례가 확인되고 있다.<표 3>

〈표 3〉 통일신라『무구정경』에 의한 건탑 사례

탑명칭	연대	구분	기원공덕	봉안 무구정경	비고
나원리 석탑	8세기			大功德聚陁羅尼, 自心印陁羅尼	
전 황복사탑	706	수리	왕실 왕생, 현왕수복, 천하태평, 중생고통소멸 및 정각	無垢淨光陀羅尼經 1권(분실)	
불국사 석가탑	8세기 중엽	건립		無垢淨光陀羅尼經 1권	고려초 수리
日本 小倉콜렉션사리기	8세기 중엽				사리함외면 小塔線刻
창림사지 석탑	855	건립	만물이익, 국왕복덕	陀羅尼1축 (『院堂先生文集』)	
동화사 비로암석탑	863	건립	업장소멸, 민애대왕 추복		
축서사 석탑	867	건립	정토왕생, 속세생령 이익		
보림사 석탑	870	건립	헌안왕의 왕생		
황룡사 구층탑	871	수리		4종다라니 99벌, 경(무구정경)1권	

탑명칭	연대	구분	기원공덕	봉안 무구정경	비고
선방사 탑	879	수리			
중화3년 사리기	883	수리	菩提證得	다라니 77벌	
선림원지석탑	9세기말				소탑발견
성주사지석탑	9세기말				金立之撰碑文
公州 東院里 석탑	9세기말				소탑발견
해인사길상탑	895	건립	망자극락왕생	무구정경1권, 99, 77벌 다라니	법화경, 유마경, 수구즉득대자재다라니, 금강반야경 등 동시봉안

신라사회에서 무구정경이 봉납된 가장 오래된 탑은 皇福寺址 석탑이다. 이 석탑은 692년(효소왕1)에 승하한 神文王을 위해 신문왕의 비인 神睦太后와 孝照(昭)王이 건립한 것이다.(도 16) 그런데 탑이 건립된 후 700년 신목태후와 702년 孝照(昭)王이 차례로 승하하자 건탑 된지 불과 14년 후인 706년(성덕왕5)에 開塔하여 무구정경을 봉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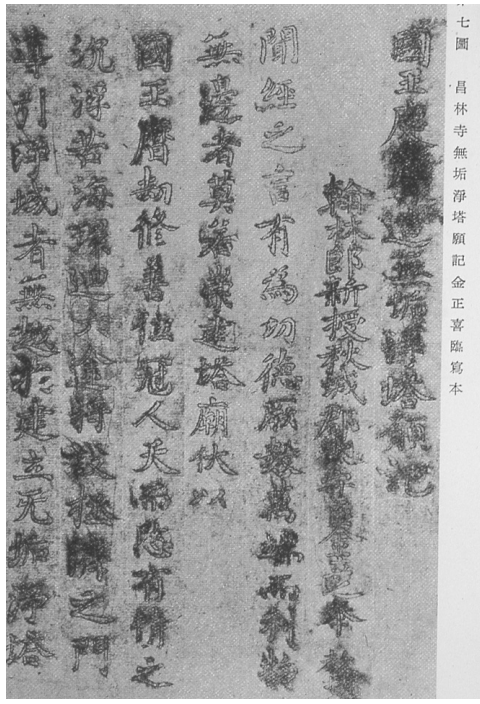


(도 16) 皇福寺址 三層石塔, 692년

명문에 나타난 황복사탑의 중수에는 크게 3가지 기원공덕이 담겨있다. 첫 번째는 먼저 돌아가신 신문왕, 신목태후, 효소왕의 왕생을 기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임금인 성덕왕과 왕후의 現世求福的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神將의 威德으로 국가가 태평해지고 중생의 고통소멸과 菩提成就를 밝히고 있다.

855년명 昌林寺無垢淨塔願記는 9세기 중반경 신라 불탑의 건립과 관련한 매우 중요

한 자료중 하나로 현재 남아 전하지는 않지만 『慶州南山の佛蹟』의 창림사편에 소개되어 있다.[30](도 17) 먼저 주목할 것이 이 탑을 일러 "無垢淨塔"이라고 칭한 점이다.[31] 이는 무구정경에 의한 조탑이 성행하였으며 탑은 곧 무구정경을 봉납하는 곳, 혹은 무구정법식을 행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 명문의 내용[32]을 살펴보면, 국왕이 현세의 기복을 기원하면서 그 공덕으로 만물을 이롭게 하려는 무구정경의 기본사상을 담고 있다.


第七圖 昌林寺無垢淨塔願記金正喜臨寫本

(도 17) 慶州 昌林寺址발견 無垢淨塔願記, 855년, 현 소재미상
(출처 : 『慶州南山の佛蹟』, 朝鮮總督府, 1940)

이 같은 내용은 863년 건립되는 동화사 비로암 석탑의 기원내용과 통하는 면이 있다. 이 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의 명문 내용은 동화사 비로암석탑이 민애대왕의 福業을 追崇하면서 동시에 탑을 세워 업장을 소멸하여 중생에게 이익이 되려는 사상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 축서사 탑에서는 망자의 정토왕생과 속세 생령을 이롭게 하고자 무구정탑을 세웠다.[33] 仲和3年銘 사리기에서는 근본다라니법에서의 고탑중수의 방법에 따라 이전에 건립된 석탑을 883년 수리하였는데, 77기의 소탑에 다라니 77기를 써 넣어 탑 내에 봉안하였다.[34]

---

30) 昌林寺 無垢淨塔願記에 대한 것은 申龍澈, 「慶州 南山 昌林寺址 三層石塔의 考察」, 『東岳美術史學』 3호, 동악미술사학회, 2002, pp.33~36.

31) 이외 金立之撰聖住寺事蹟碑에서도 '三層無垢淨石塔'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94, p.95.

32) 「昌林寺 無垢淨塔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앞의 책, pp.326~330.

33) 「鷲棲寺 蠟石舍利函記」,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앞의 책, p.362.
'親自發弘誓, 專起佛塔, 已感淨土之業, 兼利穢國之生'

34) 「仲和三年銘 金銅舍利器記」,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앞의 책, p.377.

지금까지 무구정경에 의해 건탑, 혹은 중수로 얻어지는 공덕 내용은 망자의 추복, 생자의 기복이 주를 이루고 속세생령의 이익이나 대중의 菩提證得, 나아가 국가의 재난소멸 및 태평기원 등 무구정경의 공덕내용이 거의 막라되어 있다. 물론 해인사 묘길상탑처럼 망자의 극락왕생만을 위한 특수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망자의 추복적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現世利益的 壽福을 비는 경우가 많다.[35]

3) 『무구정경』이 신라불탑에 미친 영향

① 無限概念의 佛塔觀 성립

삼국과 통일신라초기 유행하였던 호국적 불탑관은 그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불탑 확산에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구정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건탑의 결과로 얻는 공덕이었다. 불타가 이 경을 처음 설하며 건탑을 당부한 것이 劫比羅戰茶 바라문이라는 점은 개인의 공덕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건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중요한 점은 무구정경의 불탑관은 무한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根本陁羅尼에서 설한 7십7억 여래에게 善根을 심는 것, 相輪樘陁羅尼에서 설한 9만9천곳에 상륜당을 세운다는 것, 自心印陁羅尼法에서 설한 9십9억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大功德聚陁羅尼法에서 9십9억 보배탑 보배탑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실로 인간 수의 개념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無限積聚功德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공덕을 받기 위하여 다투어 무구정탑의 건립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무구정경은 부처님의 法으로서 陁羅尼의 염송과 봉납을 설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탑의 형상이나 크기를 설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다라니만 봉납된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무한한 탑을 건립하는 결과가 된다. 단지 한 기의 탑이 無限數와 無限 功德의 개념을 지닌 탑의 건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무구정경의 특성에서 보다 많은 공덕을 위하여 무구정탑을 건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무구정탑은 크기와 형태에 관계가 없기 때

35) 이 같은 측면에서 신라사회에 유행하였던 彌陀信仰이 無垢淨經에 의한 建塔의 배경이라는 설이 있으나 미타신앙만으로 無垢淨塔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金英美, 「新羅 下代의 阿彌陀信仰」, 『新羅佛教思想史研究』, 民族社, 1994).

문에 건축구조적인 면에서는 통일신라석탑의 소형화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라하대 석탑의 소형화는 건탑적 측면에서 보다 손쉽게 탑을 건립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를 계기로 신라탑의 전국적 확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또한 기존의 탑들은 무구정경에서 강조한 古塔重修로 유지, 지속었다고 생각된다.[36]

② 無垢淨塔과 無垢淨壇

다라니를 書寫하고 念誦하며 이를 소탑 등에 넣어 탑 내에 봉안하는 작법의 시작은 無垢淨壇法에서 시작하고 있다. 제개장보살이 설법을 청할 때 부처님은 이 같은 무구정법을 "最勝無垢淸淨光明大壇場法"이라 말하였는데 이것이 곧 무구정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구정경의 법식에 따라 탑을 만들거나 중수한다는 것은 無垢淨壇을 개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壇'이라고 하는 것은 字典的 의미로 흙이나 어떠한 구조물로 위를 편평하게 하고 특수한 齋 등을 행하는 장소이므로 地面보다는 높은 곳을 의미한다. 무구정경에서 무구정단은 대공덕취다라니법, 육바라밀다라니법의 作壇法에 소개되어 있다. 먼저 대공덕취다라니법의 작단법[37]을 살펴보면, 단은 方形으로 탑 앞에 마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근본다라니법에서는 治病術로서 무구정단의 개설을 설법하고 있어 굳이 탑 앞이 아니더라도 무구정 작법을 행하려는 곳에서는 方壇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8세기 석탑에서는 무구정작법에 따른 방단이 따로 마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복사 석탑의 경우 사리함 내부에서 금동고배와 은제고배 가 각각 2점씩 발견되었는데, 이를 네 모서리에 공양품을 배치하는 無垢淨壇에 따른 봉안방식으로 보고 있다.[38]

한편 육바라밀다라니 작단법은 대공덕취다라니 작단법과 대동소이하나 세부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39] 이와 관련하여 867년(경문왕7)에 건립된 鷲棲寺 삼층석탑에서

---

36) 永泰2年銘 蠟石舍利記, 仲和3年銘 금동제사리기, 禪房寺塔誌, 황룡사 刹柱本記 등을 통하여 무구정경에 따른 重修의 내용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7) 『無垢淨光大陀羅尼經』(『大正藏』 19, 720b～c).

38) 이와 함께 불국사 석가탑의 八方金剛座를 무구정단과 연결하여 보고 있다. 물론 무구정단법을 행한 뒤 사리함 내부의 네 귀에 고배를 봉안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초기에는 사리함 자체를 무구정단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張忠植, 「韓國塔婆에 있어서 造塔經의 影響」,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社, 1987, p.130).

발견된 납석제사리호에 “作無垢淨一壇”이라는 내용에서[40] 실제로 통일신라시대에 탑을 건립하면서 이 같은 작단법이 행해졌고 경주 皇龍寺의 승 賢炬이 작단법을 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서라벌에서는 무구정경에 따른 작단법이 널리 행해졌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탑 앞에 마련된 무구정단과 鷲棲寺탑의 無垢淨一壇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까.

필자는 무구정단에 2가지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불탑을 건립할 때 경전의 내용대로 탑 앞에 方壇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탑 앞에 있는 拜禮石 혹은 奉爐臺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주목된다. 이 구조물은 탑에 예경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 예경으로는 적절치 못한 구조이다. 무구정경에서 무구정단 위에 향로나 발우 등을 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배례석으로 부르는 구조물은 불탑 건립 이후 불탑 앞에서 治病術 등을 행할 수 있는 무구정단일 가능성이 높다.[41] 일반적으로 배례석은 정면 측면이 2 : 1정도의 장방형이며 상면 중앙에는 연꽃이, 측면에는 眼象이 부조되어 장식성을 더해주고 있다.(도 18) 이 같은 구조물은 陳田寺址三層石塔, 中興寺址三層石塔, 寶林寺 三層石塔, 華嚴寺 西五層石塔, 海印寺三層石塔, 海印寺 吉祥塔 등 9세기 이후의 석탑에서 많이 볼 수 있다.(도 19) 특히 화엄사 서오층석탑은 根本陁羅尼 筆寫本과 印塔이 발견되었고[42] 해인사 길상탑의 경우에도 무구정법에 의한 탑임을 알 수 있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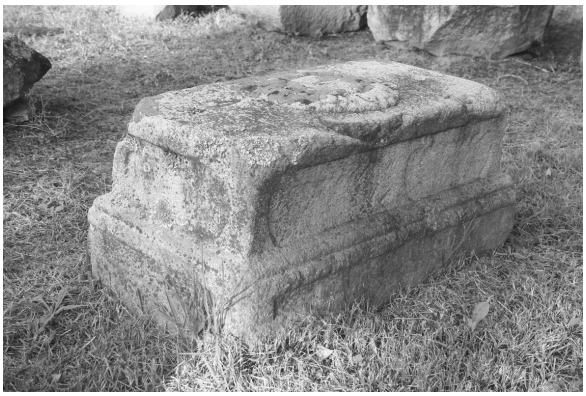
---

39) 『無垢淨光大陀羅尼經』(『大正藏』 19, 720c).

40) 「鷲棲寺 蠟石舍利函記」,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앞의 책, pp.361~362.
‘親自發弘誓專起佛塔已 感淨土之業 兼利穢國之生孝順 此志建立玆塔 在佛舍利十粒 作无垢淨一壇 壇師 皇龍寺 賢炬 大唐 咸通八年建’

41) 쌍탑일 경우 奉爐臺가 탑과 탑 사이에 있는데, 이를 무구정단으로 볼 수 있다.

42) 화엄사 서오층석탑의 유물과 그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朴智善, 「華嚴寺 西五層石塔 出土 紙類遺物 保存處理」, 『保存科學硏究』 18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崔聖銀, 「華嚴寺 西五層石塔出土 靑銅製 佛像들에 대한 考察」, 『講座美術史』 15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0.
주경미,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고찰」, 『불교중앙박물관 상설전도록』, 불교중앙박물관, 2007.



(도 18) 石造奉爐臺, 9세기, 국립경주박물관소장



(도 19) 襄陽 陳田寺址三層石塔과 奉爐臺

첫 번째 무구정단이 탑 건립 이후 행해지는 작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탑을 건립하기 전 무구정단을 만들고 그 단 자체에 탑을 건립했을 가능성이다. 9세기 이후 무구정경에 따른 조탑이 성행하면서 무구정단법이 행해졌던 鷲棲寺三層石塔을 비롯하여 9세기 중엽 이후의 탑 하층기단 아래에 지대석을 1단 더 두는 석탑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3] 이미 이중기단의 方壇을 형성하고 있던 신라석탑의 구조에서 方壇의 무구정단 위에 탑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구조였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지대석이 등장하는 탑으로는 桐華寺 金堂庵 三層石塔,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 陳田寺址 三層石塔, 奉化 西洞里 三層石塔, 단양 香山里 三層石塔, 實相寺 三層石塔, 聖住寺址 三層石塔 등이 있다.(도 20) 이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 가능한 무구정경에 따른 조탑 사례로는 동화사 금당암 석탑, 비로암 석탑, 서동리 석탑 등이 있다. 이 같은 장대석 형식에서 발전한 것이 구례 鷲谷寺 三層石塔과 같은 가구식 구조법을 지닌 지대석의 등장이다.(도 21) 이 탑은 신라석탑에서 볼 수 있는 이중기단 아래로 우주와 탱주를 지

43) 장충식 선생은 탑 자체를 하나의 무구정단으로 보고 있다(장충식, 앞의 논문, 1987, p.140).

닌 별도의 지대석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무구정단 위에 건립된 석탑이라고 생각된다.[44] 무구정경의 유행과 확산이 '無垢淨塔'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 같은 무구정단 위에 건립된 신라석탑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도 20) 大邱 桐華寺 毘盧庵三層石塔, 863년



(도 21) 求禮 鷲谷寺三層石塔, 9세기말

한편 이와는 별도로 무구정경의 유행에 따라 탑 내부에서 변화도 확인되는데, 사리공의 변화이다. 무구정경탑은 법사리로서 무구정경과 함께 77개 혹은 99개의 소탑봉납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기존 불사리와 그에 따른 사리장엄봉안과는 달리 보다 큰 사리공의 확보, 혹은 불사리와 법사리를 나누어 봉안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동일 탑 내에 2곳의 사리공을 확보하고 분할안치의 방식이 생겨났다고 생각된다.[45]

---

44) 이 같은 구조의 석탑을 '삼중기단석탑'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형식만을 분류한 글이 있다(洪永鎬, 「韓國 三重基壇石塔의 出現과 展開에 관한 試考」, 『文化史學』 10호, 한국문화사학회, 1998).

45) 무구정경에 따른 사리공의 변화에 대하여는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舍利安置場所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5집, 불교미술사학회, 2007, pp.87~89.

③ 탑돌이의 유행

공경의 사람 혹은 대상물을 오른쪽으로 3회 도는 것은 인도의 오랜 전통이었고 부처님 재세시에도 모든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던 예경법이었다. 실제로 義淨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해질녘 3회의 탑돌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한 바 있다.[46] 唐代 道世가 편찬한 『法苑珠林』, 『諸經要集』에는 탑돌이 방법과 그 공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3회의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100, 10, 7회를 도는 것임을 알 수 있다.[47] 그러나 무구정경에서의 탑돌이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根本陁羅尼法에서는 8, 13, 14, 15일에 탑을 오른쪽으로 77회를 돌면서 다라니를 77회 念誦하도록 되어 있으며 相輪樘陁羅尼法에서는 횟수는 지정하지 않았으나 오른쪽으로 돌라고 되어 있다. 반면 自心印陁羅尼法에서는 횟수는 없으나 오른쪽으로 돌면서 다라니를 108회 念誦하도록 하고 있다.

신라사회에 이 같은 탑돌이 법이 언제 정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의상이 황복사에 있을 때 여러 무리와 함께 탑돌이를 했다는 기사가 있어 7세기 후반경에는 이미 탑돌이 법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48]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다.

> 신라 풍속에 해마다 2월이 되면 '初八日에서 十五日까지' 서울의 남녀가 다투어 興輪寺의 塔殿을 도는 福會를 행하였다.[49]

이 기록에서 비록 탑돌이의 숫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탑돌이가 행해지는 날짜가 2월 8일에서 15일까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다라니법에서 설하고 있는 탑돌이 날짜와 일치하고 있다. 무구정경과 『三國遺事』에 언급된 2월 8일은 석가의 탄생일

---

46) 『南海寄歸內法傳』 卷4(『大正藏』 54, 227a).
'해질녘이나 혹 황혼 무렵에 대중들이 산문을 나서서 탑을 세 바퀴 돌고… 명철하고 웅장하며 낭랑하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다.'

47) 『諸經要集』 卷3(『大正藏』 54, 23c).

48) 『三國遺事』 卷4, 義解, 義湘傳敎條.
'湘住皇福寺時 與徒衆繞塔 每步虛而上 不以階升 故其塔不設梯磴'

49) 『三國遺事』 卷5, 感通, 金現感虎條.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遶興輪寺之殿塔爲福會'

혹은 출가일이며 15일은 석가의 열반일로 각종 경전에 적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금석문 등에 등장하는 불탑, 혹은 불상의 공역이 2월 8일 혹은 15일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석가와 의미 있는 날로 맞춰져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흥륜사의 탑돌이를 원성왕대(785～798)의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이미 8세기 말엽에 무구정경에 따른 탑돌이가 신라의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탑돌이 행사를 복을 비는 모임, 즉 福會라고 한 점은 일반 민중이 탑을 통하여 얻는 作功德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구정경에서는

>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부처님 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배하거나 공양하면 마땅히 수기를 받고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나지 않고 모든 업장과 온갖 죄업이 모두 소멸할 것이며…[50]

라고 탑돌이 공덕을 설하고 있다. 이 같은 탑돌이 福會는 비단 흥륜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구정탑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無垢淨塔으로의 황룡사 구층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구정경은 여래가 劫比羅戰茶 바라문에게 낡은 탑을 중수하라는 것에서 설법되었다. 따라서 신라인의 정신적 구심체로 붕괴위험에 처했던 황룡사 구층탑을 872(경문왕12)년 중수한 것은 무구정경에 따른 고탑수리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刹柱本記」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수사실을 말하고 있다.

> …그해 8월 12일 처음으로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 안에 다시 '『無垢淨經』에 의거하여 小石塔 99개에 각각의 석탑마다 사리 하나씩을 넣고, 陁羅尼 네 가지와 經典 1권을, 책 위에 사리 1구를 안치하여 철반의 위에 넣었다'. 이듬해 7월에 9층을 모두 마쳤다.[51]

이때의 사리장엄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99개의

50)『無垢淨光大陀羅尼經』(『大正藏』 19, 718c).
51)「皇龍寺 九層木塔 舍利函記」,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앞의 책, pp.368~369.

소탑에 4종 다라니를 넣고 상륜에 안치한 것은 大功德聚陁羅尼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구정경에 나타난 大功德聚陁羅尼法에 따르면, 이 같은 다라니법으로 탑을 중수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설하고 있다.

> 즉시 八大菩薩, 八大夜叉王, 執金剛夜叉主, 四天王, 帝釋天王, 梵天王, 那羅延, 摩醯首羅들이 손으로 그 탑과 相輪樘을 호지할 것이며, 또 구십구억 백천 나유타 항하사 부처님들이 거기 와서 탑을 加持하고 부처님 사리를 모실 것이요, 부처님이 加持하시므로 그 탑이 큰 摩尼寶와 같이 되리라. … 만일 이 탑을 보는 이는 五逆罪가 소멸되고, 탑의 풍경소리만 들어도 모든 惡業이 소멸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이 탑의 이름을 들은 이는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이르고, 나아가 새와 짐승들이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축생의 갈래에서 벗어나고 다시 짐승의 몸을 받지 아니하며 광대한 복덕을 얻게 되니라.[52]

먼저 신장들이 와서 탑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존에 탑이 있는 국토를 보호해 준다는 호국적 개념으로서 황룡사탑의 명성을 이어주는 것이다. 특히 이 탑을 보거나 풍경소리를 듣는 사람도 악업이 소멸되고 극락왕생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황룡사 구층탑의 높이를 생각해 본다면 서라벌의 모든 곳에서 이 탑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서라벌의 모든 영역이 무구정탑의 공덕으로 가득한 불국토가 되는 것이다. 결국 황룡사탑의 중수는 모든 신라인들이 이 탑을 무구정탑으로 인식하고 탑은 곧 作功德의 대상체라는 개념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기존에 호국의 개념에 머물러 있던 황룡사 구층탑을 공덕의 개념으로 환원시켜 준 대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52)『無垢淨光大陀羅尼經』(『大正藏』 19, 720c).

Ⅳ. 맺음말

한국탑파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탑파가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삼국기 불교의 전파이후 성립된 모든 탑파의 완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재질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여 여러 재질의 탑파가 제작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탑파를 대표하느 것은 역시 석탑이다.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백제의 결구식 기술과 기존 신라의 건축술이 조합되어 신라만의 독특한 석탑문화를 이루었다. 이는 곧 석탑의 완성을 이루어 전형양식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이형석탑의 탄생을 이루어 가히 '석탑의 나라'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탑파사는 석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신라 탑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탑의 발전과 확산에 있어 감은사석탑에서 나타난 신라식 二重基壇석탑의 완성과 성립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모든 신라석탑의 모범이 되었으며 나아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석탑의 기본 모티프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많은 불탑은 석조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감은사와 고선사 석탑에서 완성된 신라의 이중기단 석탑은 신라석탑만의 독특한 비례와 미감을 형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8세기 중엽경을 전후하여 이룬 신라의 조탑술은 가히 신기에 가까운 것이었고 많은 사찰의 아름다운 석불과 당간지주는 석탑 기술에 힘입은 바 크다.

둘째, 조탑경의 유행과 확산은 통일신라 탑파의 건립의 적극적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삼국기 신라에서 통일신라초기 신라불탑은 분묘의 기능, 혹은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불탑의 기능 이외에 국가 중심의 호국적 개념이 투영되었다. 그러나 조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공덕을 설하는 造塔經의 유입으로 신라불탑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무구정경은 造塔 혹은 古塔 修理로 기존의 불탑관인 호국을 비롯하여 現世祈福的인 무한공덕을 설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신라사회에 유포되었다. 특히 황룡사 구층탑의 수리는 무구정경 大功德聚陁羅尼法에 의한 것으로 一切重生成佛道라는 대승불

교의 궁극적 이상세계를 지향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무구정경이 신라사회에 널리 유포되면서 조탑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은 무구정경에 따른 탑돌이에 참여하여 탑돌이를 신라의 풍속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신라하대 무구정경의 유행으로 탑 앞에 方壇의 무구정단이 설치되었으며, 탑 기단부 아래로 1단의 지대석을 첨가시켜 "무구정탑"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탑이 국가를 수호해준다는 국가 중심적 불탑관에서 나아가 무구정경의 전래와 유포는 개인의 공덕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조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원래 초기불탑신앙은 출자가들의 신앙처가 아닌 재가자에 의한 신앙의 문제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조탑경의 유행과 이를 토대로 한 건탑행위는 불탑신앙의 환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심오한 佛敎敎學을 발전시켜 탄생시킨 통일신라만의 독창적인 탑파의 창안을 들 수 있는데, 화엄사 사사자석탑과 불국사 쌍탑 등이 대표적인 탑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은 불교교학이 발전했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조탑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석탑에 신앙적, 외호적, 장식적 조각들이 증가하면서 발달한 건축, 조각적 기술은 통일신라 말기 석조미술사의 꽃으로 평가받는 僧塔과 塔碑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韓國 古代의 舍利莊嚴

申 大 鉉*

Ⅰ. 舍利와 舍利信仰
1. 사리의 개념과 사리신앙
2. 사리의 종류
3. 舍利莊嚴의 의미
Ⅱ. 한국 사리신앙의 도입과 전래
1. 사리신앙의 도입
2. 사리장엄의 발전
Ⅲ. 한국 고대 사리장엄의 종류와 발전
1. 高句麗
2. 百濟
3. 新羅
4. 統一新羅時代 사리장엄 개관
5.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舍利信仰
Ⅳ. 맺음말

Ⅰ. 舍利와 舍利信仰

1. 사리의 개념과 사리신앙

舍利는 팔리(Pali)語 Śarīra의 한자 음역으로 釋迦佛의 身骨, 곧 석가 부처님 열반 후

* 사찰문화연구원 위원

에 茶毘하여 나온 遺骨을 말한다. 사리 외에 設利羅 또는 室利羅라고도 쓰며, 遺身·靈骨이라고도 번역한다.

B.C. 480년 무렵, 석가 부처님이 인도 쿠시나가라(Kusinagara)의 沙羅雙樹 아래에서 열반하자 제자들이 인도의 葬法대로 다비하였던 것인데, 이것을 舍利라고 하는 것이다. 제자 및 신도들은 이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佛舍利를 八分하고 탑을 세웠다. 그 뒤 훗날 아소카(Aśoka)王에 의하여 84,000粒으로 分舍利되어 인도 전역의 탑에 봉안되었고, 이로부터 佛塔뿐만 아니라 佛舍利 신앙이 비롯되었다. 이렇듯 인도에 있어서 사리는 이렇게 佛滅 직후부터 致誠供養의 대상이 되었고, 그 뒤 불교의 전파와 더불어 동양 各國으로 移運 奉安되었다.

이 佛舍利는 A.D. 1세기 무렵 중국에 불교가 전래하면서 眞身舍利가 함께 奉送되면서 중국에도 사리신앙이 전파되었다고 믿어지며, 전국 각지에 塔婆를 세우게 되면서 사리봉안을 念願하게 되었으니 사리신앙의 高潮는 곧 佛塔의 건립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이루어져 왔다.

한국에서도 新羅의 慈藏이 중국으로부터 불사리를 移運해 왔다는『三國遺事』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적어도 7세기에는 사리신앙이 삼국시대에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7세기 이후에 유행하는 建塔의 기운과 맞물려 舍利가 봉안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2. 사리의 종류

사리는 대체로 부처님의 眞身舍利를 의미하는 身舍利와 부처님의 身骨은 아니지만 정신이 깃들고 佛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는 佛經 등을 가리키는 法舍利, 또는 法身舍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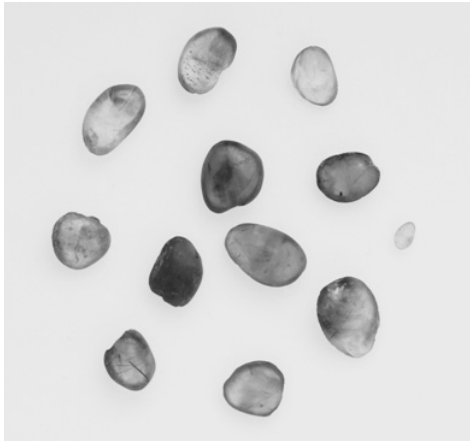
---

1) 法身이라는 것은 如如如如智 그 자체이며, 如如如如智는 모든 障碍를 제거하고 모든 善法을 갖추고자 한다고 한다(李箕永,「佛身에 관한 연구」,『韓國佛教研究』, 韓國佛教研究院, 1982. p.30). 또한 佛身에 관하여 한 經典上의 언급은『金光明經』(新修大藏經 664권)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善男子云何菩薩摩訶薩了別法身 爲欲滅除一切煩惱等障 爲欲具足一切諸善法故 惟有如如如如智 是名法身'

로 나누어진다. 法舍利는 좀 더 후대에 와서는 佛經뿐만 아니라 衣・鉢, 그리고 金・銀・琉璃・水晶・瑪瑙 등의 寶石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것은 사리란 단순한 肉身的 結晶體가 아니라 眞理 또는 佛法을 나타내는 法身的인 結晶體로서 신앙될 수 있다는 관념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身舍利와 法舍利 외에 여기에다 후대에서는 스님의 다비로 나오는 僧舍利까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사리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佛舍利 및 法舍利는 보통 탑내에 봉안하였으므로 그 塔을 佛塔이라 부르며, 僧舍利의 奉安處는 佛塔과 구별하여 浮屠라고 불렀다.

한편 眞身舍利도 全身舍利와 碎身舍利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多寶佛과 같이 全身이 그대로 사리인 것을 말하고, 열반 뒤에 다비하여 나온 사리를 碎身舍利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사리는 碎身舍利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리의 原語인 팔리語의 Śarīra는 본래 全身舍利를 뜻하는 단어이고 碎身舍利는 따로 Dhātuya라 하였으므로, Śarīra의 의미가 후대에 확대된 듯하다.



(그림 1) 미륵사지 사리장엄 발견 진신사리

3. 舍利莊嚴의 의미

舍利莊嚴은 탑파 등에 봉안되는 舍利器를 포함하는 舍利具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舍利具란 『金光明經』이나 『無垢淨經』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舍利의 무한한 功德과 福德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 發願으로써 莊嚴되는 供養具 전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리구란 직접 사리가 봉안되는 舍利容器 뿐만 아니라 기타 收藏되는 舍利供養品을 通稱하는 말이 된다.

또한 舍利器는 舍利를 봉안하기 위한 용기들로서, 사리를 직접 안치하는 舍利甁을 포함하여 舍利甁을 안치하는 舍利內函, 舍利內函을 안치하는 舍利外函, 舍利外函을 안치하는 石函 등이 모두 해당된다. 사리기의 재질은 金・銀・銅・玉・瑪瑙・琉璃・水晶・木・石・土製 등 매우 다양한데, 이른바 七寶가 전부 法舍利에 해당하므로 舍利器에는 주로 貴金屬이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사리장엄의 주요 구성요소인 舍利器는 나름대로 일정한 법식대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사리기는 外函과 內函, 그리고 舍利甁 등으로 분류된다.

외함은 舍利內函을 쌓고 있는 외부 용기로서 주로 石函이 사용된다. 중국의 경우는 唐代까지는 탑의 地下, 곧 地宮에 별도로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사리를 장치하므로 石函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석탑의 기단부・탑신부・옥개석에 사리장치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塔身石 등이 곧 석함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외함 부분에 塔誌가 있어 사리 봉안의 인연 등을 기록해 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文字는 建塔의 시기 및 사리장엄의 연도 등을 알 수 있게 하므로 매우 귀중한 자료임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경우는 仁壽舍利塔의 塔誌石이 그렇고, 우리의 경우는 신라 皇龍寺 九層木塔의 刹柱本記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혹은 塔誌石을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內函 용기 자체에 기록을 새기기도 하는데, 慶州 皇福寺 金銅 箱子形 內函 蓋部의 내부 표면에 기록된 銘文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내함은 舍利甁을 안치하는 용기인데, 형태가 盒形・壺形・覆鉢形・圓筒形・甁形 등이 있고, 材質은 주로 金・銀・銅・靑銅・水晶・蠟石 등이다.

이렇게 사리함이 내함・외함 등으로 나누어지는 배경은 석가 부처님의 입멸후 그 遺身이 외함으로 鐵槨을, 그리고 내함으로 金棺을 사용하여 안치되었다는 경전상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2)]

내함 안에는 직접 사리를 봉안한 사리병이 놓이게 된다. 사리병은 유리제품이 가장 많고, 그밖에 水晶・金・銀・金銅・靑銅・琥珀・瑪瑙 등도 있다.

---

2) 新修大藏經 2041卷『釋迦氏譜』p.94의 b.
'…又出北門 度熙連河 天冠寺中 各嚴中具 以輪王法供辦葬具 香水浴己 劫具周纏 內金棺中 外鐵槨盛 沈檀名香上 將欲加火 而天滅之 持迦葉故…'.

Ⅱ. 한국 사리신앙의 도입과 전래

1. 사리신앙의 도입

우리나라에 있어 불사리 신앙은 인도・중국에 못잖게 예로부터 널리 성행되었다. 한반도에 처음 불사리가 전래된 나라는 기록에 의하면 新羅로서 중국의 使臣 및 중국 留學僧들에 의하여 전래되어 왔다. 곧『三國史記』「新羅本紀」 권제4 <眞興王>조에, '眞興王 10年(549) 봄 중국 南朝인 梁에서 신라의 入學僧 覺德과 동행하여 사신을 파견하면서 불사리를 奉送하므로 왕은 백관이 함께 경주 興輪寺의 앞길에 나가 이를 맞아 들였다.'라고 하는 사리 전래에 대한 최초의 기사가 있다.[3)]

이 불사리는 大邱 桐華寺에 1,200과가 봉안되었으며, 582년(진평왕 4)에 나머지 불사리를 여러 사찰에 分安하였다.[4)] 한편 1,200과라는 다량의 불사리에 대해 이것은 變身舍利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三國遺事』卷第3 <前後所將舍利>조에 '貞觀 17년(643)에 자장법사가 당으로부터 佛頭骨・佛牙・불사리 100粒과 부처의 緋羅金點 한 벌을 가져왔고, 그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皇龍寺塔에 두고, 하나는 太和寺塔에, 하나는 가사와 함께 通度寺의 戒壇에 두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있는 곳을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부터 신라시대에 있어서 불사리 신앙이 더욱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863년(경문왕 3)에는 景文王이 閔哀王을 위하여 동화사에 석탑을 세우고 사리 7粒을 봉안하였으며, 875년(헌강왕 1)에는 三剛스님이 탑을 금당으로 옮겨 봉안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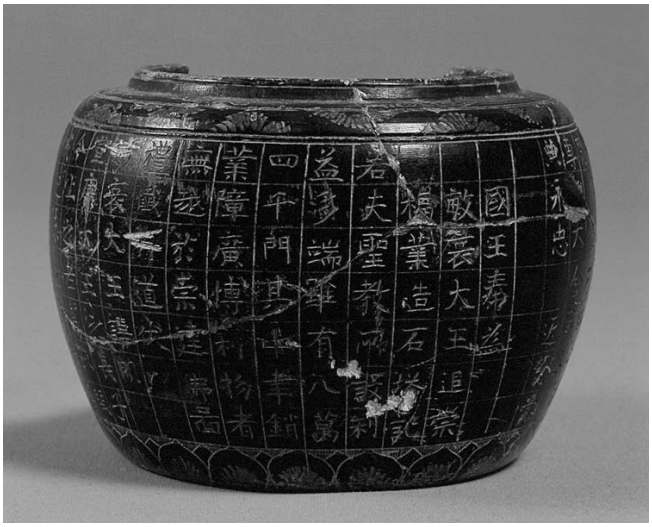
---

3)『三國遺事』卷第3, 塔像 第4, 前後所將舍利條.
'國史云 眞興王大淸三年 己巳梁使沈湖送舍利若干粒'

4) 許薰,「金堂塔記」(『朝鮮佛教通史』下編 p.1017에서 인용).
'達城郡八公山桐華寺金堂塔奉安世尊舍利'.

5)『朝鮮佛教通史』, 金堂塔世尊舍利條.
'景文大王 奉爲閔哀大王 又安舍利七粒於本寺 創立石塔 憲康大王元年乙未 卽唐乾符二年 釋三剛 移塔于金堂 以奉安焉'.

이렇듯 문헌기록에 의하여 신라시대 불사리 신앙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신라시대에 있어 佛舍利를 봉안한 탑은 皇龍寺 구층탑을 위시하여 총 13기의 탑이며, 여기에 1,300여 사리를 봉안하였다.



(그림 2) 자장율사가 가져온 불사리를 봉안한 동화사 석탑 사리장엄

2. 사리장엄의 발전

삼국 중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신라는 고도로 발달한 공예 기술로 훌륭한 사리장엄구를 다수 남기고 있다. 신라의 사리 신앙은 이후로 신라 왕실과 신라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행한 사리 신앙에 의해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삼국유사』에 보이는 신라의 사리 신앙 및 사리 장엄 관련 기사에 많이 기재되어 있다.

『三國遺事』「興法」第3 <原宗興法厭髑滅身>조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절들은 별처럼 벌려 있고 탑들은 기러기처럼 늘어서 있다는 유명한 대목은 우리나라 초기 불교에서 탑에 안치한 사리에 관한 신앙이 얼마나 강하게 뿌리 내렸는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또한

「塔像」<遼東城育王>조에, '育王이 귀신의 무리에게 명하여 매양 9억 명이 사는 곳마다 하나의 탑을 세우게 하고, 이와 같이하여 염부계 안에 8만 4000개를 세워 큰 바위 가운데 숨겨두었다고 한다. 지금 곳곳마다 상서가 나타남이 한둘이 아닌데, 대개 진신사리는 感應을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육왕의 보탑이 온 속세에 널려 비에 젖고 구름에 묻혀 이끼가 끼었다는 讚을 했다'는 기록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다.[6]

신라에서는 불사리에 대한 신앙이 왕실에도 활발했는데, <前後所將舍利>조에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당나라 大中 5년에 入朝使 元弘이 佛牙를 가지고 왔고, 大宋 宣和 원년 기묘에 鄭克永과 李之美 등이 佛牙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內殿에 봉안한 것이 그것이다.'[7] 라는 대목과, '사신들이 이미 불아를 얻어와서 아뢰니 睿宗이 크게 기뻐하며 十員殿 좌측의 小殿에 봉안한 다음 항상 자물쇠를 채우고 밖에 향등을 달아, 매양 친히 행차하는 날에는 전각을 열고 예배하였다.'[8]는 내용이 그것이다.

한편 불사리장엄 안치 방법에 대한 관련 기록은 <前後所將舍利>조에 나오는데, '金瑞龍의 집 담장 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려 불을 켜들고 조사해 보니 불아함이었다. 함은 본래 가장 안쪽은 沈香合, 다음 겹은 순금합, 다음 겹은 백은함, 다음 겹은 유리함, 다음 겹은 螺鈿函으로서 각 幅子도 같았는데 지금은 단지 유리함뿐이었다.'[9]는 것이다.

---

6) 『三國遺事』 卷第4, 塔像, 遼東城育王條.
'…按古傳 育王命鬼徒 每於九億人居地 立一塔 如是起八萬四千於閻浮界內 藏於巨石中 今處處有現瑞非一 蓋眞身舍利 感應難思矣 讚曰 育王寶塔遍塵寰 雨濕雲埋蘚繡班 想像當年行路眼 幾人指點祭神墦…'.

7) 『三國遺事』 卷第4, 塔像, 前後所將舍利條.
'唐大中五年辛未 入朝使元弘所將佛牙[今未詳所在 新羅文聖王代] 後唐同光元年癸未 本朝大祖卽位六年 入朝使尹質所將五百羅漢像 今在北崇山神光寺 大宋宣和元年己卯[睿廟十五年] 入貢使鄭克永 李之美等所將佛牙 今內殿置奉者是也'.

8) 『三國遺事』 卷第4, 塔像, 前後所將舍利條.
'乃佛牙函也 函本內 一重沈香合 次重純金合 次外重白銀函 次外重瑠璃函 次外重螺鈿函 各幅子如之 今但瑠璃函爾 喜得之 入達于內 有司議 金瑞龍及兩殿上守皆誅 晉陽府奏云 因佛事不合多傷人 皆免之 更勅十員殿中庭 特造佛牙殿安之 令將士守之 擇吉日 請神孝寺上房薀光 領徒三十人 入內設齋敬之'.

9) 『三國遺事』 卷第4, 塔像, 前後所將舍利條.
'夜中瑞龍家園墻裏 有投擲物聲 以大檢看 乃佛牙函也 函本內 一重沈香合 次重純金合 次外重白銀函 次外重瑠璃函 次外重螺鈿函 各幅子如之 今但瑠璃函爾'.

또한 <伯嚴寺石塔舍利>조에는 '咸雍 원년 11월에는 이 절의 주지 득오미정 대사 석수립이 절의 상규 10여조를 정하고 새로 5층 석탑을 세워서 진신불 사리 42매를 맞이하였으며, 私財로 寶를 세워서 해마다 공양하였다.'[10]고 되어 있어 활발히 이어지는 정기적인 사리 공양 의식을 짐작하게 한다.

그 뒤『三國史記』「新羅本紀」卷4 <眞興王>37년조에 보면, 576년에 安弘이 陳에 가서 佛法을 배우고 귀국할 때『楞伽經』·『勝鬘經』등의 불경과 함께 불사리를 갖고 와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다.[11]

고구려와 백제의 舍利將來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고구려의 경우 平壤 청암리의 절터가 초기의 사원인 金剛寺로 추정되고 있는데 一塔式 가람배치로 8각의 탑파가 중심에 놓여 있다. 백제는 軍守里 寺址에 탑지의 유구가 남아 있다.『北史』「百濟傳」에서는 '有僧尼多寺塔'이라는 기사가 있으며, 또는 588년(위덕왕 35)에 불사리를 일본에 전한 내용을 보아 직접 사리 전래의 기록은 없으나, 탑파 건립이라는 것은 사리 전래의 인연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두 나라에도 사리의 전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근래에 昌王銘 舍利龕이 발견된 것을 필두로, 부여 왕흥사지와 익산 미륵사지에서 각각 사리장엄 일체가 그대로 발견되면서 백제 사리장엄의 면모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 뒤 高麗에서도 사리 신앙은 매우 성행하였으며, 崇儒抑佛의 시대였던 朝鮮에서도 초기에 사리 신앙은 王室을 중심으로 매우 성행하였다. 특히 太祖는 서울 興天寺에 舍利閣을 짓고 사리를 봉안하기도 하였다.[12]

1398년 明 太祖가 사신 黃儼을 시켜 조선에서 사리를 구하므로 태조가 各道 監司에 명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사리를 구해 오도록 하였는데, 이 때 충청도에서 45매, 경상도에서 164매, 전라도에서 155매, 강원도에서 90매를 모았으며, 또한 태조 자신이 지니고

---

10) '咸雍元年十一月 當院住持得奧微定大師釋秀立 定院中常規十條 新竪五層石塔 眞身佛舍利四十二粒安邀 以私財立寶 追年供養'.

11)『三國史記』, 新羅本紀 卷4, 眞興王37年條.
'…三十七年 春…安弘法師 入隨求法 與胡僧毗摩羅等二僧廻 上稜伽勝鬘經及佛舍利…'.

12)『太祖實錄』卷第14, 太祖 7年 5月 1日條.
'五月丁未朔 上如興天社 命營舍利殿三層于社北 募各領隊長隊副 自願者五十人給糧赴役'.

있던 303매를 함께 바쳤다는 기사가 있다. 이 기록으로 보면 당시 조선에 상당량의 사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록에 나오는 사리가 전부 불사리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 만큼 우리나라에 사리 신앙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하고 하겠다.

世祖 역시 불사리에 대한 신앙이 깊어 양평 龍門寺를 중창하고 사리탑을 세웠으며, 양주 水鍾寺를 창건하고 사리탑을 세웠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 洛山寺에서 삼칠일 기도 끝에 사리를 얻어 紅蓮庵에 봉안하는 등 세조가 세운 사리탑이 수십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후로도 조선에서는 사리 신앙이 매우 성행하여, 어떤 경우에는 佛像보다 眞身舍利에 대한 신앙의 정도가 컸던 예도 많이 보인다.

Ⅲ. 한국 고대 사리장엄의 종류와 발전

한국 고대 사리장엄 중 감은사 및 송림사 사리장엄으로 대표되는 寶閣形 사리장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태의 구조와 조형 면에서 우리 고유의 창의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물론 이러한 조형성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感恩寺 및 松林寺 사리장엄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상을 안치하는 중국의 牀帳式 佛座를 사리 용기에 창조적으로 응용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식이 일본에서는 法隆寺의 금당 내에서처럼, 箱子形 天蓋가 되어 小宮殿의 龕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쪽에서만 보는 龕이 아니라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오히려 장막을 걷어 개방적으로 사리병을 牀帳式 佛座에 안치하였는데 이것이 야말로 신라적인 독창성이라 하겠다.

한국에 사리신앙 및 진신사리가 들어온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以下에서는 한국 고대의 사리장엄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갔는가를 시대별로 槪觀했다.

앞서와 같이 사리 및 사리신앙은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리장엄구의 실례로는 芬皇寺 사리장엄을 제외하고는 現傳하지 않는다. 따라서 삼국시대 사리장엄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문헌에 보이는 것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국은 불교 전래 후 저마다 불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중국 隋代에 세워진 仁隋 舍利塔을 세울 무렵 고구려・백제・신라에서 각각 사신을 보내어 불사리를 奉送하여 갔음을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高麗百濟新羅三國 使者將還 各請一舍利於本國 起塔供養 詔並許之'
(高句麗・百濟・新羅의 사신이 각각 본국에 가져가서 탑을 세워 봉안할 사리 1매씩을 청하니, 항제가 詔書를 내려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삼국이 얼마만큼 사리를 원하였고, 또한 그 만큼 사리신앙이 유행했었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다.

1. 高句麗

고구려의 경우는 現傳하는 사리장엄구 유품은 물론, 관계 기록도 전혀 전하지 않는다. 다만 最古의 목탑 중 하나로 알려진 平壤 청암리 塔址가 있어 사리장엄의 藏置가 상상되지만 역시 遺品은 없다.

2. 百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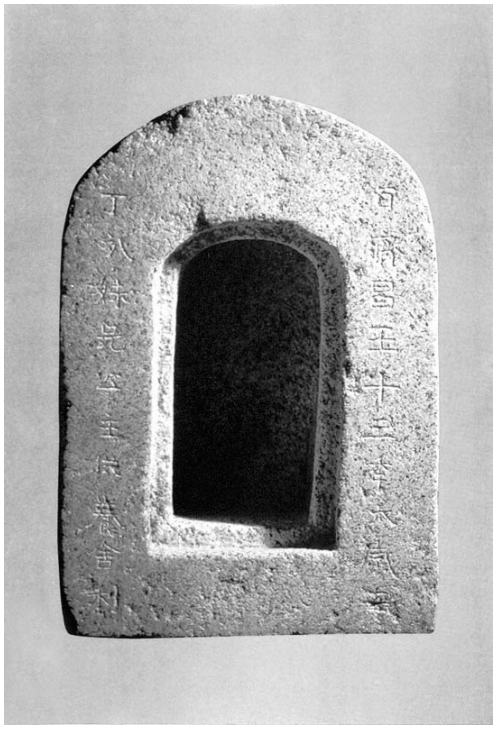
백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최근 부여 왕흥사지와 익산 미륵사지에서 완비된 사리장엄 일체가 발견되기까지는 사리장엄의 용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 전에는 충남 부여 軍守里寺址 木塔址 心礎石 위에서 蠟石製 여래좌상과 금동 보살입상이 발견

되어 함께 사리장엄의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 부여 金剛寺址 목탑 심초석에서 竹製 소쿠리가 발견된 바 있어 역시 사리장엄의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에 대한 유적 지표조사 결과 天王寺址에서 塼塔의 舍利孔으로 추정되는 石材가 발견되어 백제 사리장엄 시설의 遺例 가운데 하나로 넣을 수 있다.

그밖에 비록 실물이 아니라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상세한 백제시대 사리장엄의 내용이 있다.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에 보면 전북 益山의 帝釋寺 목탑 심초석에 불사리를 봉안한 水晶甁과 銅紙에 寫經한 『金剛般若經』 등이 木漆函과 石函에 納置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최근 발견된 왕흥사지와 미륵사지 사리병과 관련되어 백제 사리장엄의 형식에 대한 여러 知見을 던져주고 있다.

1) 부여 능산리 창왕명 석조 사리감

최근 새로운 유물이 잇달아 발견됨으로써 백제 사리장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비약적으로 넓혀주고 있다. 그 시초는 1995년 충청남도 부여 陵山里 寺址에서 발견된 백제 「昌王銘 石造 舍利龕」이다. 이 사리감은 사리를 안치했던 시설로서, 비록 사리용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삼국시대 사리장엄의 매우 드문 실물이거니와 567년에 사리를 공양했다는 銘文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사리장엄의 例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 3)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된 창왕명 석조 사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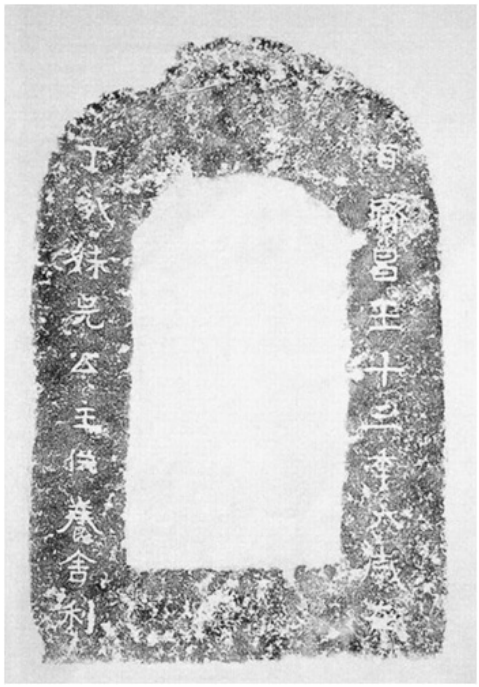
이 사리감은 백제 금동 大香爐가 발견되었던 능산리 사지 중앙부에 자리하는 동서 11.3m, 남북 11.79m의 木塔址 중앙의 심초석 위에서 45°정도 기울어진 상

태로 발견되었다. 사리감의 크기는 高 74㎝, 幅 50×50㎝에 화강암이며,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윗면이 둥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마치 오늘날의 우체통처럼 생겼다. 이러한 모습은 인도 및 중국・일본에도 類例가 없어 백제만의 독특한 사리장엄의 시설로 보인다. 이 사리석함이 목탑지 심초석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면 불상에 있어서 願佛처럼, 백제 상류층의 사리신앙에 따른, 사찰이 아니라 개인적 공간에 봉안하기 위한 사리봉안 시설로 추정해 볼만할 정도로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 사리감의 양쪽 면에는 각각 10자씩 隷書風의 楷書體로 다음과 같이 刻字되어 있어 사리봉안의 내용을 알 수 있다.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

이것은 567년(위덕왕 14)에 昌王의 妹兄과 公主가 함께 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으로, 549년(진흥왕 10) 慈藏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신라로 처음 사리가 奉送된지 불과 18년만에 백제에서도 독자적으로 사리를 봉안할 만큼 佛舍利 신앙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림 4) 창왕명 사리감 명문 탑본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사리감의 출토 당시에는 이미 龕이 폐기된 상태이므로 사리용기가 없어 정확한 舍利藏置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昌王은 곧 威德王으로『三國史記』「百濟本紀」<威德王>조에 '威德王 諱昌 聖王之元子也'라고 되어 있다.

사리감의 양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上圓下方의 아치형 윗면에 바닥이 납작한 터널형이며, 그 내부에 사리를 안치하고 門을 설치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뒷면도 앞면과 같이 아치형의 龕室이 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작 과정 중 폐기한 듯하다.

2)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



(그림 5) 왕흥사지 목탑 사리공

王興寺址는 백제의 궁실이었던 泗沘城에서 북서쪽으로 약 1㎞ 거리에 자리한다. 泗沘城과의 사이에는 白馬江이 흐르고 있다. 백제멸망과 함께 廢寺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왕흥사는 이후 기록으로만 전해지다가 1934년 지금의 자리에서 '王興'銘 기와가 출토됨으로써 비로소 이곳이 문헌에 나오는 왕흥사의 터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0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비로소 정밀 발굴이 실시되었다. 이후 2007년 현재 모두 8차례의 부분발굴이 이루어져 지금은 寺域의 규모와 가람배치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지금에 와서는 2007년 사리장엄이 출토된 것을 계기로 泗沘(扶餘) 천도 이후 백제 최대의 사찰이자 왕실의 願刹로 그 의의와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사역에 대한 완전



(그림 6) 왕흥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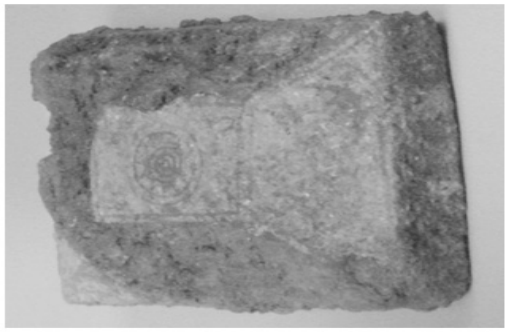
한 발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2008년 현재 金堂址 등 주요 부분에 대한 발굴이 완료된 이후 주변 지역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왕흥사 사리장엄과 일본 아스카寺 사리장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예컨대 아스카사는 일본 유일의 1탑 3금당식이고, 왕흥사는 탑과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연결된 四天王寺식으로 보이나 회랑의 동서에 있는 부속건물이 후일, 아스카데라를 지을 때 금당으로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13]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① 왕흥사지 사리장엄의 구성

a. 뚜껑

왕흥사 목탑지의 사리공 石蓋는 화강암이며 가로 25㎝, 세로 19㎝, 두께 8㎝로 평면은 직사각형이다. 단면은 上面이 위를 향해 줄어들어 최상부가 평평하게 된 사다리꼴의 지붕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형태는 感恩寺 동서 삼층석탑에서 나온 舍利內函과 類似해서 주목된다.



(그림 7) 왕흥사지 사리장엄 뚜껑(石蓋)

b. 외함(청동 사리함)

청동제 원통형이며 뚜껑과 胴體部가 별도로 제작되어 합쳐져 있다. 동체부 앞면에는 사리를 봉안한 배경을 적은 29자가 있다.

---

13) 2008년 4월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절로 알려진 나라의 아스까데라의 원형은 부여 왕흥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에는 와세다 대학의 오호하시 가츠아끼(大橋一章) 교수 등 일본연구팀이 왕흥사 사리장엄 발견 이후 유적지를 조사한 결과 거기서 출토된 기와의 문양과 탑의 구조 등이 아스까사의 유물과 거의 일치하다는 내용이다. 오호하시 교수는 두 절이 동일한 기술자에 의해 창건되었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연구에 참가한 국학원대학의 鈴木靖民(스즈끼 야스타미) 교수는 아스카사 창건은 백제왕과 왜왕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의미하며, 역사서에 당시 권력자였던 소가노 우마꼬(蘇我)가 낙성식에서 백제의 의복을 입고 참렬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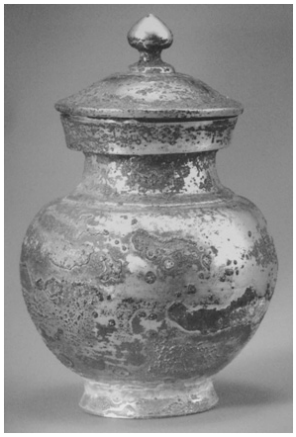
성분은 銅과 朱錫으로 합금된 청동제품으로, 뚜껑 위에는 연봉형 꼭지가 있고, 꼭지 아래로 여러 개의 접합흔적이 남아 있어 처음에는 여기에 꽃 장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동사리함의 꼭지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잔탁의 꼭지와 형태와 디자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c. 은제사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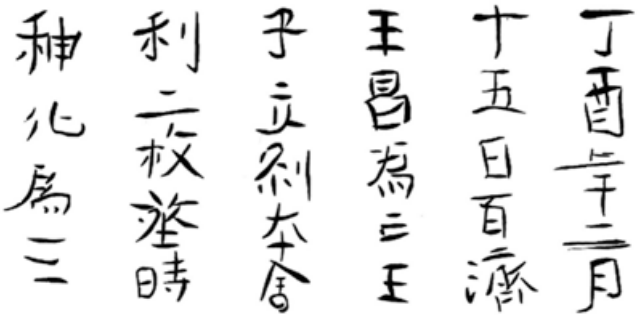
銀製舍利壺(높이 6.8㎝, 동체 최대지름 4.4㎝)는 청동사리함 내부에 놓여 있었다. 99%이상 純銀으로 판명. 球形 胴體에 꼭대기에는 寶珠形 손잡이가 달려 있고, 그 아래 뚜껑 상면과 닿는 부분에는 음각으로 8葉의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내부 바닥면에는 금제사리병을 올려놓기 위한 받침대가 마련되어 있다.



(그림 8) 청동 사리함



(그림 9) 왕흥사지 은제사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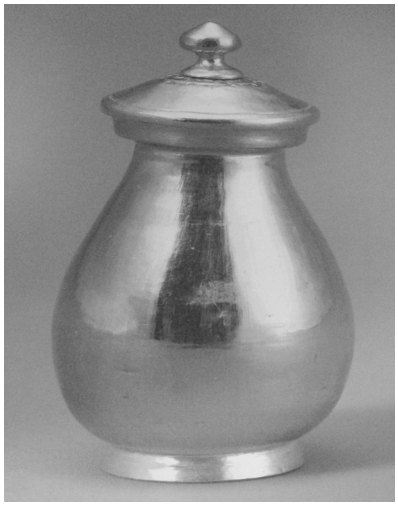


(그림 10) 왕흥사지 청동외함에 새겨진 명문

d. 금제 사리병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중 금제 사리병은 은제사리호 안에 놓여 있었다.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금제 사리병으로, 높이 4.6㎝, 동체 최대지름 1.5㎝이다. 외부 바닥에 굽이 달려 있고 동체 하부가 불룩하게 튀어 나와 있어 마치 琉璃甁의 형태를 방불케 한다. 이에 대해서 이 사리병을 만들 당시 아직 유리용기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금으로 만든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그림 11) 왕흥사 금제사리병

② 왕흥사지 사리장엄의 의미

왕흥사지 사리장엄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리장엄 중 最古의 예이며 백제 사리장엄의 완전히 갖춰진 유일한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사리장엄의 발견 전까지는 부여 군수리사지 목탑지 심초석(蠟石製 여래좌상과 금동 보살입상), 부여 金剛寺址 목탑 심초석(竹製 소쿠리), 경기도 하남시 天王寺址에서 塼塔의 사리공 등만 알려져 있다. 절대연대를 지니는 고고학적 자료로서, 泗比時期 백제 문물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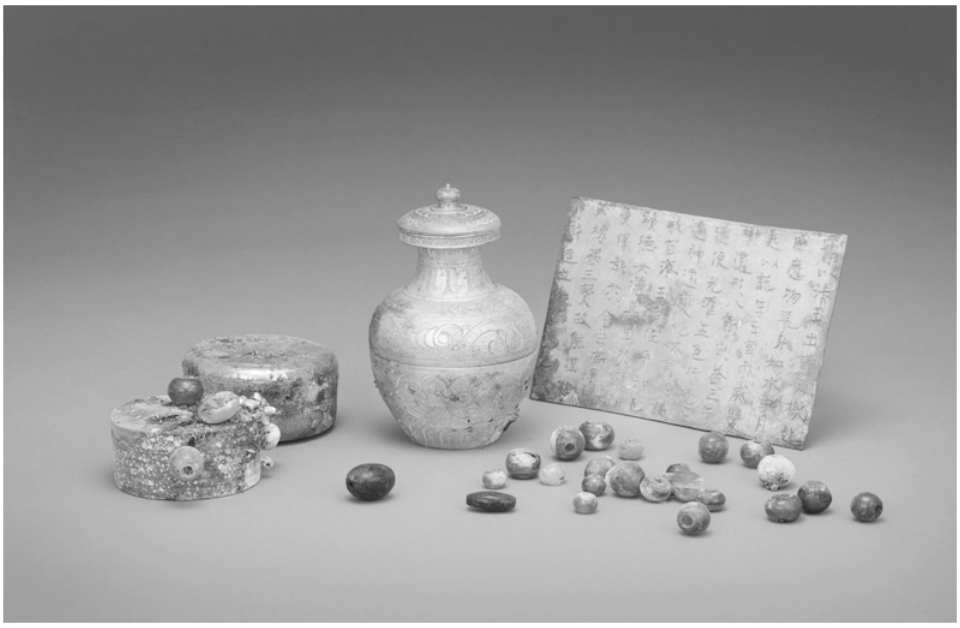
또한 이들 공양품이나 사리기는 명백히 백제 자체 기술로 제작됐으며, 그 수준이 대단히 높다. 무령왕릉 출토품과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상호 전승관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제작된 것을 수입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여 능산리 절터 백제금동대향로를 백제 장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쾌한 방증자료가 되는 등, 백제의 뛰어난 공예기술을 알 수 있다.

왕흥사 목탑 기단을 구축한 기술과 사리용기, 그리고 사리장엄이 봉안 형식으로 본다면 중국 남북조 및 고대 일본과 밀접한 관련. 이를 통해 중국 남북조의 영향도 살필 수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왕흥사 사리기의 국제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

2009년 1월 西석탑 1층 탑신 내부의 중앙 심초석 상면 중앙의 사리공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되었다. 사리장엄 봉안 방식은 외부 석함부터 시작해서, 금동 사리호 → 금제사리병 → 유리사리병의 순서로 봉안되었다.

또한 금판으로 만든 사리봉안기가 발견되어서 사리장엄을 만든 당시의 정황을 잘 알려주고 있는 점도 이 미륵사 사리장엄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요인이다. 사리봉안기의 내용은 무왕이 선왕인 법왕을 위하여 무왕의 부인인 '沙宅積德女'가 주축이 되어 미륵사를 주축하고 탑을 세웠다는 이야기다. 또 탑을 세운 해가 639년으로 되어 있어 『삼국유사』의 600년 창건설과 배치된다. 이 때문에 『삼국유사』에 나온 무왕과 선화공주와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림 12) 미륵사지 서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그림 13)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금제 사리봉안기

3. 新羅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에서는 경주 芬皇寺 模塼塔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이 現傳 唯一例에 속한다. 皇龍寺 九層木塔址에서도 사리장엄이 조사되었으나 삼국시대에 봉안한 사리장엄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일후 9세기대에 구층탑을 중건할 때 納置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다만 871년(경문왕 11)에 넣은 刹柱本記 가운데 황룡사를 창건한 645년(선덕여왕 14)에 '金銀高座' 위에 '舍利琉璃甁'을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當代의 사리장엄 형식 및 내용의 一端이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창건 당시의 사리장엄이 9세기 중건시 再納置 때 제외되어 없어졌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황룡사의 寺格으로 미루어볼 때 이때의 사리는 곧 불사리일 것이고, 사리장엄구 역시 最高의 수준으로 만들어 봉안하였음에 틀림없을 듯하다.

분황사 석탑 사리장엄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관계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출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다. 출토 유물은 2층 탑신과 3층 옥개 사이의 석함에서 발견되었는데 사리장엄 외에 銅製 가위, 枕筒 및「常平五銖」·「崇寧通寶」

등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貨幣 등이 있었다. 동제 가위와 침통은 분황사를 창건한 善德王의 私物이 아닐까 추정되며, 화폐 등 고려시대 유물은 이 탑을 수리할 때 봉안한 것이다. 사리장엄은 석함 내 銀盒과 그 안에 봉안된 琉璃甁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매우 간략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舍利 5顆는 비단에 싸여져 있었고, 유리병은 깨진 채 뉘어 있었다. 아마도 고려시대 중수시 사리병이 깨졌거나 이미 깨져있어 이렇게 사리를 별도로 비단에 싸서 재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 고대의 사리장엄에서 유리병에 사리를 직접 안치하는 방식대로 역시 사리병이 등장한다는 점과, 사리장엄의 多重容器로서 石函 → 銀盒 → 舍利甁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4. 統一新羅時代 사리장엄 개관



(그림 14)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 외함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三國時代의 전형적인 사리봉안 방식이 다소 변형, 발전되어 한국 고유의 사리장엄 방식으로 확립되어 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사리장엄 용기 형태의 조형이 인도·중국과는 확실히 달라진 형태가 나오며, 여러 가지 모습의 사리장엄이 등장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사리신앙 자체는 오히려 더욱 高調되어 불사리를 佛身과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사리가 존숭되어 갔던 점은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이 화려해지고 다양화되며 보편적인 현상이 된 배경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現傳하는 사리장엄을 보더라도 삼국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이 알려져 있어 여

기에서도 통일신라시대 사리신앙의 유행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14]



(그림 15) 송림사 전탑 사리장엄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사리장엄은 경상북도 경주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및 漆谷 松林寺 사리장엄을 필두로, 佛國寺 삼층석탑 사리장엄, 羅原里 오층석탑 사리장엄, 皇福寺 삼층석탑 사리장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시기적으로도 7~8세기에 해당하여 現傳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高古한 사리장엄의 하나로 꼽히며, 형태면에서도 이른바 寶閣形 사리기, 箱子形 사리기 등 한국적 사리기의 형태의 始源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공예적으로 보아서도 예컨대 송림사 및 감은사 사리장엄의 경우 통일신라 공예를 대표할만한 우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우리나라 사리장엄의 시원을 이루는 7~8세기대 사리장엄 가운데 봉안연대가 확실한 작품은 곧 當代의 기준작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목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1)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의 實例

感恩寺 동서 삼층석탑은 사찰 완공이 682년(신문왕 2)이므로 同年에 사리장엄이 이루

14) 현재 통일신라시대의 사리장엄으로는 약 60基가 알려져 있으며, 그 가운데 사리장엄이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채 발견된 것은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皇福寺 삼층 석탑, 松林寺 오층석탑, 官宮寺 오층석탑, 佛國寺 석가탑, 葛項寺址 동서 삼층석탑, 傳南原 출토 사리장엄, 浦港 法光寺 삼층석탑, 西洞里 동 삼층석탑, 長淵寺址 동 삼층 석탑, 安東 玉洞 臨河寺址 塼塔址, 安東 臨河洞 삼층석탑 등이 있다.

어졌음이 거의 틀림없으며, 皇福寺 삼층석탑은 사리외함 蓋部에 打出된 銘文에 의하여 706년(성덕왕 5) 봉안을 알 수 있어 확실한 기준작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놓여 있는 경상북도 金泉 原在의 葛項寺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도 탑 기단부에 새겨진 銘文에 의하여 758년(경덕왕 17)에 봉안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불국사 삼층석탑도 사리장엄과 함께 伴出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제작 하한년도가 751년이므로 8세기 작품임이 분명하여 역시 8세기 기준작의 하나로 놓아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한편 탑 사리장엄은 아니지만 경상남도 山淸의 石南寺址 비로자나불 臺座 내에 봉안되었던 蠟石製 舍利壺는 銘文에 의해 766년 제작이 銘記되어 있는데다가, 금속기나 琉璃製가 아닌 蠟石製 사리구의 시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같은 해에 봉안된 傳安城 출토 永泰二年銘 청동 사리병 역시 紀年銘이 있어 확실한 기준작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 영태2년명 사리장엄

9~10세기로 들어서면 보다 많은 사리장엄구의 實例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리신앙의 弘布와도 관련 있을 것이다. 먼저 봉안년대가 확실한 사리장엄으로는 846년(문성왕 8)에 봉안된 경상북도 浦港 法光寺址 삼층석탑 사리장엄을 필두로, 대구 동화사 毘盧庵 삼층석탑 사리구, 경상북도 奉化 鷲棲寺 삼층석탑 사리구, 전라남도 長城 寶林寺 동서 삼층석탑 사리구, 仲和 3年銘 사리기, 경상남도 陜川 海印寺 吉祥塔 사리구, 그리고 10세기의 작품으로 997년명의 塔誌石이 있는 長命寺 오층석탑 사리구 등이 있다.

銘記는 없으나 탑파의 양식으로 보아 사리장엄도 9세기로 추정되는 작품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아 傳南原 출토 사리장엄, 경상북도 慶州 東川洞 출토 청동 사리기, 安東 玉洞 臨河寺址 塼塔址 사리장엄, 安東 臨河洞 삼층석탑 사리장엄, 義城 氷山寺址 오층석탑 사리구, 奉化 西洞里 東삼층석탑 사리구, 傳桐華寺 塔 출토 蠟石製 사리호, 龜尾 桃李寺 世尊浮屠 사리구, 聞慶 內化里 삼층석탑 사리장엄, 淸道 長淵寺址 東삼층석탑 사리구, 경상남도 咸陽 昇安寺址 삼층석탑 사리구, 충청남도 公州 東院里 삼층석탑 사리구, 공주 水源寺 塔址 사리구, 瑞山 普願寺址 오층석탑 사리구, 강원도 襄陽 禪林院址 삼층석탑 사리구, 平昌 月精寺 팔각구층석탑 사리구, 광주광역시 西오층석탑 사리구, 전라남도 順天 桐華寺 삼층석탑 사리구, 전라북도 金堤 金山寺 오층석탑 사리구 등이 있다.

2) 感恩寺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

1959년에 西塔, 그리고 1996년에 東塔을 해체 수리하던 중 각각 금동 사리장엄이 발견되었다. 이 금동 사리장엄은 국내에 전하는 사리장엄 중 最古의 유물일 뿐만 아니라 공예적으로도 고대 한국의 사리장엄을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평가되는데, 서탑 사리장엄은 발견 직후 국보 제336호로 지정되었고 동탑 사리장엄 역시 최근에 조사보고서가 출간되었으며 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동서 삼층석탑 각각의 사리 장엄은 양식면에서 서로 거의 類似하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최근에 발견된 서탑 사리 장엄구를 위주로 설명을 하였다.

먼저 감은사 삼층석탑 사리 장엄구의 전체적 형태를 槪括해 보면, 크게 2중 구조로서 外函과 사리를 직접 봉안한 寶閣形 內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외함 및 내함은 서로 分離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함이 외함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겉에서 볼 때 마치 하나의 사리구로 보이도록 되어 있다.

외함은 長方形의 箱子에 方錐形 뚜껑이 덮인 형태로 函體 四面 중앙에는 惡靈鬼와 羊을 밟고 있는 四天王像이 浮彫로 장식되었다. 그리고 사천왕상 좌우에는 鬼面 문고리 장식을, 上下 4곳에는 雲紋을 배치하였다.

내함인 전각형 사리기는 기단부 四面에 透刻된 8개의 眼象을 놓고 그 안에 供養菩薩

및 神將 4구를 좌우에 각각 배치하였고, 기단 위에는 欄干을 두른 후 중앙에 舍利甁座를 두고 주위에 四天王과 僧像을 週回하여 세웠다.[15] 사리병은 밑에 다리가 달린 覆鉢形 容器 위에 놓였는데, 이 용기 上端 중앙 정상부에 火焰寶珠가 놓여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방형의 기단 위에 竹節形 기둥 4개가 세워지고 그 위에 天蓋가 얹힌 전각형 구조를 하고 있다. 또한 뚜껑에는 天人을 싣고 飛天하는 瑞鳥를 4면에 각각 장식하고 중앙부에는 연주로 장식된 環形의 손잡이를 달아 마감하였다.



(그림 17) 감은사 동탑 사리장엄 외함

① 外函體의 사천왕상

외함 함체의 四壁面은 사천왕상이 주된 문양 장식으로 배치되었고 그 밖에 여러 花紋·雲紋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사천왕상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a. 東面 持國天王

중심부의 문양은 持國天王으로서, 얼굴은 둥글면서 각져 부릅뜬 눈과 함께 매우 근엄하여 긴장감이 도는 武士形이다. 세부를 보면 동그란 이마에는 2줄의 주름이 심히 패였고 두툼한 양쪽 눈두덩과 눈동자는 튀어나오고 눈초리는 치켜 올려져있다. 길고 넓적한 코는 콧날이 세워졌으며 콧등은 굴곡져 있다. 윤곽선이 선명한 입술은 꼭 다물어 턱이

15) 감은사 사리장엄구의 이러한 方形 基壇의 형태를 보면 불상이 안치되는 法堂 內 佛壇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佛舍利를 곧 佛身과 동격으로 생각하여 사리장엄 기단을 불단의 기단과 동일한 구조를 갖추었다고 추정된다.

더욱 튀어나온 듯 하며 콧수염은 짧으며 팔자형을 긋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다른 천왕들과 마찬가지로 西域風의 印象을 보여 여기에서도 이 사리기의 외래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짧고 굵은 목에 三道가 있고 양쪽 가슴팍을 감싼 둥근 갑옷인 頸護가 인상적이다. S자형의 頸護는 몇 겹으로 만들어졌지만 모두 깃이 세워져 있으며 깃마다 單線紋과 魚子紋이 장식되어 있다.



(그림 18) 감은사 서탑 사리장엄 내함 사천왕상

신발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발은 아니고, 西域의 영향을 짙게 보이고 있다. 類似한 예로서 羅原里 삼층석탑 발견 사리기 외함에 표현된 사천왕상과 石窟庵 四天王像의 신발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페르시아 지방의 신발임이 논증된 바 있다. 신발은 雲頭가 낮은 형태로 무장된 갑옷에 비해 매우 가벼워 보여 마치 가죽신발 같다. 발등에는 唐草紋 같은 간결한 문양이 施紋되어 있다.

持國天王의 발 아래에 엎디어 있는 惡鬼의 머리는 사천왕의 두 다리 사이에 있고, 몸을 웅크린 채 있다.

b. 西面 廣目天王

이 서방 광목천왕은 눈·코 등 표정을 관찰할 수 있는 얼굴의 중심부가 일부 결실된 채 발견되었으나 外函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힘차 보인다.

자세는 동방 지국천왕과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틀고 있으며, 얼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틀면서 뒤로 젖힌 상태여서 머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두광 내부 왼쪽은 머리카락으로 거의 채워지고 왼쪽은 빈 공간이 되었다.

왼손은 허리에 붙이고 두 다리를 양쪽 모두 밖으로 벌려 누워 있는 악귀를 밟고 있다.

악귀의 머리와 이마는 사천왕의 발에 가려있으나 넓적한 얼굴은 입이 크고 이빨이 튀어나왔으며 앞쪽의 두 다리는 엉거주춤하게 뻗었고 뒷다리는 엉덩이 아래로 구부린 자세이다.

이 사천왕은 비록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으나 어깨는 둥글면서도 딱 벌어지고 가슴은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만 반대로 허리는 아주 가늘다. 갑옷의 기본 구조는 동방 지국천왕과 동일하나 부분적으로 문양과 구조에 차이가 있다. 특히 肩喰과 腹甲部에 鬼面 및 龍頭 등의 문양을 彫飾한 것이 특징이다.

持物은 무엇인가가 오른손가락에 끼워졌는데 발견 당시 이미 上下部가 없어지고 자루 일부만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c. 南面 增長天王

正面을 향한 자세를 취한 서방 增長天王은 머리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하고 왼팔을 높이 치켜올린 상태에서 칼을 사선으로 쥐고 왼팔은 한 번 구부려 허리에 대고 양다리를 벌린 채 惡靈座 위에 서 있다. 두 줄로 이뤄진 두광은 장식 없이 간결하다.



(그림 19) 감은사 동탑 사리외함 사천왕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빗어 올려 2단으로 묶고 매듭이 보이는 간단한 형식의 三面冠을 썼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끈이 뒤통수에서 두광의 안팎으로 연결되어 휘날리고 있음에서 動的인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다.

얼굴의 전체 형태에서 異國의 풍모가 짙게 배어있는데, 넓고 높은 코에 윤곽이 뚜렷한 입술, 그리고 그 위의 八字 수염 등에서 그 같은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간 목에는 삼도가 힘있게 잡힌 상태이고 그 아래 윗가슴은 앞으로 둥글게 튀어나와 얼굴 및 경당과 함께 비교할 때 거리감이 있어 대단한 입체감을 보여주고 있다.

持物로는 오른손으로 비교적 짧은 칼을 쥐고 있으며, 武裝은 갑옷의 형태에 있어서 지국천왕·광목천왕과 대체로 유사하다.

발 아래에는 악귀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며 엎드려 있는데 머리는 중앙으로 모아 묶은 2단 형식을 띠며, 상투가 매우 크고 얼굴은 넓적한 것이 인상적이다.

d. 北面 多聞天王

다문천왕의 얼굴은 왼쪽으로 틀어 시선을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오른팔은 위로 구부려 어깨 높이까지 올려서 손바닥에 寶塔을 들고 있어 확실한 多聞天王의 圖像을 하고 있다.

頭光은 두 줄로 되어 있고, 머리에 쓴 三面冠에서 늘어뜨린 끈과 연결되어 있다. 머리카락은 앞쪽을 위로 빗어 넘겨 2단으로 둥글게 말아 올렸고 뒷머리는 그대로 늘어뜨렸는데, 둥글게 말아 올린 머리 중앙에 花形 裝飾을 꽂고 그 좌우에 가발인 義髻를 이용하여 삐친 머리를 만들어 세웠다. 따라서 外函에 浮彫된 사천왕 가운데 가장 장식적이고도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주목된다.

비교적 넓적한 얼굴은 왼쪽으로 틀어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으며, 이마에 주름이 많고 눈썹과 눈은 치켜 올라갔다. 코는 매부리코에 광대뼈가 특히 튀어나왔고 큰 입술 위에는 팔자형 수염이 제법 길게 나있어 전체적으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

持物은 寶塔을 오른손에 올리고 있는 것르은 經典에 묘사된 多聞天王의 자세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오른 손바닥에 올려 있는 삼층탑은 상륜부와 기단부가 강조되고 옥개석마다 風鐸이 제법 크게 매달려 있는 小塔이다. 이 小塔은 전체적인 樣式上 7세기 신라시대 塔婆의 典型 樣式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북방 다문천왕의 臺座는 다른 사천왕들과 달리 악귀가 아닌 羊이 등장되어 있는 動物形 臺座이다. 羊은 비록 사천왕의 발 아래에 밟혀 있으나 다른 악귀와는 달리 표정이 평화로운 것이 특이하다. 뿔과 털 등도 매우 정리가 잘되었고 깃털 표현에서 장식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미루어보다 惡鬼를 상징하기보다는 瑞獸라는 인상이 짙게 나타나 있다.

② 內函

감은사 사리장엄 가운데 가장 장식적이면서도 舍利를 담은 舍利甁을 직접 놓아두는 장소이므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는 크게 보아 基壇部와 舍利甁座, 그리고 天蓋部[16]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부 분리될 수 있다. 기단부에는 別鑄한 獅子・사천왕・보살・승려상 및 蓮花・龍・火焰 등 여러 장식 요소를 附着하여 장식했다.

기단부터 천개까지 이와 같은 구조를 한 것을 일반적으로 寶閣形 舍利器라 부르는데, 本稿에서는 內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 기단부 및 천개부의 주요 양식에 대하여 詳述하였다.

a. 기단부

內函의 가장 下部 구조인 下臺는 다시 3段의 받침으로 구성되는데, 형태는 밑에서부터 角形의 單層 方段, 蓮華紋帶, 弧形의 唐草紋帶 등이다.

角形의 제1단은 四隅 및 중앙 上面, 그리고 側面 일부에 각각 唐草紋・魚子紋이 장식되었다.

弧形의 제2단은 제1단 上面 뒤로 조금 물러나서 11葉의 複葉이 장식되었고, 四隅에도 역시 蓮華形의 귀꽃이 달려 있다. 이 귀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는 귀꽃 장식으로 주목된다. 그런데 弧形 제2단의 연꽃을 세어보면 各面 11葉이니까 四面을 합하면 44葉이 되고, 여기에 四隅에 각 하나씩 있는 귀꽃을 합하면 전부 48葉의 연꽃이 부착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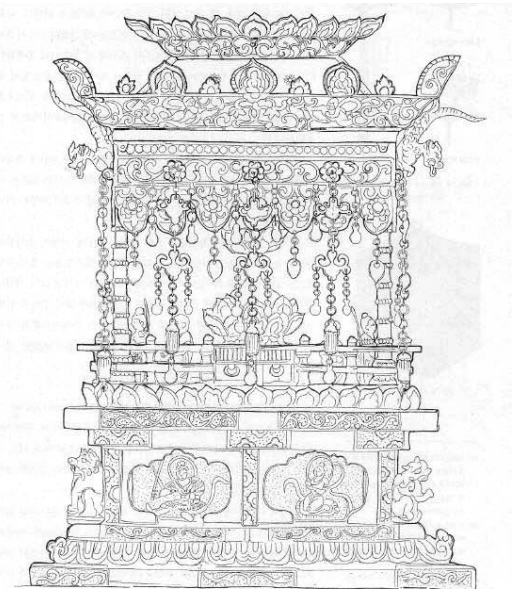
弧形의 제3단은 각 上面에 唐椒・魚子紋이 2條씩 있고, 四隅에는 각각 別鑄된 獅子가 부착되었다. 부착 방법은 獅子 아래에 촉이 있어 꽂도록 하는 방식인데, 西塔과 마찬가지로 감은사 東塔 사리기에서 別鑄된 조형물을 內函 등에 부착시킬 때 흔히 사용된 방법이다. 이 獅子들은 높이 2.3~2.8㎝의 小形이면서도 세부 형태가 매우 뚜렷하며 4마리

16) 造形上 일종의 지붕 형태인데 그 동안 국내외에서 특별한 考察없이 '天蓋'라 불러왔다. 그런데 造形上으로 볼 때 부처 혹은 貴人이 쓰던 傘蓋와 유사하며, 그 뒤 儀仗的 요소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고 한다(『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pp.198~205). 本稿에서 필자는 이 같은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모두 표정과 자세 등이 서로 다른데, 특히 남서쪽의 사자상은 오른쪽 앞다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 塔의 基壇部 四隅에 사자를 배치한 예로는 慶州 佛國寺 多寶塔과 芬皇寺 模塼塔, 전남 求禮 華嚴寺의 孝臺 四獅子石塔(국보 제30호)과 圓通殿 앞 삼층석탑(보물 제300호) 등이 있어 양식 비교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특히 芬皇寺 모전석탑 四獅子像과 양식상 유사하여 7세기 彫像의 특징을 읽을 수 있다.

b. 舍利甁座

받침대와 欄干 등이 있는 외곽과 사리병이 안치되는 중심곽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 상대는 上下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20) 감은사 동탑 사리내함 실측도

下端部는 四面에 忍冬唐草紋이 彫飾된 紋樣帶가 各面마다 2개씩 배치되어 있고, 그 上面에 뒤로 조금 물러나서 各面 16葉씩의 연꽃을 세워 장식하였다. 이것은 下臺의 제1단 및 제2단의 구성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上臺 下端部 上面에 彫飾된 연꽃이 각면에 16葉씩, 도합 64葉이 배치되어 있는 점이다. 64라는 숫자는 위에서 말한 下臺 제2단에 배치된 48葉의 연꽃과 마찬가지로 8의 倍數인데, 佛敎에서 聖數로 꼽는 8이라는 數를 조형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西塔의 경우는 上臺 下端部의 연꽃이 64葉인 것은 같지만 下臺 제2단의 연꽃은 각면 8葉에 귀꽃 4葉을 합하여 36葉인 것이 다르다.

上端部는 중앙 바닥에 8엽 연화대를 낮게 3단으로 따로 만들어 부착시킨 구조를 하고 있다. 이 연화대는 중앙에 舍利를 봉안한 水晶 舍利甁이 놓일 받침인 둥근 圓形座를 두고 그 외곽에는 8각면을 두른 후 각면 끝을 반으로 접혀진 연화문 형태로 뺀 상태이다. 사리병의 용량은 그다지 크지 않아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리는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

고, 따라서 소형 사리만이 병 안에 안치되었을 것이다.[17] 舍利甁 위에는 金製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림 21) 감은사 동탑 사리내함 기단부

c. 天蓋部

4本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天蓋는 매우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으나 장식적 요소를 뺀 내곽의 지붕 구조는 대체로 외함의 지붕과 동일한 기본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天蓋部의 천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西域風의 지붕으로서, 敦煌 莫高窟 가운데 초기에 개착된 제285굴, 그리고 隋·唐代의 굴인 제390굴의 지붕과 매우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 석굴의 藻井 천장이 지붕 경사면과 중앙부와의 연결에 層段이 있는 반면에, 감은사 사리 내함에서는 층단을 두지 않고 그대로 평면적으로 연결한 점이다.[18]

寶蓋는 천장 아래에서 밑으로 늘어뜨려진 垂飾이 부착된 부분으로, 길이 9.3㎝, 폭 3.1㎝의 판 4개가 동일한 문양을 지니고 橫으로 壓出 및 透彫로 장식된 부분이다. 일종의 紋樣帶로서, 7개의 舟形 垂飾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滿開된 花紋 4개와 如來坐像 3개를 透彫하여 번갈아 배치하였다.

---

17) 東塔에서는 모두 54顆나 되는 다량의 사리가 확인되었는데, 동탑 복원시 새로 만든 사리기에 재봉안 되었다. 반면에 西塔에서는 1959년의 해체 당시 단 1顆만 발견되어 비교가 된다(『感恩寺』 문화재관리국). 그러나 54과 가운데는 납유리와 수정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舍利로 볼 수 있는 것은 0.1~0.2㎝ 크기의 작은 알갱이 10개 정도에 불과하므로, 身骨舍利라기보다는 供養物인 것으로 추정된다.

18) 이 天蓋 부분은 이른바 우물형 천장을 한 覆斗式 천장을 기본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돈황 석굴의 藻井形 천장부 내벽에는 화려한 영락 장식, 飛天 및 花紋 등이 그려진 것에 비해 감은사 동탑 사리함의 천장은 金銅板에 透彫된 개별 장식 요소가 附着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紋樣帶 위에는 둥근 聯珠紋을 한 줄 두어 마감하였는데, 이 양식이 전라북도 金堤 大木里에서 발견된 銅版 삼존불상의 寶蓋와 매우 흡사하여 연관성이 주목된다. 이 동판 삼존불상은 7세기 백제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므로 7세기대 백제·신라 간의 상호 영향 관계가 주목되는 것이다



(그림 22) 감은사 서탑 내함 천개부

3) 羅原里 오층석탑 사리장엄

나원리 오층석탑이 위치한 곳은 다른 遺構는 남아있지 않고, 절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현재 경작지로 사용되어 가람의 배치는 물론 寺域의 범위도 잘 알 수 없다.

금동사리함은 1997년 오층석탑 해체수리 때 3층 옥개석에 마련된 舍利藏置에서 발견되었다. 供養物 대부분은 사리함에 들어 있었지만 일부는 사리함 외부의 舍利孔에서도 확인되었다. 舍利 외에 小佛像, 小形의 금동탑·목제탑, 陀羅尼經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舍利와 공양물을 담고 있던 금동사리함의 형태는 사리공과 동일한 정사면체에 가까운 뚜껑 있는 箱子形이었으며 재질은 金銅이고, 그 외부는 바닥 면을 제외한 뚜껑과 四面壁에 線彫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하였다.

나원리 사리함은 內函과 外函이 별도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舍利 또한 유리그릇을 제작하여 안치하지 않고 다른 공양물과 함께 금동사리함 내에 홑으로 봉안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리를 三重으로 된 사리장치에 봉안해야 한다는 經典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同時代의 것으로 확인된 다른 사리장치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



(그림 23)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① 형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舍利容器는 매우 다양하고 화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리기는 외부 형태에 따라서 塔形・殿閣形・棺函形・盒形 등으로 분류된 바 있는데,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용기의 函은 정사각형으로서 위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棺函形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나원리탑 발견 금동 사리함은 석관형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棺函形에서 규모와 형태 면에서 많이 벗어난 공예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棺函形이라기 보다는 상자형으로 칭함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나원리 사리함은 원래부터 상자로 된 완형이 아니라 금동판을 접어 조립하여 만든 후 땜질을한 상자이다. 나원리 사리함과 같이 상자형의 금동함은 그 원류를 일찍이 제작된 중국 재래의 墓制 풍습인 石函들에서 찾아야 하겠으나, 그 전통을 사리함에 적용시켜 제작한 직접적인 예로서 唐代인 603년에 제작된 河北省 靜志寺 眞身舍利塔에서 확인된 金銅舍利函(陝西省博物館 소장)을 들 수 있다.

나원리 금동사리함의 형태적 특징은 정사각형 상자라는데 있으며, 더욱이 다른 뚜껑과 같이 손잡이를 제작하지 않아 매우 간결한 이미지를 준다.

② 나원리 사리장엄의 특징

羅原里 사리기의 특징은 먼저 그 전까지 대체로 시행되었던 舍利外函과 舍利內函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舍利 또한 琉璃器를 제작하여 안치하지 않고 다른 공양물과 함께 금동 사리함 내에 그대로 봉안한 점 역시 다른 사리장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19] 다시 말해서 나원리 사리기는 이보다 다소 앞선 시대인 7세기에 제작된 감은사 및 송림사 사리장엄, 그리고 同代인 8~9세기의 다른 사리기가 外函과 內函이 별도로 구분되고 內函 안에 舍利 등이 봉안되는 방식과는 달리 외함과 내함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본래 사리장치는 三重으로 된 사리장치에 봉안해야 한다는 經典의 내용[20]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고대 사리장엄이 3중 이상의 舍利器로 重疊되어 있는 형상에 비한다면 나원사 탑에서의 사리장엄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외함 사천왕 세부 명칭도

사리함 函體의 四壁面에는 각각 主紋樣으로 四天王像이 새겨져 있으며, 그 주위 공간에 魚子紋이 가득 채워져 있다. 四天王像은 일반적 圖像대로 甲冑를 착용하고 武器를 든

19) 供養物 대부분은 사리기에 들어 있었지만 일부는 사리기 외부의 舍利孔에서도 확인되었다. 공양물로서는 舍利 외에 小佛像, 小形의 金銅塔과 木塔,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등이 있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1998. p.26).

20) 高田修, 「佛塔と舍利」, 『佛教美術史論考』, 東京中央公論美出, 1969年, p.34.

武裝한 모습이지만 얼굴 표정에서는 무사적 용맹성보다는 菩薩의 표정과 같은 온화함이 가득 느껴지고 있다. 또한 신체 표현 역시 굴곡 표현이 더 많아 전체적으로 여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感恩寺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 중 外函에 표현된 四天王像과는 확연히 다른 면으로서, 前者가 激動의 삼국통일기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존숭된 崇武의 정신이 표출된 것이라면, 後者는 그보다 약 1세기 가량이 지나 바야흐로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신라 문화가 滿開되는 시점의 作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착용된 甲冑의 경우도 매우 장식적이고 여성적이어서 우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甲冑로는 慶州 石窟庵 사천왕상 및 遠願寺址 삼층석탑의 사천왕상에서 찾을 수 있다. 函體 四方에 새겨진 四天王像[21]은 위와 같은 섬세한 조각을 바탕으로 서로 약간씩의 차이가 나지만, 한 사람의 솜씨인 만큼 대체로 유사한 양식을 보인다. 특히 甲冑의 경우 4位의 사천왕상 모두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

나원리 사리함의 사천왕상과 유사성을 지닌 국외의 현존 사천왕상은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명 칭	제작시기
1	河南省 龍門 奉先寺	本尊左脇 多聞天 (석회암)	672~675
2	敦煌 莫高窟 제194굴 西壁 龕內	南方 增長天 및 북방 다문천(塑造)	盛唐
3	陝西省 法門寺 眞身寶塔 地宮	後室 石扉 廣目天 (대리석)	631~660
4	敦煌 榆林窟 제25굴 北壁 嫁娶圖	南方天王像(벽화)	盛唐
5	중앙아시아・무르툭	天王・남방증장천(麻本)	9세기
6	중앙아시아・토육	天王幡(麻本)	9세기

21) 사천왕 圖像의 출발은 印度부터지만 나원리 사리함의 사천왕과 양식적으로 근접한 것은 중앙아시아의 무르툭과 吐育에서 수집된 천왕상과 중국 唐의 여러 圖像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신라 내에서도 나원리 사리함보다 선행되어 제작된 사천왕상이 感恩寺址 東西 兩塔에서 이미 확인된바 있으나, 나원리 사리함 외벽에 장식된 사천왕의 모습은 이들보다 오히려 국외인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 제작된 사천왕상 모습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函體에 표현된 사천왕상이야말로 신라의 사리장엄이 폭넓은 문화 교류의 결과 나타난 독창적이 작품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5.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舍利信仰

불교의 造形 중에서도 탑파와 불상 등 禮拜對象은 그들을 뒷받침하여 만들어진 경전이 있기 마련이다. 신라시대에 크게 유행하던 木塔이나 石塔을 가릴 것 없이 그들이 사찰경내에 건립되기 위하여서는 모두 건립자의 發願이 따르는 동시에 건립의 근거로 삼아온 경전이 있기 마련이다. 그중 사리장엄과 관련해서는 8세기 초 중국에서 飜譯되어 신라에 건너온『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있다.

이 경전이 漢譯된 것은 西域 출신으로 중국에 건너온 彌陀山에 의해서인데, 그가 唐 長安에서 譯經에 종사한 시기가 690~704년 무렵이므로 대체로 이 시기에 중국과 우리나라에『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22] 그러나 유적과 유물이나 문헌기록으로 보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無垢淨經이 탑내에 法舍利로 사용된 경우는 흔치 않고 오직 신라를 통하여 이 經이 造塔陀羅尼經으로써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造塔功德을 강조하였기 때문에『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수입된 이후 造塔의 사상적 기조를 이루면서 造塔 佛事가 매우 성행했다. 그리고 조성된 후에는 法身舍利로 탑 속에 봉안하였다.[23]

물론 법신사리로서 경전을 봉안할 때『무구정광대다라니경』만 봉안되는 것은 아니고 其他 여러 경전이 法身舍利로 봉안되지만, 대체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무구정광대다

---

22)『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漢譯 시기에 대해서는 700년 이전이라는 韓·中 학자의 주장이 있다(金聖洙,「韓國 印刷文化의 始原에 관한 硏究」,『書誌學硏究』제13집, 1997. pp.14~15 ; 潘吉星,「印刷術的起源地 : 中國還是韓國」,『中國文物報』, 1996). 그러나 이것은 彌陀山의 활동시기를 잘못 파악한 데서 나온 오해이며, 則天武后 長安 4년(704)에 漢譯된 것으로 보는 견해(李弘稙,「慶州 佛國寺 釋迦塔 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白山學報』제4호, 1968)가 옳은 듯하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이보다 2년 후인 706년에 제작한 慶州 皇福寺址 삼층석탑 舍利具의 舍利外函 蓋部에 '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第二層'이라는 銘文이 있어 적어도 706년에는 이 경전의 漢譯本이 新羅에 傳來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23) 우리나라에서 法身舍利와『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造塔功德 신앙에 의해서 조성된 석탑은 皇龍寺 구층목탑, 皇福寺 삼층석탑, 佛國寺 석가탑, 山淸 石南寺, 奉化 서동리 동삼층석탑, 경주 남산 昌林寺址 삼층석탑, 大邱 傳桐華寺 삼층석탑, 大邱 桐華寺 金堂庵 西塔, 陜川 海印寺 妙吉祥塔, 襄陽 禪林院址 삼층석탑, 公州 水源里 삼층석탑, 咸陽 昇安寺址 삼층석탑 등이 알려져 있다(姜友邦,『佛舍利莊嚴』, 國立中央博物館, 1991. p.169).

라니경』이 가장 애호되었던 듯 하다. 法身舍利로 봉안된 각 경전의 發見例를 들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은데, 전부 16개소에서 법신사리로서 경전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6개소로 최다수를 차지하여 한국에서는 법신사리로 경전이 봉안될 때 이 경전이 가장 애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법신사리로 탑파 내에 봉안된 경전

경전 명칭	봉안 탑파	奉安處數
無垢淨光大陀羅尼經	慶州 皇龍寺 구층목탑, 皇福寺 삼층석탑, 佛國寺 삼층석탑, 昌林寺 삼층석탑, 山淸 石南寺 毘盧舍那佛臺座, 陜川 海印寺 吉祥塔	6所
金剛般若波羅蜜經	益山 王宮里 오층석탑, 海印寺 吉祥塔	2所
寶篋印陀羅尼經	開城 摠持寺, 平昌 月精寺, 禮山 修德寺	3所
法華經	開城 南溪院 칠층석탑, 陜川 海印寺 吉祥塔	2所
緣起法頌	皇龍寺, 普願寺, 錫杖寺	3所

그밖에 발견 당시 경전이 전하지는 않았지만 大邱 桐華寺 毘盧庵 삼층석탑, 桐華寺 金堂庵 西 삼층석탑, 奉化 鷲棲寺 삼층석탑, 西洞里 동삼층석탑, 陜川 海印寺 吉祥塔, 襄陽 禪林院 삼층석탑, 保寧 聖住寺 삼층석탑, 公州 東院里 삼층석탑 등에서도 탑내에 小塔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는 陀羅尼를 본래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를 보면 益山 帝釋寺 목탑에도 『金剛般若波羅蜜經』을 봉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주 감은寺 서삼층석탑에서도 해체 수리 당시 종이뭉치가 발견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탑파에 봉안된 것으로 보아서는 佛經을 書寫하였을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湖巖美術館에 소장된 新羅 화엄경 사경은 754~755년 사이에 書寫된 것인데, 비록 정확한 발견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신라의 石塔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서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화엄경』이 탑내에 법신사리로 봉안된 唯一例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益山 王宮里 오층석탑에서는 1층 옥개석 상면 중앙의 積心部에 마련된 사리공과

찰주 下部의 사각형 심초석의 두 곳에 각각 사리장치가 있었다. 이 가운데 1층 옥개석에는 동서 두 곳에 사리공을 마련하였는데, 서쪽 사리공에 금동 直四角形 盒, 金銅 外函과 더불어 법신사리로서 金紙 金剛經板 19매가 안치되어 있어 진신사리와 법신사리가 거의 동등한 개념으로 봉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리신앙의 새로운 면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小塔 供養

小塔 供養이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사상에 의하여 탑파 내에 봉안되는 小塔들을 가리킨다. 불사리가 사리용기에 봉안되는 데 비하여 이 小塔은 法舍利인 다라니를 봉안한다. 곧 다라니를 두루마리로 말아서 小塔의 底孔에 藏置하는데, 다만 우리가 발견할 때는 대부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후라 腐蝕이 심하여 判別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무구정경』의 사상이나 기타 塔誌의 銘文 내용에 의하여 이것이 곧 四種陀羅尼임을 짐작할 수 있다.[24]

『무구정경』에서는 다라니를 써서 77기의 小塔을 탑중에, 그리고 99기의 小塔을 상륜탱 주위에 안치하면 곧 99,000의 상륜탱을 세우는 것이며, 또한 99,000의 불사리塔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25] 이러한 大數의 개념은 阿育王 八萬四千塔의 사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결국은 법사리인 다라니경의 威神力을 상징한다고 본다.[26] 이러한 다라니경의 護法 기능은 경전 상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곧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것이다.

> '이 菩提場이여, 자작나무 껍질 위에 陀羅尼를 써서 莊嚴하여 혹은 金剛杵 중에 넣거나 혹은 佛像 중에 넣거나 혹은 寶篋印塔에 넣거나 혹은 탑 중에 넣는다. 이와 같이 하여 이 陀羅尼를 百千數로 조성해 한 탑 안에 봉안한다면 이것은 마치 善男子 善女人이

24) 이에 대한 詳細한 언급으로는 張忠植, 「新羅時代 塔婆舍利莊嚴에 對하여」(『白山學報』 제21호, 1976.)를 참고할 수 있다.

25) 『大正藏經』 1024卷, 「無垢淨光大陀羅尼經」 p.719의 a.
'善男子 應當如法 書寫此呪 九十九本 於相輪樘 四周安置 又寫此呪 及功能法 於樘中心 密覆安處 如是作已 則爲建立 九萬九千 相輪樘已 亦爲安置 九萬九千 佛舍利已 亦爲已造 九萬九千佛舍利塔'.

26) 張忠植, 앞의 논문.

百千數의 탑을 조성하는 공덕과 마찬가지니라.'[27]

이것은 불탑뿐만 아니라 불상・佛畫, 혹은 金剛杵와 같은 佛具 등에도 다라니로 장엄한다면 곧 다라니 威神力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다라니의 護法 기능이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경전 상에 직접 佛塔을 언급하며 다라니를 봉안하는 功德을 說하였으므로 다라니 신앙이 유행하였던 당시 造塔經으로서의 다라니 공양은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상에서 大數의 의미로서 77數 혹은 99數의 다라니로 장엄된 小塔 供養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 동화사 금당암 삼층석탑 및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에서처럼 99기의 小塔이 봉안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塔들이 이렇게 77기나 99기의 小塔 供養의 莊嚴을 갖춘 것은 아니고, 불국사 삼층석탑처럼『무구정경』全卷을 봉안한 경우도 있다.

供養小塔이 발견된 신라시대의 탑파를 열거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供養 小塔이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소재 및 탑명	년대	小塔 數量	참고문헌
皇福寺 삼층석탑	706년(聖德王 5)	99基 鏤刻	李弘稙,「慶州狼山東麓三層石塔內發見品」,『韓國古文化論攷』, 乙酉文化社, 1954.
佛國寺 삼층석탑	751년(景德王 10)	小木塔 12基	李弘稙,「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白山學報』제4호
桐華寺 敏哀大王石塔	863년(景文王 3)	鏤金木塔 3基	黃壽永,「新羅敏哀大王石塔記」,『史學志』제13호
海印寺 吉祥塔	895년(眞聖王 9)	泥小塔 157基	李弘稙,「羅末의 戰亂과 緇軍」,『史叢』12・13합집, 延世大學校
桐華寺 金堂 西塔	9세기	靑石塔 99基	李弘稙,「桐華寺金堂庵西塔舍利裝置」,『亞細亞硏究』제2호, 1958.

27)『大正藏經』1008卷,「此菩提場莊嚴陀羅尼經」p.171의 b.
'此菩提場 莊嚴陀羅尼 於樺皮上書 或置金剛杵中 或置佛像中 或置畫像上 或置印塔中 或置窣堵波中 隨於一事 此陀羅尼 卽成造百千數 若置一窣堵波中 彼善男子善女人 卽成造百千窣堵波'.

소재 및 탑명	년대	小塔 數量	참고문헌
奉化 西洞里 東 삼층석탑	9세기	土塔 99基	黃壽永, 「奉化西洞里同三層石塔舍利具」, 『美術資料』 제7집
公州 東院里 三層石塔	9세기	蠟石小塔 7基	李殷昌, 「東院里石塔內發見蠟石製小塔」, 『史學硏究』 제17호
禪林院址 三層石塔	9～10세기	蠟石小塔 69基	秦弘燮, 「禪林院址三層石塔內發見小塔」, 『美術資料』 제9호; 黃壽永, 「禪林院址三層石塔發見小塔5基」, 『美術資料』 제10호

이상의 類例 가운데 황복사탑은 小塔을 실제로 조성한 것은 아니고 金銅函 蓋部 내부 표면에 銘文과 더불어 3단으로 單層塔 99기를 鏤刻하였다. 또한 동화사 금당암 서탑에서 발견된 99기의 탑은 한 때 盜取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것은 53기에 그치고 있다.[28]

2)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의한 小塔 供養의 實例

그리고 비록 실물이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통하여 供養 小塔이 안치되었거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신앙과 관련하여 造塔된 예를 들 수 있다. 우선 황룡사의 경우는 刹柱本記에 '鐵盤之上 相輪部에 莊嚴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처음에는 小塔 99기를 안치했으나 고려시대 몽골군에 의해 消盡된 것으로 보인다.

창림사 삼층석탑은 塔記에 金立之가 지은 「國王慶應造無垢淨塔願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창림사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봉안되었다는 내용이 있다.[29] 또한 성주사지 석

28) 金禧庚, 「桐華寺 金堂庵西塔內發見 蠟石製小塔의 樣式」, 『考古美術』 제129・130합호, 한국미술사학회, 1976. p.110.

29) 鮎貝方之進 所藏本 가운데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寫經 1卷의 首尾와 같이 들어 있다. 이 塔記는 秋史 金正喜가 塔을 수리할 때 나온 舍利莊嚴 등에 대하여 지은 것인데, 한쪽에 「金正喜印」이 찍혀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甲申春 石工破慶州昌林寺塔 得藏陀羅尼經一軸 盛銅圓套 又有銅板一 記造塔事實 板背並記 造塔官人姓名 又有金塗開元通寶錢 靑黃燔珠 又鏡片銅趺 爲鑄銅者所壞 軸面黃絹 金畫經圖'(末松保和, 「昌林寺無垢淨塔願記」, 『新羅史の諸問題』, 1954. 日本 東洋文庫 참조).

탑 역시 「三層無垢淨塔」[30] 등의 金立之撰 碑片이 발견되어 창림사와 성주사 석탑이 文聖王을 위한 원찰에 세워진 탑으로 무구정광다라니경의 思想에 의한 小塔 供養임을 추정할 수 있다.

仲和三年銘 금동 원통형 사리기는 銘文 중에 883년(헌강왕 9) 탑내에 小塔 77기와 眞言 77本을 안치하였다는 내용이 있다.[31]

奉化 鷲棲山 삼층석탑에서 나온 石盒에도 胴體에 銘文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作無垢淨一壇 壇師皇龍寺僧侶炬'[32]이라고 되어 있어 역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신앙의 일단을 짐작케 한다. 특히 '一壇'이라는 말은 戒壇과 舍利塔과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본래는 계단과 사리탑과는 엄연한 구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단이 불사리를 봉안하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 사리탑이라 호칭했다고 한다.[3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라니경은 造塔經으로서 신라시대에 유행하였던 경전 가운데 하나였다. 그 내용은 다라니를 외우고 불탑을 수리하며 작은 불탑[小塔]을 만들어 탑 안에 넣고 다라니 呪文을 써 넣어 공양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說하고 있다. 신라에서 다라니가 탑내에 봉안된 것은 그 만큼 造塔經으로서 존숭된 이유가 최우선이겠지만, 그에 못잖게 중요한 이유는 다라니가 물리적으로 제한된 진신사리를 대신할 수 있는 법신사리로 적격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라에 불사리가 전래된 것은 공식적 기록에 따르면 전부 네 차례에 불과하며, 그 수량도 建塔의 유행에 맞출 정도로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34] 그러므로 경전내용 상 造塔功德을 說하고 있고, 77 또는 99의 실제 數대로 造塔하지 않더라도 塑造 등의 小塔으로 봉안하거나, 혹은 塔形을 종이나 비단에 77數나 99數만큼 印出하여 탑내에 봉안하여도

---

30)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其三)」, 『考古美術』 117호. 한국미술사학회, 1973.

31) '…昔有裕神角干 成出生之業 爲」□國之寶 敬造此大石塔 仲和三年 更復□□□將裕 普門寺玄余大德 依无垢淨光經 小塔七十七軀 寫眞言七十七本 安處大塔…'

32) '釋彦傳 母親諱明端 考伊飡金亮宗公之李女 親自發弘誓 專起佛塔已 感淨土之業 兼利穢國之 生孝順此志 建立玆塔 在佛舍利十粒 作无垢淨一壇 壇師皇龍寺僧賢炬 大唐咸通八年 建 石匠神孚'(『博物館陳列品圖鑑』(總督府博物館 刊) 제8집 참고).

33) 張忠植, 앞의 논문.

34) 582년(眞平王 4) 桐華寺에 1,200顆를 봉안한 것은 실제 그 만큼 多量의 佛舍利가 전래되어서라기보다는 分舍利한 결과이거나, 또는 變身舍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수만큼 造塔한 것으로 인식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법신사리로서 즐겨 봉안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4세기에 불교가 들어왔으나 사리장엄의 遺例는 현재로서는 6세기 말~7세기의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제작된 感恩寺 및 松林寺 사리장엄은 공예적으로 他國에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조형성에 있어서도 寶閣形 사리구라는 新羅만의 독창적 사리장엄을 만들어내었다. 여기에 최근 백제 지역인 부여 왕흥사지와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은 이 자체로 완벽한 상태의 사리장엄 일체라서 백제의 사리장엄의 실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 공예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 고대 사리장엄의 형식적 특성으로는 신라에서는 殿閣形 또는 寶閣形 사리장엄을 들 수 있다. 이의 起源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定說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筆者의 견해로는 인도 또는 중국에서 貴人을 모셨던 寶閣 또는 藍輿의 牀帳에서 비롯하였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佛舍利를 遺骨로서가 아니라 佛身 그 자체로 인식했던 당시 사람들의 佛舍利觀이 基底에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佛舍利를 단순히 佛身의 遺骨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佛舍利 자체가 佛身이므로 마치 생존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寶閣에 봉안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리하여 우리가 흔히 '寶閣形'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리기 자체를 寶閣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天蓋 부분은 寶閣形 사리장엄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그 由來를 중국 돈황석굴에 나타나는 牀帳에서 찾을 수 있음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이 그다지 浮刻되지 않았음은 공예를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바라보

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寶閣形 사리기에 있어서 天蓋의 발생이 牀帳에서 유래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收容하여 중국에서 애용되던 移動式 牀帳이 아니라 건축 형태로서의 寶閣의 天蓋로 응용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 구체적 예를 感恩寺 및 松林寺 사리장엄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감은사 사리장엄 중 舍利外函은 門과 欄干이 표현된 건축 장식에 寶閣의 지붕을 形象化한 天蓋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典型的인 寶閣形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면에서 移動性보다는 定着性을 자연스레 選好한다는 意識基盤을 염두에 두어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寶閣形 사리장엄의 대표작인 感恩寺 사리장엄은 東西 사리기 모두 이 같은 典型을 이룬다. 기본적인 양식이 거의 유사한 양 사리장엄 중 특히 보존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최근인 1999년에 收拾된 西塔의 사리장엄을 대표로 놓고 보면, 각부의 造形性과 象徵性이 有史이래 모든 佛教國에서 봉안하였던 사리장엄 중 工藝性과 藝術性 兩面에서 最上位를 차지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外樣이 화려하고 고도의 수준높은 불교사상이 농축된 공예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신라의 활발했던 대외교섭 활동과 그에 따른 문화수준의 향상, 불교문화에 대한 학문적 인식의 발달과 이해 등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感恩寺 사리장엄을 통하여 당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신라의 당당했던 국제적 지위, 높은 문화수준, 그리고 불교에 대한 깊은 歸依를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백제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리장엄을 볼 때 신라와 같은 전각형 또는 보각형이 자리 잡은 것 같지는 않고, 舍利甁 중심으로 불사리를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전각형으로 나아가기 전단계의 형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彙　　報

(2008.11.08 ~ 2009.12.31)

❑ 박물관 신축 개관 특별전

○ 개막식 : 2009년 4월 14일(화) 14:00

○ 기　간 : 2009.04.14(화) ~ 2009.05.15(금)

○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 1, 2, 3, 4 전시실

○ 관련 사진









❑ 민속 · 복식분야 제27회 학술발표

○ 주제 :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및 복제품

○ 일시 : 2009년 5월 2일(토) 13:00～17:00

○ 장소 : 인문관 소극장(210호)

○ 학술 발표

1. 海南尹氏家의 學問과 朋黨정치
   이종범(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
2.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연구
   고부자(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3. 우리나라 출토 복식 발굴 현황과 분석
   최규순(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4. 海南尹氏(善言, 1580～1628년)墓 出土 철릭의 모양과 바느질 연구
   금종숙(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5. 海南尹氏 廣州出土 遺物의 피륙 연구
   이혜경(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

❑ 민속 · 복식분야 제28회 특별전

○ 주 제 :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및 복제품

○ 개막식 : 2009년 5월 2일(토) 11:00

○ 기 간 : 2009.05.02(토) ～ 2009.05.31(일) (총30일간)

○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4전시실

○ 내 용 : 2007년 10월 15일(월)～16일(화) 경기도 광주에서 출토된 3인의 복식유물이다. 墓主는 海南 尹氏家의 대표적 인물인 孤山 尹善道(1587～1671년)의 兄인 尹善言(1580～1628년)과 尹善言의 母인 順興安氏(1550～1609년) 등이다.

❑ 고고 · 미술분야 제1회 특별전

○ 주　제 : 벼루 600選 특별전

○ 개막식 : 2009년 11월 4일(수) 14:00

○ 기　간 : 2009.11.04(수) ~ 2009.12.24(목)

○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2전시실

○ 기　타 : 경기문화재단 지원

○ 관련 사진









❑ 고고 · 미술분야 제1회 특별전 기념 학술강연회

○ 주제 : 한국의 벼루

○ 일시 : 2009년 11월 4일(수) 15:00

○ 장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켄벤션홀(박물관 206호)

○ 발표

1. 기조 강연

– 한국 고대 벼루에 대한 小抄(정영호 : 석주선기념박물관장)

2. 학술 강연

– 한국의 벼루(손환일 : 경기대학교 연구교수)

○ 학술강연회 사진









❑ 고고 · 미술분야 제24회 정기연구발표회

○ 주제 : 한국 탑파의 기원과 전개

○ 일시 : 2009년 12월 3일(목) 14:00

○ 장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켄벤션홀(박물관 206호)

○ 목적 : 한국미술사의 주류는 불교미술이었으며, 가람의 중심에 건립되어 예배와 신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조형물은 탑파였다. 관련 전문가를 통한 탑파에 대한 시원과 전파 경로,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의 탑파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학문적 위상과 관련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본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

○ 발표

1. 기조 강연

– 탑파의 시원과 전파(정영호 : 석주선기념박물관장)

2. 연구발표

가. 삼국시대의 탑파

– 장준식(충청대학 교수/박물관장)

나. 통일신라시대의 탑파

– 신용철(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다. 고대의 사리장엄

– 신대현(사찰문화연구원 위원)

3. 질의 응답

○ 학술 발표회 사진









❑ 민속·복식 분야 학술조사

❍ 수원역사박물관 소장 기증유물 보존처리

○ 기간 : 2008.12.09～2009.12.08

❍ 남양주 별내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평산신씨묘 출토복식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 대상유물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평산신씨묘 출토 복식

○ 기간 : 2008.07.01～2009.06.30

❍ 전쟁기념관 소장(어사화 및 직물류) 보존처리

○ 기간 : 2009.03～2009.04

❍ 남양주시 별내지구 문화재발굴조사 무연고 분묘 출토복식 보존처리 및 과학조사

○ 대상유물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무연고분묘 출토복식 59점

○ 기간 : 2009.04.10～2010.04.09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행주기씨 출토복식 보존처리

○ 기간 : 2009.05.04～2009.11.10

❍ 남양주시 별내지구 문화재발굴조사 4-5지구 출토복식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 기간 : 2009

❑ 고고 · 미술 분야 학술조사

❍ 금산 미륵사 성보문화재 학술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1.07～2009.02.16

○ 조사면적 : 금산 미륵사 일원

○ 조사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345번지 일대

❍ 화성봉담공동주택신축공사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2.27～2009.03.27

○ 조사면적 : 64,900㎡

○ 조사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100번지 일원

❍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외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2.27～2009.04.19

○ 조사면적 : 769,000㎡

○ 조사지역 :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덕정동, 회천읍 일원

❍ 용인시 마북동 대림아파트 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3.19～2009.04.30

○ 조사면적 : 99,870㎡

○ 조사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4-5번지 일원

❍ 숭의여자대학 평생교육원 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3.20～2009.05.19

○ 조사면적 : 3,980㎡

○ 조사지역 :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26-8번지 일원

❍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3.23～2009.04.22

○ 조사면적 : 44,298㎡

○ 조사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번지, 산71-2번지 일원

❍ 창룡문 사거리~연무중 사거리 도로확장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3.23～2009.05.19

○ 조사면적 : 20,933㎡

○ 조사지역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원

❍ 정릉대일연립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3.27～2009.05.26

○ 조사면적 : 31,248㎡

○ 조사지역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원

❍ 수논골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5.06 ～ 2009.06.30

○ 조사면적 : 190,000㎡

○ 조사지역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일원

❍ 신길5재정비 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5.07 ～ 2009.06.30

○ 조사면적 : 76,790㎡

○ 조사지역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원

❍ 남가좌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09.25 ~ 2009.10.24

○ 조사면적 :63,466.4㎡

○ 조사지역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원.

❍ 홍은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10.07 ~ 2009.11.06

○ 조사면적 : 23,420.80㎡

○ 조사지역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호박골) 24-82번지 일대.

❍ 이천 부악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간 : 2009.12.07 ~ 2010.01.06

○ 조사면적 : 169,915㎡

○ 조사지역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7-1번지 일원

알 림

〈박물관 기요〉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투고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1. 투고원고는 역사학 일반,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바 없는 고유한 연구물이어야 합니다.

2. 투고원고의 매수 제한은 없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디스켓을 동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투고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 정기 연구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량이 많을 경우 편집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4. 그 밖에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 8005-2389~2390
FAX : 031) 8005-2391

〈박물관기요〉 24

2009년 12월 24일 인쇄
200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1968年 2月 27日 NO. 3-95
편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수지구 용인시 죽전동 126번지
(031) 8005-2389~2390, FAX : (031) 8005-2391
편집 新 陽 社 (02) 2275-0834, 4585